

통(通)성경 프로그램이 청년목회에 미치는 영향

창원새순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권혁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Hyeok Jin Kweon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ong Bible Program for Young Adult Ministry
: A Study of Saesoon Church, Changwon, Korea

Hyeok Jin Kweon

Saesoon Church, Changwon

In this 21st century, young adults in Korea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Things are going more and more rapidly changed in the world, and, for example, the employment rate of young adults is hitting the bottom nowadays. Many of the young adults even give up getting married their and giving childbirth, too. Christian young adults are not exceptional, either. But what the problem is that within this situation, their religious beliefs get to face a crisis. Once they enter a college, they begin to lose their religious beliefs, and after getting a job with all the hardships, they neglect their religious practices with an excuse that they are too busy at work. Their faith gets to shake on account of temptations and persecutions in young adults. Now let's consider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problem. The author deems that their religious beliefs waver because they are not with the words from the Bible, the basis of sound religious beliefs.

Korean churches should pay attention to young adults for the church's future. Particularly, they should help them to learn the Bible, the words of God, properly. As one of the ways for it, the researcher suggests Tong (通) Bible programs. The researcher provided a Tong (通) Bible program for young adults and then wrote this thesis to describe the process and outcome.

The future of Korean churches depends on young adults. If we disregard young adults, Korean churches will lose its power soon. To let young adults stand righteously as God's person, they should be educated properly about the Bible, God's words. As one of the ways for it, this researcher proposes the Tong (通) Bible program which Byoungho

Zoh h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perating the program by this researcher and young adults, young adults' understanding of the Bible has elevated considerably. From the very place, the recovery of young adults' religious beliefs will begin.

국문초록

통(通)성경 프로그램이 청년목회에 미치는 영향
창원새순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권혁진

새순교회, 창원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힘들다. 세상은 점점 바쁘게 흘러가고 청년고용은 바닥을 치고 있다.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것은 기독교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어렵사리 직장에 취업하고는 직장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 청년 때의 유혹과 핍박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신앙의 근본인 성경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된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통(通)성경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연구자가 청년들과 함께 통(通)성경프로그램을 실시하여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청년들을 소홀히 하면 곧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는 조병호가 개발한 통(通)성경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본 연구자가 청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결과, 청년들의 성경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청년들의 신앙회복은 시작될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논문의 구조	5
II. 통성경 이해	7
통성경의 성경적 이해	7
통성경의 신학적 이해	18
통성경의 목회적 이해	40
III. 청년목회 이해	47
성경적 이해	47
상황적 이해	51
실천적 이해	58
IV. 통성경과 청년사역	67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청년 소그룹 모임.....	67
통독큐티(마음과 생각)를 통한 청년 소그룹 모임	83
통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	103
통성경을 통한 청년설교	135
V. 실행과정	152
통성경학교	152

통성경을 통한 청년설교	172
VI. 요약과 결론	179
요약	179
결론	182
부록	190
참고 문헌	222

표 목차

<표1> 통(通)으로 보다	23
<표2> 전통적 구약분류 방식	32
<표3> 구약 역사서의 역사순 순서	34
<표4> 구약 시가서의 역사순 순서	35
<표5> 구약 예언서의 역사순 순서	36
<표6> 구약 예언서의 역사순 구체적 순서	36
<표7> 성경통독의 다섯 가지 관점	40
<표8> 소그룹의 필수적인 요소	59
<표9> 통 드라마 2~4단계	68
<표10> 통(通)성경 7개 트랙 분위기	72
<표11> B.C. 8세기의 국제정세	78
<표12>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지 1	80
<표13>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지 2	81
<표14> 마음과 생각 소그룹성경통독 모임 샘플	86
<표15> 매일성경(성서유니온)의 큐티 성경본문	89
<표16> 마음과 생각 월별 큐티 순서	91
<표17> 일 년 일독 성경 읽기표	98
<표18> 통 포물라 공식	105
<표19> STEP 3 성경줄기	124
<표20> 성경의 기도샘플 12가지	131

<표21> 성경속 사람들의 기도공식	132
<표22> CBS 바이블 칼리지 120강의 순서	143
<표23> 설문조사 개요 1	153
<표24> 통성경학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점	161
<표25> 통성경학교 후 성경읽기의 변화	163
<표26> 통성경학교 참여 후 설교이해의 변화	164
<표27> 역사순 성경읽기 방식의 효과	165
<표28>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	166
<표29> 성경즐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의 성경이해 영향	167
<표30>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	168
<표31> 통성경학교가 기도생활에 미친 영향	169
<표32>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와 전도	170
<표33> 설문조사 개요 2	173
<표34> 역사순 성경읽기와 설교이해	175
<표35> 한주간 큐티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의 반응	176
<표36> 통성경 프로그램과 설교이해도	177

감사의 글

5년 전 창원새순교회에 부임하여 통(通)성경에 대해 알고 배우게 된 것은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통성경은 저에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창원새순교회 담임목사이신 박영호목사님은 미국 드루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 저를 추천해주시고 공부하도록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경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박영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창원새순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함께 수고한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사역과 공부로 바쁜 아빠의 부재를 잘 이해하고 견디어 준 사랑하는 딸 예은이와 예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와 목사 사위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通)성경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성경 읽기와 신학의 세계를 열어 주신 조병호 교수님, 논문을 지도해주시고 미래 교회에 대한 통찰력을 주신 김영래 교수님, 성경을 이야기와 은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Leonard Sweet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과정을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께도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동역자로 불러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동기와 목적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마다 청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물론 청년대학부가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상유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들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성경에 대한 지식 결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거인 말씀을 알지 못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와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된다. 사도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했다.¹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다.² 우리가

¹ 디모데후서 3장 16절.

² 요한계시록 1장 3절.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업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받으면 쉽게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은 청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이야기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인 성경말씀이 부모나 교회로부터 바르게 전수되지 못하고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채, 주일성수, 헌금과 봉사 생활 등 제도적 교회생활만 강조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영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청년들을 포기할 수 없다.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사회의 내일이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기독교는 본래 청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세 전후의 청년의 때였다.³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연배의 청년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김지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던 바울도 청년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심한 때도 32세의 청년 때였다. 그리고 34살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95개조의 성명서를 내걸고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종교를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불후의 신학적 명작인 기독교 강요 첫 판을 저술한 요한 칼빈, 그리고 젊은 대학시절에 학생선교운동을 하다가 32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선교를 위해 떠났던 요한 웨슬레, 이들은 모두 30대 안팎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⁴

³ 누가복음 3장 23절.

⁴ 김지철,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목회* (서울: 목회와신학, 1999), 116.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 이미 일찍부터 성경말씀을 배워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청년사역이 7년째인 본 연구자도 청년들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성경 지식조차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현시대 교회의 성경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자의 배우자도 결혼 전에 교인 수 약 1,500명 모이는 교회의 청년이었다. 중직자의 자녀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던 연구자가 조병호의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통성경 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통(通)성경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 그리고 목회적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 다룰 통성경의 적용대상인 청년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성경적, 상황적, 실천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자가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눈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2016년 1년 동안 연구자와 청년들이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40개의 성경줄기로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공부했다. 교재는 조병호가 쓴 ‘통성경길라잡이’이다.⁵ 이 책을 소개하고 나눔으로 경험했던 유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 통독큐티집 ‘마음과 생각’이다.⁶ 조병호가 편찬한 이 큐티집은 역사순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매일 성경 한 장의 분량의 말씀을 묵상한다. 3년이면 성경전체를 묵상하며 일독할 수 있다. 연구자와 청년 리더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유익했던 부분을 다룬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큐티책과 비교해 마음과 생각의 장점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큐티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누린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셋째는 통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인데,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성경학교를 소개하고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유익을 나누고자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설교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새순교회와 새순청년대학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청년’이라 함은 만 19세부터 30대 전후의 연령에 속한 미혼 남녀들을 가리킨다.

연구의 방법

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4), 소그룹 통독교재.

⁶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2월호* (서울: 통독원, 2014-2018), 매일 성경 한 장으로 구성된 큐티집.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통성경과 관련된 연구를 시행함 있어서 통(通)의 개념을 만들고 정리한 조병호가 쓴 책과 강의들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헌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청년대학부 사역은 본 연구자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새순교회에서 5년째 사역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과 다른 문헌자료들을 참조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성경통독원⁷에서 진행 중인 통(通)성경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문에는 성경통독교재인 통성경길라잡이, 역사순서대로 편집된 큐티책 ‘마음과 생각’, 그리고 10주 과정으로 이루어진 통성경학교, 전체 120강으로 이루어진 CBS바이블 칼리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성경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설교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통성경 프로그램과 청년대학부 사역의 관계는 각 항목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출했다.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제 I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동기, 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문의 구조를 다루려고 한다. 제 II 장에서는 통(通)성경의 이해를 다루는데, 통성경의 성경적 이해, 신학적 이해, 목회적 이해를 다룬다. 제 I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통(通)성경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인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그들의 성경적, 상황적, 실천적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제 IV 장에서는 통(通)성경과 청년대학부 사역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첫째로, 소그룹 성경통독교재인 ‘통성경길라잡이’의 내용과 청년들과의 소그룹 모임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반응을

⁷ 성경통독원은 통독원 (구, 한시미션)이 1989년도에 세운 성경통독전문기관이다.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로, 역사순으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도록 편집된 큐티책 ‘마음과 생각’을 교재로 하는 청년 소그룹 모임을 다루면서 이 모임의 내용과 효용성을 소개한다. 셋째로, 청년들의 통(通)성경학교 참여를 다루고자 한다. 10주 과정의 통성경학교를 소개하고 청년들의 반응을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러한 통성경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설교이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 V장에서는 IV장의 실행과정을 다룬다. 통(通)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사례조사와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제 VI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전체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언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제 II 장

통성경의 이해

통성경의 성경적 이해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통(通)성경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주창한 조병호는 통성경을 이렇게 말한다. “통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과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 내서 읽는 것이다.”¹ 조병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한다.

시간 • 공간 • 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먼저 성경 속의 시간에는 ‘태초’ 로부터 시작하여 ‘종말’ 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간인 ‘처음’ 과 ‘끝’ 이 모두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절기와 명절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의 시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또 1,000년의 시간이 들어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시간’ 이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일정 지명들을 포함해 ‘보여줄 땅’ 에서부터 ‘땅

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서울: 통독원, 2015), 1.

끝까지' 약 1,500곳에 이른다.²

성경에서의 공간은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한 곳이고,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 등 참으로 많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삶의 방향으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정탐 10명을 비롯해, 여로보암, 예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들 등이 있다. 또한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5,000여 명의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³

이처럼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여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통(通)성경이다.

개인 • 가정 • 나라를 통(通)으로

² Ibid.

³ Ibid., 2.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봄으로써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한(?)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⁴

예수님의 베들레헬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헬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이야기이다. 동시에 임신한 상태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헬까지 먼 길을 간 것과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로마가 제국을 했기 때문이다.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정확하고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헬 탄생 이야기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로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통(通)성경이다.⁵

제사장 나라 • 5대 제국 •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⁴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2.

⁵ Ibid.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처럼, 제사장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다.⁶ 이는 제사장 나라가 여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뜻한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이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수직적으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제사장나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⁷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⁸

성경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성경 속 명절인 수전절은 헬라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제국의 사형 틀이기에 신약성경과 로마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신

⁶ 출애굽기 2장 20절.

⁷ 조병호, *선지자와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18), 25.

⁸ Ibid., 52-53.

것이다.⁹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세계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다섯 개의 제국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들어 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 통(通)성경이다.¹⁰

성경 읽기의 성경적 배경: 구약의 성경읽기

구약성경에서 ‘읽는다’ 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קרא (카라)이다. 이 단어는 ‘부르다’ (call; 창12:18, 27:1, 39:15, 18; 왕하7:11), ‘부르짖다’ (Cry), ‘선포하다’ (proclaim; 창41:43; 신15:2, 렘31:6; 레25:1), ‘설교하다’ (Summon; 창12:18, 20:8, 9; 삿8:1), ‘크게 읽다’, ‘낭독하다’ (Read aloud; 렘36: 8, 14; 느8:3, 8; 9:3; 대하34:18)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¹¹

‘읽다’, ‘낭독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말씀의 두루마리나 율법책을 큰 소리로 회중 앞에서 읽거나 낭독할 때이다(렘 36:6, 8, 14, 15; 느 8:3, 8; 대하 34:18, 24; 출 24:7; 왕하 22:10; 왕하 5:7; 사 29:11, 12). 둘째는 말씀의 두루마리와 율법책을 자신 스스로에게 읽을 때이다(신 17:19; 느 8:18; 합 2:2; 왕하 22:8; 사 34:16).¹²

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2.

¹⁰ Ibid., 1-2.

¹¹ Francis Brown & Edward Robinso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MA: Hendrickson Pub, 1985), 894-895.

¹² 강경태, “성경통독이 성도의 설교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7.

그러기에 구약성경의 ‘읽다’, ‘낭독하다’의 קָרָא (카라)는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직접 돌에 새겨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광야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¹³ 또한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매 칠년 면제년에 자녀들에게 낭독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이 반드시 현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한 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¹⁴ 여호수아는 모든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듣도록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한다.

또한 왕정 5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그가 여호와와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는다. 왕은

¹³ 출애굽기 24장 7절.

¹⁴ 여호수아 8장 34-35절.

율법책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사반이 읽어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에 겸비하면서 통곡과 회개가 일어났다.¹⁵

포로에서 귀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한지 일곱째 달에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회중 앞에서 읽어준다. 그 때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¹⁶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달라짐을 보게 된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¹⁷

신약의 성경읽기

신약성경의 ‘읽는다’ 단어인 ἀναγιγνωσκω(아나기노스코)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구분하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정확하게 알다’ 는 의미로 사용된다. 두 번째 ‘읽는다’ 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대부분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사용된다. 먼저 구약성경 또는 글을 개인 스스로가 읽는 것이다(마 22:31; 마 12:5, 21:42; 눅 6:3; 요 19:20; 행 8:28, 30, 32; 고후 1:13; 계 1:3, 5:4; 막 12:26; 눅 10:26; 마 19:4; 막 2:25; 마 24:15; 막 13:14; 행 15:31, 23:34; 엡 3:4; 고후 3:2). 다음은 구약성경 또는 글을 회중에게

¹⁵ 열왕기하 22장 10, 19절.

¹⁶ 느헤미야 8장 5-9절.

¹⁷ 강경태, “성경통독이 성도의 설교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8-9.

크게 읽는 것이다(고후3:15; 행15:21; 눅4:16; 행13:27; 살전 5:27; 골4:16).¹⁸

예수는 구약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¹⁹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과 묻고 대답할 만큼 지혜가 있으셨다. 그리고 늘 구약성경을 읽으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²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는 복음서 말씀 가운데 10분의 1이상을 구약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 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다룬 1800개의 구절 가운데 180구절이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다.²¹

사도시대에 이르러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반 이상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는 23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구절이 구약인용이다.²² 스테반의 설교는 48구절로 되어 있는데 본질상 그 전부가 구약의 인용이다.²³ 바울의 첫 설교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 등장하는데, 모두 26개 구절로 되어있고, 그 가운데 15개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다.²⁴

사도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¹⁸ Joseph Thayer & James Strong,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889). 강경태, “성경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9에서 재인용.

¹⁹ 누가복음 2장 46-47절.

²⁰ 누가복음 4장 16절.

²¹ H. L.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박광철 역, *종합성경연구I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484.

²² 사도행전 2장 14-36절.

²³ 사도행전 7장 2-50절.

²⁴ H. L. Wilmington,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484.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²⁵라고 선포한다.

신약시대에 새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셔서 성경을 풀어주고 깨닫게 했다.²⁶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²⁷ 베뢰아 사람은 바울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한다.²⁸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복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했고,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바울 시대의 이 성경은 구약성경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깊이 파고들고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책 모두를 읽는 것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며,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²⁵ 요한계시록 1장 3절.

²⁶ 사도행전 8장 26-35절.

²⁷ 사도행전 17장 1-2절.

²⁸ 사도행전 17장 11절.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재물, 명예, 권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땅의 지식, 권력, 재물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추는 데에 꼭 필요하다.²⁹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아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대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는 소중한 책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지식과 기도가 합해질 때,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힘을 누릴 수 있다.³⁰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다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날 수 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책들이

²⁹ 만약 법관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로 판결을 내리거나, 의사가 의학지식을 제대로 체득하지도 못한 채, 환자를 수술한다면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³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5-9.

있다. 전도서와 욥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한편 성경에는 문학도 있다. 시편, 아가서, 욥기 등은 문학 중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꼽힌다. 성경에는 역사도 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바로 역사를 다룬 부분이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세계경영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된 역사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서들을 비롯해 다양한 책들이 모두 역사를 담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다. 또한 어떠한 위인전보다도 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의 일대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뒤를 이은 제자들의 행적에는 무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삶과 죽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있다.³¹ 이러한 이유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통 성경 읽기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총체적인 이해로 바라보는 성경읽기를 의미한다. 통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의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로 인한 폐해를 통감하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연결해 독파하는 성경읽기 방법론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³² 원래 통독(通讀)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고 텍스트 전체를 통(通)으로 여러 차례 읽어가다 보면 마침내 직관(直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읽는 성경통독을 한 번, 두 번, 더 나아가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³³

³¹ Ibid., 23-24.

³²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1.

³³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164.

통(通) 성경읽기의 창시자 조병호는 통 성경읽기를 통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전 세대의 신앙 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조병호는 5세부터 20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에게 쉽고 재미있으며 연속적인 이야기로 전달되는 통(通) 성경읽기 방법을 통한 성경 교육을 강조한다.³⁴ 본 연구자는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적 시대흐름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통(通) 성경읽기를 교육적 도구의 하나로 제안한다. 이 시대는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객관적 진리보다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진리인 말씀인 성경 자체를 청년들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³⁵

통성경의 신학적 이해

통(通)이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 중의 하나가 ‘통(通, Tong)’이다. 방송은 물론, 언론사, 기업, 학원, 출판사 등 많은 기관에서 통(通)을 활용하여 활발한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通)박사로 알려진 조병호는 2006년 6월, 하이기쁨교회 주일예배에서 ‘탕(湯)과 통(通)’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2006년 12월 차이나네트워크연구소(CNI)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통(通, Tong)’ 사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³⁶

³⁴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14-17.

³⁵ 로마서 10장 17절.

³⁶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자료집 (2007), 23.

통(通)이라는 글자는 주로 ‘통달’ , ‘소통’ , ‘화통’ , ‘정보통’ 등과 같이 다른 한자어와 함께 단어를 이루어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서로 뜻이 맞거나 생각이 같을 때를 표현하는 말로 ‘통하다’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뜻을 지닌 단어를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통(通)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법이다. 통(通)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글자는 ‘통하다’ 라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은 통(通)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서 ‘통(通)으로 보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³⁷

통(通)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더욱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경로나 하나의 방법으로 대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대상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통(通)이란 대상의 인식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인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가지로 치우치거나 집중하는 것은 통(通)이 아니다. 많은 관점에서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는 대상의 여러 가지 인식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짓는 것이 바로 통(通)이다.³⁸

³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4-45.

³⁸ Ibid., 45.

조병호는 ‘통(通)’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통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어떤 대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요소를 꿰뚫어서 살피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³⁹ 다시 말해, 조병호가 말하는 ‘통으로 보다’는 것의 의미는 대상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이해함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꿰뚫어보고, 모든 면에서 여러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때, ‘통으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립된다.

조병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으로 본다’의 의미를 서양의 분석적인 사고와 동양의 전체적인 사고를 유기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⁴⁰ 서양은 대체적으로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 부분에 집중해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동양은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대상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사고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통이란 실체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기반 위에, 본질적인 특징을 상황과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동양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인식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보지 못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고로 치우치기 쉽고, 분석적으로 본 요소를 총체적으로 꿰뚫어보지 못하면, 협소하고 산발적인 사고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에,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통(通)의 인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통(通)은 철학의 한 분야인

³⁹ 조병호, *통이다 꿰뚫통*, 62.

⁴⁰ Ibid., 64.

인식론⁴¹의 한 틀로서,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물을 인식하는 총체적인 방법이다. 조병호는 이러한 동서양의 독특한 방식을 하나로 묶어 ‘통(通)’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⁴²

동양과 서양의 사고를 통합하는 방식은 조병호가 최초로 시도한 주장이며, 통(通)을 이해하는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通)’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서양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동양적이다. 그런데 조병호는 동양적인 사고의 보편성을 뛰어넘어, 동양과 서양적 사고의 특징과 장점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인 ‘통(通)’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글자의 모습은 똑같지만, 조병호가 말하는 통(通)의 의미는 동양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달리,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통(通)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고 재해석 했다고 할 수 있다. 조병호가 재발견하고 만들어낸 통(通)은 대상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시대에 가장 큰 거대담론이라 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의 방식까지 하나로 묶어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인 그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조병호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의 본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까지 모든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틀로 통(通)을 정의한 것이다.⁴³

‘통(通)으로 보다’라는 단어는 통(通)의 방식으로 대상을 본다는 뜻으로,

⁴¹ 인식자체의 반성이나 그 기원, 본질, 방법, 한계 등을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부분.

⁴² 조병호, *통이다* 펠츠통, 64.

⁴³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8.

여기서 ‘보다’ 라는 말은 ‘생각하다’ , ‘인식하다’ 등의 말과 통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적절한 경우 ‘자네가 사람 참 잘 봤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때의 ‘보다’ 가 눈으로 본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 꿰뚫어 알아보기’ 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과 같다. 결국 어떠한 대상을 ‘통(通)으로 본다’ 는 말은 그 대상 전체를 꿰뚫어 보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두루 생각하여 안다는 말이다.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단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생기는 인식의 편협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루 균형 있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다.⁴⁴

얼핏 생각하면 통(通)으로 본다는 말은 동양의 상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어나, 그것이 아니라 서양의 방법으로 일컬어지는 분석적인 사고와 동양의 방법으로 일컬어지는 전체적인 사고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어떠한 대상을 인식할 때, 그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막힘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양자 간의 방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서양의 사고방식의 기반 위에 동양의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통으로 본다는 것은, 동양적인 인식방식과 서양적인 인식방식을 두루 섭렵하여 총체적인 사고를 한다는 뜻이다.⁴⁵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뜻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⁴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6.

⁴⁵ Ibid., 46-47.

<표1> 통(通)으로 보다

통(通)으로 보다: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다양한 경로와 관점을 통해 이해한다.⁴⁶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통(通)으로 본다’는 개념은 대상이 다수일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여러 대상을 놓고 그 대상들을 통(通)으로 본다는 의미는 그 대상이 단수였을 때보다 조금 더 심화된다. 대상이 단수였을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어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상이 복수가 되면, 그 하나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성질을 꿰뚫어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기반으로 각 대상 간의 핵심적 상보성을 찾아 유기적으로 보고, 나아가 모든 대상을 전체로 상정하여 그 전체라는 기반 위에서 각각의 대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⁴⁷ 예를 들어, 합창단의 지휘자가 전체 합창단원들과 잘 소통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합창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특징과 소리를 잘 듣고 각각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수 개체 하나하나와 통(通)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개체의 속성과 본질에 관심을 두는 서양의 실체적 사고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 전 단원들이 한 번에 내는 소리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조화롭게 조율해야 한다. 전체 합창단원이라는 복수의 대상을 통(通)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안에서 개체의 가치를 파악하는 동양의 관계적 사고방식이다. 즉, 통(通)이란 전자의

⁴⁶ Ibid., 46.

⁴⁷ 조병호, *통이다 췌츠통*, 65.

방식과 후자의 방식을 유기체적으로 아우르는 방법이다.⁴⁸

통(通)신학

통(通)신학이란 ‘통(通)’ 과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 즉,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 다양한 관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입장에서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통(通)신학인 것이다.⁴⁹

또한 통(通)의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통(通)신학의 방법론으로서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읽기와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읽기의 통합이 있다. 조병호가 말하는 공시(共時)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을 의미하고, 통시(通時)란 연속되는 시간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를 볼 때, 비슷한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등을 함께 보는 것이 공시이다. 예레미야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았던 다윗과 예레미야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보는 것이 통시이다. 예레미야를 통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 모두를 상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병호는 부분적 성경 읽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즉 공시적 성경 읽기와 통시적 성경읽기가 통(通)으로 묶여야

⁴⁸ Ibid., 65-66.

⁴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8.

함을 주장한다.⁵⁰ 본 연구자도 공시적 성경 읽기와 통시적 성경읽기 방법 즉, 통(通)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읽기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더욱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성경을 봄에 있어 서로 다른 영역을 통(通)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통(通)신학은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과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 방식이 통(通)으로 가야함을 말한다. 주로 서양은 그동안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해왔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다. 통(通)신학이란, 성경해석에 있어 이러한 동서양의 두 가지 방법론이 상보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⁵¹ 이것은 설교자의 설교 준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전 중심의 성경읽기 방법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본문의 말씀을 설교자 자신이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정 중심의 성경읽기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설교 준비에 있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통(通)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두루 섭렵하여 파악하는 것’, ‘여러 대상 간의 핵심적 상보성을 찾아 총체적인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보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때, 통(通)신학은 서로 다른 방식의 성경읽기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을 균형적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⁵²

조병호는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동일한

⁵⁰ Ibid., 49.

⁵¹ Ibid.

⁵² Ibid., 50.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와 본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을 통(通)으로 볼 때, 시대 현실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을 잘라 보던 수많은 기독교 내의 분열과 분리가 극복되고, 하나의 기준인 성경 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통(通)의 성경읽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새로운 경전 해석의 길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지칭하는 통(通)신학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진리를 바탕으로 동서양이 함께 공전하는 평화 추구의 꿈을 갖는다고 말한다. 성경의 깊이와 넓이에 가장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通)신학은 동서양의 교회들이 이념,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외형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반자적 관계로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자 공통분모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⁵³

성경통독은 통(通)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通)신학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숙지해야 하며, 그러한 관점들을 상보적,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성경통독을 통하여 얻어지기 때문이다. 성경을 부분만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관점을 얻기 힘들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에는 각 부분마다 적합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이 얻어지기 때문이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아우를 때 통(通)신학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다.

⁵³ Ibid., 50-51.

⁵⁴ Ibid., 51.

통성경화란

조병호는 ‘통성경화’ 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한다.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1년에 10번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통시적, 공시적 성경읽기를 통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섯째,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으로 읽어야 한다. 통성경화란 위의 5가지 내용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⁵⁵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숨 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사건들이 이야기가 되어 빼곡히 기록된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⁵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11.

사건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통독이다. 이런 모든 사건들의 관계와 영향력과 의미는 성경통독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⁵⁶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한 장이 주는 메시지도 있고, 성경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전체의 메시지가 있다. 매일 몇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고, 보지 않던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된다. 영의 양식인 성경을 편식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없게 된다.

조병호는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넓은 수영장에 들어가지는 않고, 손으로 물을 퍼서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성경전체를 통(通)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마치 성경의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것과 같다.⁵⁷고 조병호는 말한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읽어 온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며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애독하였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아픔을 겪고 남한에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계속되자, 이때 소위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교회는 성경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복음전파와 개인구원을 강조하며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읽은 반면,

⁵⁶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2.

⁵⁷ Ibid., 24.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시대의 약자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으로 아모스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읽었다. 결국 성경은 시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그 읽기 범위와 이해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성경의 부분만을 보는 습관으로 굳어져 왔다.⁵⁸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성경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도구 밖에는 되지 않는다. 성경통독은 어느 한 주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전체를 통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는 것이다.

성경을 통독할 때 지금의 성경배열 순서로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서로 성경이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읽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각 권을 재배열하여 역사적 순서로 읽게 될 때, 그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전체의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고, 내용과 분량을 고려하여 성경본문을 365개로 나누었다. 하루에 구분된 범위 하나씩을 읽어 가면 일 년에 성경일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하루에 읽을 성경 범위마다 성경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성경 이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통독본문 내용정리’를 먼저 읽어보고 성경의 흐름을 숙지한 후 해당날짜의 성경 본문을 보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⁵⁹

⁵⁸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44.

⁵⁹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1.

본 연구자도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을 보게 된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성경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본 연구자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강조하고 읽기 시작하자, 청년들도 하나 둘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5대제국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서로 맞물려 가는지 알게 되었고⁶⁰, 시간의 공시적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

성경통독은 성경 이야기에 관한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따라, 부지런히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살피는 것은 성경통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성경이야기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초를 다져 놓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이 들어올 때마다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⁶¹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을 잘 정돈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교회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성경을 현재 주어진 순서대로 읽으면 부분적으로 또는 구절구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유익은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

⁶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집트, 이사야서의 배경은 앗수르제국,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제국,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제국, 신구약 중간사는 헬라제국, 신약성경 전체는 로마제국과 관련이 있다.

⁶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3-26.

속에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 또한 그 메시지가 본문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느낌과 통찰력과 정서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조병호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이유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⁶² 본 연구자도 역사순이 아닌 편집순으로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였지만, 큰 유익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적 순서를 따라 성경을 통독할 때에,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아 알 수 있었다.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역사 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취하고 있는 주제별, 장르별 순서보다는 역사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약의 한 권을 읽을 때에는 구약 전체 혹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며 읽고, 한 장을 읽을 때에는 책 안, 혹은 앞장과 뒷장의 맥락을 고려하며 읽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 순으로 편제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주로 장르별 편제를 따르고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따로 모으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통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각 권들이 가진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여 읽어야 한다.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오늘도

⁶² Ibid., 26.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⁶³

성경의 각 권들이 가지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허공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인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 그럼으로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적 배경, 시대 순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역사 순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또한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성경을 잘 모르는 이유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성경(총 39권)을 분류해온 전통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2> 전통적 구약분류 방식

- * 율법서(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 역사서(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 시가서(5권):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 예언서(17권): 대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10권으로 된 대하소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오늘은 제 1권,

⁶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13.

내일은 제 6권, 모레는 제 3권, 그 다음날은 제 9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다면, 다 읽은 후에도 그 스토리와 인과관계를 다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읽는다. 그나마 1권씩 다 읽지도 않고, 그 안에서도 좋아하는 구절만 몇 구절 선택해서 읽고 있는 것이다. 넓고 깊은 말씀의 바다에서 큰 호흡으로 마음껏 수영할 생각은 안하고, 얇은 개울 물가에 앉아서 겨우 발만 담그고 침빙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⁶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제별 혹은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편제만으로는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어도 성경의 역사 흐름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는 그런대로 시대 흐름으로 이어지는 편이라, 쭉 읽어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들어가고, 또 예언서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역사 순서라기보다는 분량별(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모아 놓아서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쉬운 예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훨씬 앞 시대 사람들인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시간 순서대로 제대로 읽는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야 한다. 역사 순서를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러한 편제도 어렵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의 순서가 당연히 역사 순일 것이라 생각하고 읽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되는

⁶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5.

것이다.⁶⁵

구약 39권을 역사순서대로 재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약시대는 다음과 같이 네 시대로 크게 나누인다. 먼저 역사서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구약 역사서의 역사순 순서

- 1) 원역사, 족장시대, 모세와 출애굽 시대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 2)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권)
- 3) 왕정시대
: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6권)
- 4)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3권)

다음으로 시가서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편은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1천여 년에 걸쳐 쓴 시들을 모은 책이다. 시편의 절반 가량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함께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는 그 중심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보고, 열왕기상 초반부에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와 함께 읽는다. 마지막으로 욥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족장 시대이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와 함께 읽어도 괜찮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욥기를 제외한 시가서 중 시간 흐름상 가장 마지막으로 읽게 되는 시가서인 전도서를 읽고 난 후, 이어서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남은

⁶⁵ Ibid.

시편 전체를 읽는다.⁶⁶

<표4> 구약 시가서의 역사순 순서

- 시편 -----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함께 / 욥기에 이어서
- 잠언, 아가, 전도서 ----- 열왕기상 1~11장과 함께
- 욥기 ----- 전도서에 이어서

예언서는 17권인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시대 순으로 편집하지 않고, 분량이 많은 책들은 대 예언서로 구분하여 앞쪽에, 분량이 적은 책들은 소 예언서로 분류하여 뒤쪽으로 모아 놓았다. 그러다 보니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내용의 예언서 뒤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전에 있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용의 예언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예언서를 성경에 실린 순서대로 읽으면 시대가 헷갈리고 어느 선지자가 먼저 활동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성경통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량에 따른 구분법을 잊어버리고,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순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언서들은 모두가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에만 쓰여 졌다. 즉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였다는 것이다. 왕정시대의 예언자들과 포로시대의 예언자들을 분류하고 활동순서대로 예언서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는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묶은 것이다.⁶⁷

⁶⁶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

⁶⁷ Ibid., 17.

<표5> 구약 예언서의 역사순 순서

- 왕정시대 예언서들 12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요엘(?)
-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들 5권: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6> 구약 예언서의 역사순 구체적 순서⁶⁸

시대구분	예언서	예언자 주요 활동시기
왕정시대 예언서들	아모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
	이사야	남유다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미가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스바냐	남유다 요시아 왕 시기로 추정
	하박국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기로 추정
	나훔	남유다 요시아 왕 때(니느웨를 대상으로 선포)
	요엘	활동시기 불명확하나,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봄
	예레미야	남유다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애가	예루살렘 멸망 후 예레미야 지음
	오바댜	활동시기 불명확하나, 예루살렘 멸망 어간으로 봄

⁶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6-18.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들	다니엘	남유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에스겔	남유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학개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스가라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 다리오 1세 때
	말라기	페르시아 다리오 2세 때 (느헤미야와 함께 사역)

성경의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허공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인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면 역사적 배경, 시대적인 순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⁶⁹

성경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성경통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단어, 구절, 문장, 문단, 결국 성경 66권을 읽어가는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읽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지식만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은 기본이다.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인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⁶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6.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⁷⁰ 조병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 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⁷¹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각 권과 각 장마다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 그 예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마음과 생각’⁷²이라는 큐티책에도 ‘마음적기’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보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조병호가 쓴 성경을 40개의 줄기로 공부하는 소그룹통독교재인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 역시 매 과를 마칠 때에는 ‘이 과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도록 한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적어봄으로써 개인의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조병호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자도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많은 유익을 경험했다.

성경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함으로써 성경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성경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경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⁷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3.

⁷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9.

⁷² 조병호가 발행한 역사순으로 편집된 월별 성경 큐티집.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⁷³

성경통독의 목적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에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 후, 창세기 6장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⁷⁴ 창세기 1장에서의 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은 한탄과 근심의 무게를 한 자락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에서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며 4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의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사건 전체를 계획하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분의 속 타는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되며, 자칫 성경의 ‘숲’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무’에 얽매어 성경을 오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대 가운데 땀 흘려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면, 성경통독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⁷⁵

본 연구자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둔 나머지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조병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⁷³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7.

⁷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창 6:6).

⁷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9.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을 재미없고 딱딱한 책으로만 여긴다.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이야기로만 여긴다. 그것은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각 권과 각 장마다 말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조병호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독일 비텐베르크 스피치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벌하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수없이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저는 ‘하나님의 눈물’ 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⁷⁶

그렇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할 때 성경은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통성경의 목회적 이해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조병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표7> 성경통독의 다섯 가지 관점⁷⁷

- | |
|---|
| 1) 숲과 나무 - 전체와 부분을 균형 있게 보는 관점
2) 터와 나이테 - 역사와 지리를 고려하는 관점 |
|---|

⁷⁶ 조병호, 통(通)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45-46.

⁷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9-32.

- 3) 바람과 토양 -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관점
- 4) 씨앗과 열매 - 동사와 명사를 함께 보는 관점
- 5) 뿌리와 나뭇잎 - 발신자와 수신자를 고려하는 관점

숲과 나무: 성경을 통독할 때 얻어지는 유익함 중 하나가 바로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을 분석하고 쪼개어 자세히 아는 방법을 성경 읽기의 주요한 방식으로 삼은 서양의 신학을 수용한 우리는 그 방법에 익숙하다. 반면에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체 없는 부분은 방향을 잃기 쉽다. 또한 숲을 잘 봐야 나무의 의미도 명확해진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숲 둘러보기’를 해야 한다. 한 인물의 숲, 한 사건의 숲, 그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윗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라는 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윗의 삶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모습이 기록된 사무엘상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열왕기상까지, 또한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다윗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다. 다윗이 정치가이자 군사전략가라는 사실과 아울러 그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신앙인 다윗 혹은 정치인 다윗에 치우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의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성경통독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관점이다.⁷⁸

그동안 본 연구자도 너무 나무에 치우친 면이 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나무에 집착하는 면이 있었다. 본 연구자가 공부한 한국의

⁷⁸ Ibid., 29.

신학교육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본 연구자의 모습만은 아니다. 성도들도 큐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나 단어 하나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 전체 역사적인 흐름과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성도들과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무도 보아야 하지만 전체 숲 속에서 나무 하나를 관찰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터와 나이트: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거기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성경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 즉 역사와 지리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룯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멀리하던 때임을 감안하면, 룯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룯의 행실이 더욱 값지고 귀하게 다가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혹은 ‘애굽 하수에서 하맛 어귀까지’ 라는 말의 뜻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식으로 전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고려하여 ‘거기서 그때’ 의 사실을 알면 성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후,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경의 숲에서 내 인생의 숲을 볼 수 있는

것이다.⁷⁹

본 연구자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성경지리를 함께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성경지도책을 펼쳐 놓고 성경의 지명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의 1,2,3차 선교여행을 문자로만 읽을 때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지리를 활용하여 지도책을 보면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성경의 역사적 배경 없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읽을 때에 왜 하나님이 그 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바람과 토양: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성경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생생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한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지만,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각각의 문화적 특징은 다르다. 특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위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나 비유, 내용 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었고, 자기 자녀를 불에 통과하게 하는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⁷⁹ Ibid., 30.

우상을 숭배했다.⁸⁰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수백 년간 애굽의 발전된 문명을 누리다가 출애굽하여, 문화적으로 볼 때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색다르고 요란한 문화에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그들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은 무조건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는 오해와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관한 이해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⁸¹

씨앗과 열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 능력, 은혜, 믿음, 복’ 과 같은 명사들에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성경을 통독하면 움직임, 즉 동사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움직임 즉 사람들의 순종과 실천의 구체적 행위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감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사랑’ 을 말함에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⁸⁰ 신명기 12장 31절.

⁸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1.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⁸²고 말했다. 사랑이라는 명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동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한 예로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방주의 크기, 홍수기간, 비둘기, 까마귀 등의 명사에 집중하여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창세기 6장 22절의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동사에 집중해 보면, 그 사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의 열심과 노아의 땀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 일하신다는 법칙을 성경통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동사를 따라가 보면, 성경의 명사가 지닌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⁸³

뿌리와 나뭇잎: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발신자가 되시고, 우리가 수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성경말씀은 모두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된다. 또한 성경의 각 권에는 각각 기록한 사람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즉 우리가 때로는 발신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수신자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치고 길러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 40년 전 시내 산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바로 그 만나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한 기록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만나세대가 되어 바로 그 느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도자 모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내가 광야에서 지금 그 모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다고 상상하며 읽는 것이다. 또한 바울의 서신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⁸² 고린도전서 13장 4-7절.

⁸³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2.

방법은, 우리가 그 편지의 발신자가 되어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가며 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 내어놓고 사역한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읽는 것이다. 혹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읽어드리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 즉 수신자의 입장이 되어 읽어도 좋을 것이다.⁸⁴

⁸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33.

제 III 장

청년목회의 이해

성경적 이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청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자임이 들통 나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다. 좌절하고 낙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좌절과 낙심 대신 힘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청년이다.¹

구약성경에서는 인생의 단계를 보통 셋으로 구분한다. 어린이, 장성한 젊은 남자와 젊은 처녀, 그리고 원숙한 노인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다. 여기서 청년을 장성한 젊은 남자 또는 젊은이로 표현한다.² 성경 욥기 20장 11절에서는 히브리 개념에서 청년은 “알룸(אלום)” 인데 이를 영어성경에는 ‘youth’ 혹은 ‘youthful’ 로 번역한다. 신약에서 청년(youth)으로 번역된 용어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네오테리코스(νεωτερικος)’ 이다. 청년에 대한 묘사를 구약은 여러

¹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통독원, 2013), 14.

² 신명기 32:25, 시편 148:12, 에스겔 9:6.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새벽이슬’로 표현 하는데 ‘새벽이슬’의 의미는 생기와 새로운 희망과 신선함을 상징한다. 또한 잠언 20장 29절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적인 능력보다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청년의 시기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력이 있는 시기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또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청년이어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고 말씀한다. 청년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지만,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한다.

성경에서 청년의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모습,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준다. 요셉,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요시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등, 이들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시대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아들들, 압살롬, 르호보암, 여로보암, 므낫세와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청년의 시기를 방치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범죄 하였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육체적으로 힘 있는

시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시기이며,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 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갈등하고 고민하며 때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³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확연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한 때가 30세 청년의 때였으며, 바울의 회심도 청년의 때였고, 디모테와 디도 역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다. 신약에서 청년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은 사도바울과 요한이 말한 구절들이다. 바울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⁴고 이야기 하고 있고, 사도요한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यो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यो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⁵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은 청년의 시기가 새로운 도전의 시기이며 무한한 도전 정신과 힘을 발산 할 수 있는 시기인 반면에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또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청년의 시기가 ‘육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이 시기인 반면에 영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기’ 라는 의미를 제공해준다. 청년의 시기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는 시기이다. 하나님은

³ 박광수,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7.

⁴ 디모테후서 2장 22절.

⁵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이것은 청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맡겨진 사명을 헌신함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그와 함께 청년의 때는 아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와 도전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 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제대로 정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⁶

성경을 읽어보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모두가 다 청년 때 큰일을 감당하였다. 또 신약의 세례요한이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 모두가 다 청년의 때에 큰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루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민수기 4:3,23에 의하면, 어떤 레위인이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하여 50세가 되어서는 그 일을 끝을 낸다. 이러한 직책의 특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숙할 필요가 있었고, 충분한 능력도 필요한 것이다. 후기에 와서는 레위인의 직무연령을 25세로 정정하여 이미 이때부터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게 했다. 더 후기에 와서는 성소의 직무 맡는 연령을 20세로 내려놓았다. 30세가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분한 성숙기에 도달한

⁶ 박광수,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8.

것이었고, 보편적으로 20세가 된 자는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해당되었고⁷ 병역의 의무가 있었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⁸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에서는 청년들을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설 수 있는 존재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다.

상황적 이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잘 나오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세대의 신앙을 거부한다. David Kinnaman은 그의 책에서 18~29세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다고 말한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열심이 있었는데 대학에 진학하면서 혹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퇴보한다는 것이다.⁹ Kinnaman은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 유목민 유형: 교회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긴다.
- 탕자 유형: 믿음을 잃고 스스로를 ‘더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 포로 유형: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¹⁰

탕자유형은 소수이지만 유목민과 포로 유형이 대부분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⁷ 민수기 14:29.

⁸ 민수기 1:3,18; 26:2.

⁹ David Kinnaman, *You Lost Me*, 이선숙 역,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25-29.

¹⁰ Ibid., 30.

때문이다. 부모와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신앙의 뿌리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업하면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¹¹이라고 정의한다. Erik Erikson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는 대략의 나이 12~20세, 20~40세를 5, 6단계로 구분하는데 각 세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20세는 아동기와 성숙기 사이의 교차로이다.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린다. 청소년은 기본적인 사회적,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성인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혼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중요한 사회적 대리인은 또래집단이다. 20~40세는 강력한 우정을 만들고 타인과 함께 사랑과 동료애의 인식을 갖는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정이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생기게 된다. 중요한 사회적 대리인은 연인, 배우자, 친한 친구이다.¹²

에릭슨은 5단계를 정체감 대 역할혼란의 시기라고 규정한다. 자신의 내적, 신체적 격변과 사회로부터 새로운 역할요구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고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고히 정립하는 자아정체감이 이 시기의 최대과제이다.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역할 혼동을 가져와 무기력감과 혼란, 소외감 속에서 부모와 동료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¹¹ 웹사이트 ‘naver’ 국어사전

¹² David R. Shaffer, *Developmental Psychology*, 송길연 역,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5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입시의 지나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절에 확립 되어야 할 자아정체감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경우, 청년들이 이 단계를 신앙적으로 거쳐 사회로부터의 새로운 역할 요구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자아정체감의 형성과정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성숙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래집단은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 시기에 어떤 대상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때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일어나 역할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친 연대의식을 갖게 되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충성하게 되는 반면 그 밖의 이념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보인다.¹³

에릭슨은 6단계인 성인초기를 친밀감 대 소외의 단계로 보았다. 이 시기에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친밀감은 그 이전 단계에서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에릭슨은 친밀감 형성에서 사랑이 발생되며 사랑이란 자신을 타인과 관련 짓고 그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이 단계의 위험은 고립인데 이는 친밀감과 관련된 접촉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남녀관계, 동료관계에서 친화성이 너무 발달하면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춘기의 또래 집단과는 성격이 다른 배타적인 경향성을 지닌 일종의 클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⁴ 그러므로 이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또래집단 외에 가족과 사회 집단 등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의

¹³ 엄선문,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방법,”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20.

¹⁴ Ibid.

폭을 넓히기도 하고 깊게 나눌 수 있도록 소그룹 등을 통해 연결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심방 사역과 소그룹 사역 등을 통해 도와야 한다. 청년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관계가 틀리면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본 연구자는 목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 사역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공동체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

종교적 특성

청년기의 종교적 특성은 그들의 지적, 정서적, 심리적 특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 청년기의 종교적 특성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청년 초기에는 그들의 사고능력의 성숙으로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민감해지며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아직 신앙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수용한다. 그러기에 이 시기의 신앙을 동조의 신앙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청년 중반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은 반성이 일어나며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자신의 헌신, 삶의 스타일,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을 심각히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깊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경직되어 있을 때에는 자주적인 신앙을 갖기가 힘들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니면 다른 신앙의 집단에 참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주류를 이루며 삶에 있어서의 여러 역설과 극단적인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개인과 공동체, 특별과 보편, 상대와 절대, 자아 성취와 타인에 대한 봉사, 감정과 생각, 주관과 객관 등이다. 셋째로, 청년 후반에는 자신의 신앙적 입장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인정과 포용을 가지고 대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관심의 폭이 넓어지며 삶의 좌절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제한 받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종교적인 특성이 반드시 그 연령층의 청년들에게서 일치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의 세 가지의 경우가 서로 혼합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은 때로는 소극적이고 냉담한 형태, 때로는 적극적인 형태, 때로는 중간적인 형태의 신앙 특성을 가진다.¹⁵

신체적 특성

신체적으로 청년들은 왕성한 체력과 지력의 발달로 운동을 좋아하고 지적인 관심이 높아진다. 이때부터 정상적인 신체적인 원숙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신장과 체중의 발육은 대체로 20세경에 완성되는데, 신장과 체중의 증가에 따라 신체 내부의 각종 기능도 변화된다. 특히 내분비계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청년들은 신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을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가장 많은 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는 태어나서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일 것이다.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장을 겪게 되고 청년기에 와서 가장 건강하고 성숙하며 혈기 왕성한 신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청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체력이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청년들은 신체적으로는 다

¹⁵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70-73.

성장했지만 생활의 다른 면에서는 아직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청년들 스스로는 신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성숙한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¹⁶

지적, 정신적 특성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인생 주기를 8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년의 정서적인 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인 5단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 시기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정체감 대 역할혼미’ 혹은 ‘정체감의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별히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능력에서 특별히 성숙하며, 창의적인 사고는 절정에 달한다. 청년기에 있어서 개념적 사고의 발달은 추상적, 논리적 발달과 더불어 이 시기의 지적 발달을 특징짓고 있다. 과학적 이론에 흥미를 갖게 되고 철학적 의문을 갖고 자아를 탐구하고 사회나 정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본다. 반면에 대부분의 청년은 경험적, 실증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쉬우며, 극단적인 관점에 빠질 정도로 사고의 유연성을 잃기 쉽다. 청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첫째로, 청년 때의 감정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심하게 동요되며 아주 상반된 대립적인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수가 많고 또한 정서가 솔직히 표현되지 않고 억압되거나 왜곡되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로, 때로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으로

¹⁶ M.E. Soderholm, *Understanding the Pupil*, 양은순 역, *학생을 이해하려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89-92.

불안, 고독, 열등감, 공허감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청년은 인간, 자연, 문화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품고 있는 이상은 모순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¹⁷ 이와 같이 청년기는 지적으로 많은 발달을 가져 오게 되고 정서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많은 혼란을 겪는 시기가 된다.

사회적 특성

정신적 독립에 수반하여 어른에 의존하던 것이 친구나 사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우가 다양해지고 친구가 생기게 된다. 이성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며 조금 더 발전을 하여 연애까지 이르게 된다. 집단도 활동의 집단에서 사상이나 흥미의 결합집단으로 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며, 직업에 대한 관심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되는 시기이다.¹⁸ 청년의 시기는 가정이라는 보호 속에 있던 개인이 사회로 나아오는 과정을 겪는 시기이다. 이 사회화의 과정은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기존의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 관습과 규율에 대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화와 문화화의 과정에서 청년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은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속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각각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는 다른 방식의 역할 기대를 갖고 있고, 이것이 서로 상충함으로써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청년들은 사회 개조와 사회 변혁의 사명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사회에 사회화되어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을 요구 받고 있는

¹⁷ 이춘재 외, *청년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92-93.

¹⁸ 박광수,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14.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 시켜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¹⁹

청년기에 들어오면서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힘과 판단 그리고 책임 하에 행동하려고 하는 독립적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년의 사회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실천적 이해

청년 소그룹 모임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다. 이 발전과 부흥의 동력이 어느 한 가지라고 규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와 지역 사회 내의 소그룹 조직이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²⁰ 사실 신앙공동체는 소그룹에서 그 능력의 근원을 발견해왔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소그룹의 역동성을 품고 신앙의 불씨를 일으켰 듯이 생명의 원류는 소그룹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강동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그룹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제한된 각종 교육, 영성 훈련, 교제 등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꾀하고 있다.²¹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은 지속적이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수많은 소그룹들은 저마다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소그룹의 목표나 기도는

¹⁹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151-152.

²⁰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49.

²¹ 강동구,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꿈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미국 드루대학교, 2016), 4.

그 특징과 개성에 어울려야 한다. 만약 소그룹이 세운 목표가 그 소그룹의 특징과 어울리지 않는 획일적인 목표일 때 그것은 도리어 소그룹의 발전을 방해할 뿐이다. 소그룹의 목적과 형태, 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소그룹은 없지만 각각의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표8> 소그룹의 필수적인 요소

- 위로 향함: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해 나아감
- 안으로 향함: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감
- 밖으로 향함: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감(소그룹 변식에 그 목적이 있음)
- 앞으로 향함: 새로운 리더를 세움.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소그룹들이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 가면서 소그룹을 효과적이고 유동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해준다.²² 소그룹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크기를 소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소그룹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각 구성원 간의 친밀도는 감소할 것이며, 소그룹이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화라인 공식($N \times N - N = \text{대화라인}$)에 따르면 2명이 대화할 때 2개의 대화라인이 생긴다. 4명일 때는 12개로 늘어나며, 10명일 때에는 대화라인이 90개, 15명일 때에는 210개의 대화라인이 생기는 식으로 사람 수가 증가할수록 대화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15명 이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소그룹이라 부를 수 없는

²² Comiskey, *Group Guidance*, 13.

규모가 된다.²³

12명 정도가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최고 한계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새로 들어온 이들에게도 부담 없는 상황을 제공한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12명으로 제한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Dale Galloway는 소그룹의 역동성을 고려해 볼 때 돌봄과 대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수는 8에서 12사이의 수라고 결론을 내렸다.²⁴ Joel Comiskey는 효과적인 소그룹 운영을 위해서 한 소그룹의 인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⁵

또한 소그룹은 그룹의 인원의 수적 개념과도 연결되지만, 그 그룹 속에 속하는 멤버 전원이 각자의 느낌, 경험, 행동양식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 성장, 발전해 가는 과정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²⁶ 본 연구자는 연구자를 제외하고 7명의 청년들과 1년 동안 ‘통성경 길라잡이’를 가지고 성경전체의 스토리라인을 공부해 보았고, 연구자를 제외한 10명의 청년들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4년째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해오고 있다.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정도의 인원이 아주 적절하다는 것이다. 10명이 넘어가면 삶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부득이하게 5명 이하로 모였을 때는 친밀도는 높았지만 인원이 적음으로 풍성한 나눔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왠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²³ Ibid, 16.

²⁴ Dale Galloway, *The Small Group Book*(Grand Rapids, MI: Fleming H.Revell, 1995), 145. Comiskey, *사람들이 물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17에서 재인용.

²⁵ Comiskey, *Group Guidance*, 17.

²⁶ 정웅섭, *현대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26. 엄선문,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방법,” 39에서 재인용.

신약성경의 교회가 소그룹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1년 6개월 이상을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원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삼는 성경의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였다. 물론 예수께서도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셨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역시 수 천 명의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대그룹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소그룹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교회가 박해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이었다. 소그룹으로 모였던 교회가 신앙의 생동감과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교회였다.²⁷ 본 연구자도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 청년대학부 목회의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청년 대그룹 모임

청년대학부 전체 예배나 각종 집회를 대그룹이라 할 수 있다. 대그룹 사역은 일대 다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사역이다. 예배, 설교, 찬양, 기도가 중심적인 요소이며 목회자 중심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대중사역의 성경적 근거로는 고린도전서 14장 26-31절 말씀을 들 수 있다.²⁸

대중사역 특히, 드러지는 예배를 통하여 청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²⁷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신학파살천* 12(2007), 10.

²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백성임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그들이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된다. 청년들은 예배에 참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예배 참여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연합과 동일체 의식이 확립되면, 이것은 개인 변화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공동체 반응을 통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행해야 하는가의 모범을 보게 됨에 따라,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 패턴도 촉진될 수 있다.²⁹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드는 법, 그의 중심성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몸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전달되는 곳은 예배이다. 몸의 지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배우며 예배하는 의미를 서로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⁰

설교는 대그룹 사역에서 청년들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설교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그리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다. 설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며,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설교 시간은 청년들에게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³¹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이루어진다.

²⁹ Lawrence O. Richards, *Education Theology and Practice*, 문창수 역, *교육신학과 실제* (서울: 정경사, 1981), 304.

³⁰ Richards, *Education theology and Practice*, 344-346.

³¹ 엄선문,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방법,”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37.

약 20분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대표기도 후에 약 40~50분간 말씀이 선포된다. 그리고 생일축하나 새가족 환영, 광고시간을 가지고 오후 3시부터 소그룹으로 모인다. 소그룹 모임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이다. 마치면 4시 30분이 된다. 모두가 다 소중한 시간이지만 특히 설교 시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대그룹 모임에 있어서 말씀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설교시간에 큐티 교재 ‘마음과 생각’ 본문에 따라 성경을 역사순서대로 차례로 설교하고 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한 주간 큐티 본문 가운데서 한 장을 택하여 설교한다. 때로는 일주일 치 분량을 다 설교하기도 한다. 그렇게 역사순서대로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청년들에게 전달한다. 청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또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찬양과 기도이다. 그리스도인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찬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찬양은 현대의 수사학이다. 찬양은 예배에 영감을 불어넣고 예배를 이끌어 가며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³² 기도 모임은 청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계속하여 배출하고 중보기도로써 서로를 위한 사역을 하게하고 전공동체가 기도공동체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 충만하게 세워나간다.³³

대그룹 사역의 장점은 첫째로, 정보와 개념을 전달하는데 좋다는 것이다.

³² 윤성구, “지역교회 청년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제자훈련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185.

³³ 청년대학부 성장 세미나, 「청년대학부를 알면 목회가 보인다」 1998년 사랑의 교회 젊은이선교 정보연구센터 주최 세미나 자료.

소그룹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때문에 한 번 모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개념을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둘째로, 각성과 도전, 흡입력과 응집력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서로를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서로를 알게 되는 동일시의 과정에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또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심이 소그룹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그룹 사역은 청년대학부서의 활동이나 소그룹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한 청년들이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정규 집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서 무엇이 기대되는가를 가르치는 기능면에서도 필요하다.³⁴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청년대학부는 교구 구역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는 성인 연령은 못되고, 그러면서도 아동이나 중고등 학생과는 달라서 교사들을 통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적인 지도도 받지 못하는 교회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교육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은 아동교육, 또는 중고등부 교육까지 만을 의미하고 청년대학부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구조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일 교육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서가 청년대학부인 것이다. 그러나 청년대학부는 아동 및 중고등부와 성인부 사이의 교량역할을 해주는 과도기적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서이며 교육적인 관심도 더 많아야 한다.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이 교량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³⁴ Richards, *Education Theology and Practice*, 297-331.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로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즉 One Story인 것을 알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중심으로 읽고 역사 순으로 읽어 내려감으로 청년들에게 성경말씀을 제대로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 대한 교육에 교회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본 연구자는 통(通)성경 프로그램이 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목회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 이 청년들을 잘 키워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 교회가 경제논리에 밀려 재정 탓만 하고 청년들을 위한 믿음의 투자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청년대학부 지도 교역자는 교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는 목사이거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인 경우가 많다. 청년대학부만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도 새순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와 행정, 청년대학부를 동시에 맡고 있다. 청년대학부 전임사역자가 아닌 경우, 시간이나 여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청년사역 전문가를 키우거나 확보하지 않고는 청년대학부는 표류하거나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르네상스 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다.³⁵

³⁵ 엄선문,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방법”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젊은이들이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된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낫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다. 노령화 되어가는 교회에 새벽이슬 같은 영롱한 청년들이 주께 헌신할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이들이 21세기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다.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새순교회에서도 청년대학부의 약 50% 이상이 유치부나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이들은 청년부에서 양육 받으면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 이들이 가르치는 유치, 초등,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절실하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내용을 절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는가? 그저 그들에게 정확 하지도 않은 수박 겉핥기 식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제 IV 장

통성경과 청년사역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청년 소그룹 모임

조병호는 그의 책을 이렇게 설명한다. “통성경 길라잡이는 통성경화를 목표로 한 책이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1,500공간과 5,000인간을 담은 하나님의 통(通)드라마이다. 이 하나님의 통 드라마는 5단계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다.”¹

- 1단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 통(通)트랙스 7분위기를 정리한다.
- 2단계: 『성경통독』 20마당으로 하나님의 마음 읽기를 한다.
- 3단계: 『통성경 길라잡이』 40과로 성경 내용 정리를 한다.
- 4단계: 『일년일독 통독성경』 365일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한다.
- 5단계: 『성경과 5대제국 스테디북』 27과로 성경과 세계사를 함께 공부한다.

여기서 ‘통성경 길라잡이’는 3단계 과정이다. 한 과를 약 40분에 걸쳐 공부하며 40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다.² 40과의 성경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조병호는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였다.

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4-5.

² *Ibid.*, 5.

<표9> 통 드라마 2~4단계³

2단계(성경통독)	3단계(통성경길라잡이)	4단계(일년일독통독 성경)
1마당: 하나님의 마음 원역사와 족장시대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창세기 1~11장 창세기 12~36장 창세기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모세와 출애굽 시대①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출애굽기 1~18장 출애굽기 19~40장 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모세와 출애굽 시대②	7과: 만나세대의 성장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민수기 신명기
4마당: 신앙계승 가나안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9과: 약속의 땅 입성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5마당: 천년모범 왕정시대① 통일왕국 시대1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8~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 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왕정시대② 통일왕국 시대2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정시대③ 분열왕국 시대	16과 남북 분열 왕조 17과 북 이스라엘의 멸망	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은, 왕하 15~20장, 사, 미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왕정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18과 남유다의 쇠락 19과 잠간의 징계	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왕하 24~25장, 렘, 애, 욥 대상, 대하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변동의 밑그림	에스겔 다니엘

³ Ibid., 20-25.

바벨론 포로시대		
10마당: 재건공동체 페르시아 시대	22과 성전재건 23과 성벽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에스라, 학, 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11마당: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25과 헬라제국과 중간사 26과 로마제국과 중간사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의 사역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의 사역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예수님의 사역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사역	30과 십자가 승리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31과 열리는 제자시대	사도행전 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①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행 13장~15:35 행 15:36~18:22, 살전후, 갈 행 18:23~19장, 고전후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②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행 20~26장, 롬 행 27~28장, 엡, 빌 골, 몬 딤전, 딛, 딤후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공동서신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 약, 벧전후, 유
20마당: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요한일, 이, 삼서 요한계시록

본 연구자는 약 1년간(2015년 2월 ~ 2016년 1월) 조병호의 통성경길라잡이를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 형식으로 소그룹을 인도해 보았다. 매주 숙제를 내주고 개인 경건생활을 점검하였다. 인도와 강의는 본 연구자가 하였는데, 통성경길라잡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통성경학교 강사과정과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강의에서 배운 것들도 함께 가르쳤다. 본 연구자와 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6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교회행사로 빠지는 시간 말고는 거의 매주 목요일 저녁 7:30에서 9:00까지 모였다. 매주 40과에 해당하는 성경본문을 먼저 읽어오도록 하였다. 청년들 각자가 직장생활과 학교생활로 바쁜 삶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틈틈이 읽어 내려갔다. 모임을 인도하는 본 연구자도 사역으로 바쁘더라도 성경읽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주간의 성경본문이 짧을 때에는 비교적 쉬웠으나, 책 한권을 다 읽거나 몇 권의 책을 한 주에 다 읽어야 할 때에는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냈다. 성경은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통독성경을 가지고 읽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조병호가 낭독한 성경듣기 프로그램⁴으로 성경을 들으면서 읽었다. 1년 과정동안 함께 수고한 청년들에게 감사한다.

통성경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소그룹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경의 40개 줄기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20마당을 노래로 표현해 보았다. 매주 공부하기 전에 이 노래를 불러보았다. 조병호가 작사하고 통오케스라에서 곡을 붙였다. 악보를 소개하면

⁴ 구글의 android 및 애플의 ios 운영체제의 스마트 폰 Application으로 조병호박사가 신자들이 성경을 1년 10독을 위해 돕기 위해 직접 낭독한 성경을 1.7배속으로 들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Application이다.

다음과 같다.⁵ 이 곡을 함께 부름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었다.



The Song of TongBible

통통성경 노래

Lyrics Byoungno Zoh (조병호) / Composition Tong Orchestra (통오케스트라)

*성중독독 200장의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God ex-presses his heart Dream for all na - tions Manna gene - ra - tion Suc - ce - ssion of - faith
 하나님의 마음 열 빙을 향한 꿈 만나 세 대 신 앙 계 승
칭제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에베소서 사사기 룻기

Model for a thousand years Mind and - wis - dom Line of love line of mi - ssion
 천 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삼상 삼하 왕상 1~2장 왕상 3~11장 잠. 아. 진. 음. 시 왕상 2~22장 왕하 1~22장 임. 후. 온. 사. 미

Hope - stan - ding be - fore des - pair Punishment a ste - pping - stone of hope
 절망 앞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왕하 3~22장 스. 율. 나. 율. 민. 예. 율. 대. 신. 디. 하 예스겔 대. 열

A co - muni - ty of re - cons - truction A blank page - full of his - to - ry
 재건 공동체 어필게 와이팅게사이
스. 학. 속. 예. 느. 율 신구약 중간사

joy - ful - bir - th Love for - one - soul Pa - ssion to - wards for give - ness
 기쁜 위대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중서 불쌍한 열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In - vi - sion to glo - ry and pea - ce The dis - ci - ple e - m
 영광과 평화로 의 조대 열리는 제자시대
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Extension of the gos pel with no - boun - da - ries E - ter - nal - crown and - han - ded down re - quest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행 13~19장 살전 살후 갈 고전 고후 행 20~28장 롬. 열. 빌. 골. 몬. 딘. 딘. 딘. 딘. 후

Le - tters for the - righ - teous fight and Song of vic - to - ry - pre - re - ceived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히. 막. 열전. 행. 후. 유 유일. 유이. 유상. 계

그리고 조병호는 성경을 7개의 트랙(Track)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⁵ 조병호, 통성경길라잡이, 1.

‘모세오경’ 두 번째는 ‘왕정 500년’ 세 번째는 ‘페르시아 7권’ 네 번째는 ‘중간사 400년’ 다섯 번째는 ‘4 복음서’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30년’ 마지막 일곱 번째 트랙은 ‘공동서신 9권’이다. 또한 매 트랙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표10> 통(通)성경 7개 트랙 분위기

트랙(Track)	분위기
1Track: 모세오경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2Track: 왕정 500년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의 분위기,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500년 시기를 보냈다.
3Track: 페르시아 7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한 기대’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4Track: 중간사 400년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구약 중간사 시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년의 시간이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헬라제국 가운데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용하셨다.

⁶ Ibid., 26, 110, 188, 220, 250, 296, 358.

5Track: 4복음서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set-up’ 분위기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복음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6Track: 사도행전 30년	‘대제사장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되는 분위기이다.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4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다.
7Track: 공동서신 9권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해 나가는 분위기이다.

조병호는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었다. 소그룹 공부하는 중에 이것⁷을 청년들과 자주 반복할 수 있었다. 때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복습하기도 하였다.



⁷ Ibid., 부록.

또한 20개의 각 마당마다 “Tong Map”이 있어서 각 마당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었다. 한 예로 1마당의 Tong Map은 다음과 같다.⁸



그리고 각 마당마다 “Tong Concept”가 있어서 개념정리를 하고 공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 예로 제 1마당의 Tong Concept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성경의 첫 부분 뿐 아니라 앞으로 성경 전체를 통독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통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 봅시다.⁹

또한 “Tong 한눈에 보기”가 있어서 각 마당의 공부를 시작할 때 전체를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제 1마당인 ‘하나님의 마음’의 ‘숲

⁸ Ibid., 27.

⁹ Ibid.

‘둘러보기’ 는 다음과 같다.

창세기는 모세오경(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세상민족들의 기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나머지 부문에 대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의 기록입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출발을 이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땀과 눈물의 순종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¹⁰

제 1마당인 ‘하나님의 마음’ 의 ‘터와 나이트’ 는 다음과 같다.

에텐동산의 위치가 아르메니아 고지대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수원지 근처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탑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고바벨론 지역 시내 평야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또한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사건의 시간과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B.C.2000년경 사람이며, 이어지는 창세기 37~50장 부분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략 200여 년이 지난 시점의 것입니다. 족장들은 청동기 시대 중반기경인 약 B.C.2000년과 B.C.1700년 사이에 가나안 산악 지방과 그 인근 일대를 기반으로 살았습니다.¹¹

이와 같이 ‘터와 나이트’ 는 성경의 역사, 지리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성경본문을 다루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제 1마당인

‘하나님의 마음’ 의 ‘바람과 토양’ 은 다음과 같다.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던 도시로, 당시 그곳의 문명은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명의 혜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거쳐 황무지와 다름없는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은 잘 발달된 문명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법전 중 하나인 고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족장시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족장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¹⁰ Ibid., 28.

¹¹ Ibid.

상속법과 결혼계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후 자기들을 돌봐주고, 매장해주며,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양자로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창 15:2). 하지만 만약 부부가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양자가 된 아들은 상속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다메섹 엘리에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결혼계약에 의하면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몸종을 마련해주어야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창 16:1~4), 또 라헬은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창 30:1~8).¹²

이처럼 바람과 토양은 성경본문이 미리 밝히고 있지 않은 성경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된다. 때로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통성경길라잡이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각 마당마다 ‘Tong 숲보기’가 있어서 각 마당의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제 1마당인 ‘하나님의 마음’의 ‘Tong 숲보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온갖 생명체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남은 분량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부터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의 증손자 요셉의 삶까지 다루고 있으며,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이 닦아 놓은 기반 위에서 애굽에 정착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¹³

이렇게 전체 숲을 공부하고 난 뒤에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을

¹² Ibid.

¹³ Ibid., 29.

이해하고 성경이야기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다. 성경의 숲과 나무(전체와 부분)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통성경길라잡이는 40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과마다 ‘Tong 흐름’이 있어서 그 주간에 읽을 성경의 분량과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과의 ‘Tong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열왕기하 15~20장, 이사야, 미가): 열왕기하 15장은 서서히 국운을 다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으로 남게 될 호세아가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남유다에서 이사야와 미가야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5~20장과 함께 이사야와 미가를 읽습니다.¹⁴

이렇게 왜 해당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기에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다.

또한 매 과에 Tong Point가 있어서 각 과마다 중요한 사항을 집고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자도 Tong Point를 청년들과 함께 읽음으로 해당 본문의 포인트를 짚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7과의 Tong Point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세계경영: 앞서 북이스라엘 왕조에 이어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7과부터는 웃시야가 죽은 이후부터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여기서의 역사서인 열왕기하서와 예언서인 이사야, 미가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국제 정세’, ‘세계 경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8세기경 국제정세가 어떠한지를 꼭 살펴 두어야 함을 기억합니다.¹⁵

¹⁴ Ibid., 162.

¹⁵ Ibid., 163.

<표11> B.C. 8세기의 국제정세¹⁶

연도(B.C)	남왕국(재위기간)	왕 조	활동 선지자	중요 사건
931	1 르호보암(17년)		스마야, 잇도	
913	2 아비얌(3년)		잇도	
910	3 아사(41년)		아사랴, 하나니	
872	4 여호사밧(25년)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아람과 전쟁
848	5 여호람(요람)(8년)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
841	6 아하시야(1년)			
841	7 아달라(6년)	아합 의 딸 여호람 의 아내 아하 시야 의 어머 니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835	8 요아스(40년)	여호람 의 아들		
796	9 아마샤(29년)			
790	10 웃시야(52년)		이사야	
751	11 요담(16년)		이사야, 미가	
742	12 아하스(16년)		이사야, 미가	친앗수르, 반북이스라엘, 반아람 정책
725	13 히스기야(29년)		이사야, 미가	반앗수르, 친애굽정책, 바벨론과 동맹
697	14 므낫세(55년)			
642	15 아몬(2년)			

¹⁶ Ibid.

640	16 요시야(31년)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609	17 여호아하스(3개월)		예레미야	
609	18 여호야김(11년)		예레미야, 하박국	
598	19 여호야긴(3개월)		예레미야, 다니엘	
598	20 시드기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586	남왕국 멸망(약 345년)		오바댜	

이처럼 Tong Point를 통해 핵심을 짚고 넘어갈 수 있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역사 순으로 재배열된 성경 읽기는 소그룹 내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성경은 개념과 명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별개의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기존의 방법이었던 편집순이나, 필요 선택 내지는 기호에 맞추어 읽을 것이 아니라, 부분을 전체로 보는 하나의 역사로 보는 통(通)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¹⁷ 강동구는 ‘통성경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소그룹 내에 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 성경읽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방법이 한국교회의 소그룹을 살리고 교회에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¹⁸ 본 연구자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함으로 교회의

¹⁷ 강동구,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꿈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77.

¹⁸ Ibid., 78.

참된 말씀의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성경통독과 함께 통성경길라잡이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성경통독과정이라고 여겨진다.

본연구자도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서 청년들과 성경을 통독하며 성경의 줄기를 바탕으로 한 성경이야기를 공부함으로써 말씀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성경전체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1년 동안 청년들과 통성경길라잡이로 성경줄기를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시험을 보게 하였다. 테스트를 통하여 청년들은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시험지는 다음과 같았다.

<표12>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지 1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 I

1. STEP 1을 순서대로 쓰세요.
2. STEP 2를 순서대로 쓰세요.
3.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의 이름은?
4. 원역사의 성경본문 범위를 쓰세요.
5. 창세기의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세요.
6.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의 이름을 쓰세요.
7.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의 성경은?
8. 만나세대의 성장을 다룬 성경은?
9. 사사시대는 약 몇 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가?
10. 룯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룯을 맺어준 율법은 무엇인가?

<표13>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지 2

새순교회 청년대학부 통성경 제자훈련 시험 II

1. 빈칸을 채우시오.

STEP1	STEP2	STEP3	STEP4	

2. 제사장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을 쓰시오.
3.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특징을 쓰시오.

이러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시행함으로 청년들은 본인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정답을 잘 기록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V 장에서 나누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자와 청년들은 성경전체를 일독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고, 성경줄기 40개를 공부함으로 성경의 맥을 잡고 전체

흐름을 역사순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 되었다.

통독큐티(마음과 생각)를 통한 청년 소그룹모임

본 연구자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년들과 함께 조병호가 편찬한 큐티교재 ‘마음과 생각’으로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하며 청년 리더들과 매주 한 번씩 모여 큐티 나눔을 하고 있다.

‘마음과 생각’의 특징은 성경 역사순서대로 매일의 성경 본문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큐티책들이 편집자 개인과 출판사 성향에 따라 큐티 본문을 택함으로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음과 생각’은 3년 주기로 성경 본문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하고 성경전체를 골고루 다 묵상하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마음과 생각’은 매 주마다 일주일 분량의 성경본문을 앞쪽에 다 실어놓고 있다.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성경을 소지하지 못했어도 ‘마음과 생각’ 한 권만 있으면 일주일 치 성경을 쪽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어울리는 찬송가를 실어놓고 있어서 찬양으로 개인 큐티나 함께하는 소그룹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음과 생각의 매일 큐티 본문은 성경 한 장이다. 기존의 모든 큐티 교재들이 한 장을 다 다루지 못하고 성경 몇 구절로 구성된 한 단락을 본문으로 삼고 있다. 물론 한 장으로 끊는 것도 인위적이긴 하지만, 단락보다는 많은 유익이 있다.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한 단락보다는 많은 부분을 묵상할 수 있고, 전체적인 숲을 보는 데에도 단락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 책 몇 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을 활용한 큐티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개인 큐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단 기도로 큐티를 시작한다.

성령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한다. 그리고 난 뒤에 해당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정독 한다. 적어도 3번은 읽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이것은 기존의 큐티 방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개인적인 큐티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 은 각 장마다 ‘숲 보기’ 가 있어서 각 장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나무보기’ 가 있어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24일의 숲보기와 나무보기는 다음과 같다. 해당 날짜의 성경본문은 에스라 5장이다.

숲보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에 힘입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공사에 참여하고, 성전재건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납니다. 강 서편 총독인 닷드내와 그 신하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 성전 재건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무보기(신앙고백과 역사고백, 12-17절): 성전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답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중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귀한 신앙고백입니다. 또한 과거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된 역사적 사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어려움을 헤쳐가고 있는 모습에서 성숙한 신앙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합니다.¹⁹

함께하는 모임은 대부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 모여 청년들과 큐티나눔을 하였다. 전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여인원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였다. 이 모임은 5년째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자가 하고 있는 청년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임원과 조장들은 이 모임을 소중히 생각한다.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청년 리더들은 자신이 큐티했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치유 받고 회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모임이다. 본 연구자도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 받기도 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찬양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한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일주일 동안 큐티한 본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눈다. 그리고 나면 본 연구자가 일주일치 분량의 성경내용을 정리하고 해석해 준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나누고 감사와 결단의 기도로 모임을 마친다. 청년대학부 지체들 중에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고마워서 리더를 하고 싶다는 지체들도 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격려하기에, 위로 받고 힘을 얻는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특히 청년임원들과 함께 소그룹을 인도하는 조장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매주 소그룹에서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성경통독에 실린 질문들이, 그 주간의 성경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 단힌 질문(관찰질문) 세 가지와 서로의 삶을

¹⁹ 조병호, *마음과 생각* (서울: 통독원, 2018, 1-2월호), 88.

나누고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질문(적용질문)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소그룹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었다.²⁰ 그 중에 한 주의 본문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마음과 생각 소그룹성경통독 모임 샘플²¹

▶차례: 2017년 9월 3주(역대하 1-5장)
▶제목: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한 주간 동안 통독한 말씀들 중 우리의 삶과 관련 있었던 부분을 나누어봅시다.
▶숏보기: 솔로몬의 왕위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견고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놋 제단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필요한 재물을 공급받고, 후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건축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완성하고,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성전 공간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들이자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솔로몬 왕국에 임한 임마누엘의 복이 보입니다.

²⁰ Comiskey, *Group Guidance*, 87-104.

²¹ 조병호, *마음과 생각* (서울: 통독원, 2017, 9-10월호), 66-67.

<p>▶ 나무생각(본문 관찰질문)</p> <p>1.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성전건축을 착수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해 두로 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하 2:3-10) 답: 성전을 건축할 능력 있는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함.</p> <p>2.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살펴봅시다. (대하 5:2-6) 답: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고, 레위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모두 옮겼다.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쳤다.</p> <p>3.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대하 5:14)</p>
<p>▶ 나무심기(열린 질문) 솔로몬은 오랫동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생각하며 꿈꾼 성전 건축을 드디어 현실로 이룹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p>
<p>▶ 물주기(합심기도)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p>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생각이 큐티의 근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큐티 교재로 성도들의 목상을 돕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씀목상이라고 한다. 큐티를 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며 성도들을 말씀목상으로 이끌었던 여러 큐티 교재들은 말씀 목상의 과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큐티 교재들은 말씀목상을 인도해 가기에 적절한 면도 있지만,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김광중은 말한다.²²

기존의 큐티 교재들은 분량과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분량 면에서 절 단위로 끊어진 짧은 본문을 하루에 읽도록 한다. 그리고 방법 면에서 본문의 내용 중 자신에게 와 닿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량과 방법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첫째, 성경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게 한다. 둘째, 묵상을 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큐티 교재의 설명만을 반복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²³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 큐티 교재의 본문에는 성경전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큐티 교재의 편집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편중된 편집을 했기 때문이다. 묵상이 쉽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본문으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편식하게 하였다. 같은 큐티 교재로 몇 년을 묵상해도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부분을 본문으로 자주 사용하였다.²⁴

본 연구자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교재를 만나기 전에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매일성경’이라는 큐티교재를 사용하였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약 7년간 이 큐티교재를 사용하였다. 매일성경은 ‘해당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의 두 부분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부분을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적용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²²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2.

²³ Ibid., 54.

²⁴ Ibid., 5.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몇 년을 이 큐티 교재로 말씀을 묵상해도 성경전체를 묵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전체를 큐티 본문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편집자의 의도내지 편의대로 성경 본문을 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주 다루는 본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본문이 있었다. 몇 년을 묵상해도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도 있었다. 이 큐티책은 한국에서 큐티책으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1972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를 가지고 있는 책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 안에 짧은 구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전체 문맥과 메시지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순서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숲을 보기가 어렵다. 그 일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5> 매일성경(성서유니온)의 큐티 성경본문²⁵

날 짜	성 경 본 문
2012년 1-2월	시편(120-138편) 누가복음(1-12장)
2012년 3-4월	누가복음(12-24장), 아가, 야고보서
2012년 5-6월	역대상, 베드로전서, 호세아, 시편(139-145편)
2012년 7-8월	고린도전서, 이사야(1-19장)
2012년 9-10월	이사야(20-66장), 빌립보서, 에스겔
2012년 11-12월	신명기(1-9장), 요한계시록, 시편(146-150편)

²⁵ 매일성경, 성서유니온, 2012년 1월~ 2014년 12월호.

2013년 1-2월	요한복음(1-9장), 시편(1-18편), 미가
2013년 3-4월	요한복음(10-21장), 고린도후서, 요엘, 시편(19-22편)
2013년 5-6월	갈라디아서, 이사야(31-66장)
2013년 7-8월	에베소서, 역대하
2013년 9-10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유다서, 신명기(10-34장)
2013년 11-12월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여호수아, 시편(23-28편)
2014년 1-2월	창세기 1-11장, 마태복음 1-14장
2014년 3-4월	마태복음 14-28장, 시편 29-36편
2014년 5-6월	로마서, 다니엘
2014년 7-8월	데살로니가전서, 욥기
2014년 9-10월	요한일서, 창세기 11-37장
2014년 11-12월	창세기 38-50장, 시편 37-45편, 히브리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본문을 역사순으로 보지 않고, 신구약을 일정한 규칙 없이 오고간다. 심지어 같은 책이라도 몇 달 후에 이어지기도 한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3년간의 본문을 살펴본 결과 역사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성서유니온 매일성경만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독자가 성경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순으로 읽고 묵상해야 성경이야기의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조병호가 편찬한 ‘마음과 생각’은 3년 주기로 성경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고 있다. 마음과 생각으로 3년간 꾸준히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음과 생각의 3년치 큐티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마음과 생각 월별 큐티 순서²⁶

년	월	성경 목차
1년	1월	창세기 1~26장, 시편 1~5편
	2월	창세기 27~50장, 시편 6~9편
	3월	출애굽기 1~20장, 시편 10~13편
	4월	출애굽기 28~30장, 레위기 1~13장, 시편 14~17편
	5월	레위기 14~27장, 민수기 5~12장, 시편 18~21편
	6월	민수기 13~36장, 신명기 1~2장, 시편 22~25편
	7월	신명기 3~29장, 시편 26~29편
	8월	신명기 30장, 여호수아 1~21장, 시편 30~37편
	9월	여호수아 22장 ~ 룻기 2장, 시편 38~45편
	10월	룻기 3~4장, 사무엘상 1~24장, 시편 46~55편
	11월	사무엘상 25장 ~ 사무엘하 19장, 시편 56~63편
	12월	사무엘하 20장 ~ 열왕기상 22장, 시편 64~69편
2년	1월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1~5장, 호세아 1~3장, 시편 70~78편
	2월	호세아 4~14장, 요나 1~4장, 열왕기하 15~17장, 이사야 1~8장, 시편 79~86편
	3월	이사야 9~35장, 시편 87~92편
	4월	열왕기하 18~20장, 이사야 36~58장, 시편 93~101편
	5월	이사야 59~66장, 미가 1~7장,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1~3장, 하박국 1~3장, 나훔 1장, 시편 102~107편
	6월	나훔 3장, 요엘 1~3장,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1~21장, 시편 108~118편
	7월	예레미야 22~46장, 열왕기하 25장, 시편 119~131편

²⁶ 통독큐티 <http://www.tongbooks.com>.

	8월	예레미야 47~52장, 예레미야애가 1~5장, 오바다 1장, 역대상 1~19장, 시편 132~140편
	9월	역대상 20~29장, 역대하 1~16장, 시편 141~148편
	10월	역대하 17~36장, 에스겔 1~6장, 시편 149~150편, 잠언 1~4장
	11월	에스겔 7~32장, 잠언 5~8장
	12월	에스겔 33~48장, 다니엘 1~11, 잠언 9~12장
3년	1월	다니엘 12장, 에스라 1~6장, 학개 1~2장, 스가랴 1~14장, 에스더 1~3장, 잠언 13~17장
	2월	에스더 4~10장, 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1~13장, 말라기 1장, 잠언 18~21장
	3월	말라기 2~4장, 마태복음 1~24장, 잠언 22~25장
	4월	마태복음 25~28장, 마가복음 1~16장, 누가복음 1~5장, 잠언 26~30장
	5월	누가복음 6~24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31장, 아가 1~6장
	6월	요한복음 9~21, 사도행전 1~13장, 아가 7~8장, 전도서 1~3장
	7월	사도행전 14~20장,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1~3장, 갈라디아서 1~6장, 고린도전서 1~5장, 전도서 4~8장
	8월	고린도전서 6~16장, 고린도후서 1~13장, 로마서 1~3장, 전도서 9~12장
	9월	로마서 4~16장, 사도행전 21~29장, 욥기 1~12장
	10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욥기 13~21장
	11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욥기 22~33장
	12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욥기 34~42장

매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시가서는 주일 큐티 본문이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을 이용한 큐티는 3년이면 성경전체를 역사순으로 일독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마음과 생각’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구성한

큐티 교재이다.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제시하고,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새로운 목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숲보기와 나무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글로 적어보도록 한다. 분량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어 교재를 따라 계속 큐티를 했을 때 3년이면 성경전체를 일독하며 목상할 수 있다.

교재의 효용성을 살피려면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저자인 조병호가 제시한 ‘마음과 생각’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에 1장의 성경말씀을 통독한다. 본문의 숲 즉, 전체 흐름을 먼저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더 깊은 목상을 위해 한두 번 정도 더 읽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상상해 본다.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당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그 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 둘째, 본문말씀을 읽은 후, 그 본문이 넓게는 성경전체에서, 좁게는 성경 각 권이라는 숲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본다. 성경의 숲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은 말씀목상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나 적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셋째, 숲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나무 한 그루를 택해 자세히 살펴본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경 속의 사건 혹은 인물의 이야기들은 현재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도 많이 닮아 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영혼의 귀를 기울인다. 넷째,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책이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봄으로써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본다.

다섯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글로 기록해본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할 점, 감사해야 할 내용들, 마음의 다짐과 기도제목 등을 솔직한 마음으로 적어 본다. 여섯째,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²⁷ 이러한 방법으로 큐티를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김광중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큐티 교재들이 구와 절 중심으로 성경의 일부 본문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하며, 전체를 모르고 읽는 한 부분은 오히려 목상을 방해할 수 있다.”²⁸ 본 연구자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연구자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에도 문맥을 중요하게 여겼다. 큐티도 마찬가지이다. 큐티 본문의 앞 단락 또는 그 앞 단락까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알고 본문을 대하는 것과 앞뒤 문맥을 모르고 본문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큐티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큐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 교재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성경 몇 구절로 구성된 좁은 단락을 본문으로 보고 나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큐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 교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교재는 하나님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 성경을

²⁷ 조병호, *마음과 생각* (서울: 통독원), 6-7.

²⁸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6.

역사순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중심으로 읽는 것은 이런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큐티 교재 중 대표 격인 생명의 삶, 매일성경, 큐티진(QTZine)을 보면 큐티의 방법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큐티의 분량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묵상할 본문의 하루 분량으로 몇 개의 구절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명의 삶(두란노)”에서는 묵상할 본문을 몇 개의 절 단위로 나눠 끊어진 짧은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은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큐티를 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취사선택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매일성경(성서유니온)”도 절 단위로 끊어서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고 적용 점을 찾도록 하고 있으나, 성경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시각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셋째, “큐티진(Young2080)”은 본문을 세 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 인간, 궁금한 부분에 표시하고, 표시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자신의 상황, 기대하는 변화를 적고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적게 한다. 이 때 제시하고 있는 본문도 짧은 몇 개의 구절이다.

위의 큐티 교재들은 한국 교회의 큐티와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묵상이나 해설과 같은 설명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의 적용 부분은 대체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부분만 묵상하도록 짧은 본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큐티 할 분량에 관한 좀 더 학문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훈은 “큐티의 영성: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4)”에서 매일 읽을 본문의 분량은 적당하게 정하는 것이 좋는데, 큐티 책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본문을 따라가면 되고, 성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묵상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양을 정하여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³⁰ 이와 같은 주장은 묵상할 말씀의 분량을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병중은 “事例分析을 통한 韓國教會 QT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에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는 분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QT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고 묵상할지를 정해야 한다. 본인이 나름대로 정해서 QT를 한다면 이것은 본인 재량에 달려 있다. 때로는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장이 될 수도 있다.”³¹

즉, 말씀의 분량은 묵상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인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성경전체에 나타난 또는 성경 각 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³²

²⁹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6-7.

³⁰ 이기훈, “큐티의 영성-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3), 93-94, 174.

³¹ 김병중, “事例分析을 통한 韓國教會 QT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2011), 73, 76.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8에서 재인용.

³²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

한편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큐티 관련 서적에서는 묵상할 말씀의 분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뚜렷한 지침조차 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김양재, 홍성사)에서 김양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간증하고 자신의 큐티 방법을 실례로 제시하면서, 묵상할 말씀의 분량보다는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집중한다.³³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하용조, 두란노)에서 하용조는 자신의 큐티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으라고 권면한다.³⁴ 위에서 제시한 큐티 관련 논문들과 서적들은 모두 성경을 묵상 본문이라고 제시하면서도 그 분량은 큐티를 하는 당사자나 큐티 교재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성경의 화자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편의에 주목한 것이고, 성경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지엽적인 의미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도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통독성경’으로 성경을 읽도록 강조해왔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창원새순교회도 성경통독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일 년에 일독할 수 있는 성경, 역사순서대로 편집된 ‘일년일독통독성경’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고 있다. 이

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9.

³³ 김양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서울: 홍성사, 2002).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7에서 재인용.

³⁴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08).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7에서 재인용.

순서대로 정해진 하루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전체를 일독할 수 있다.

물론 3-4월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리고 가을에 전도행사를 앞두고 하는

특별새벽기도에는 절기와 행사에 맞는 특별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할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한 일 년 일독 성경 읽기표는 다음과 같다.

<표17> 일 년 일독 성경 읽기표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3월)

1월		2월		3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창1~2장	1일	레6~7장	1일	신27~30장
2일	창3~5장	2일	레8~10장	2일	신31~32장
3일	창6~9장	3일	레11~13장	3일	신33~34장, 시90편
4일	창10~11장	4일	레14~17장	4일	수1~2장
5일	창12~14장	5일	레18~20장	5일	수3~5장
6일	창15~17장	6일	레21~22장	6일	수6~8장
7일	창18~21장	7일	레23~25장	7일	수9~12장
8일	창22~24장	8일	레26~27장	8일	수13~17장
9일	창25~27장	9일	민1~2장	9일	수18~19장
10일	창28~30장	10일	민3~4장	10일	수20~22장
11일	창31~33장	11일	민5~8장	11일	수23~24장
12일	창34~36장	12일	민9~12장	12일	삿1장~2:10
13일	창37~38장	13일	민13~14장	13일	삿2:11~5장
14일	창39~41장	14일	민15~17장	14일	삿6~9장
15일	창41~44장	15일	민18~21장	15일	산10~12장
16일	창45~47장	16일	민22~15장	16일	삿13~16장
17일	창48~50장	17일	민26~27장	17일	삿17~18장

18일	출1~4장	18일	민28~30장	18일	삿20~21장
19일	출5~7장	19일	민31~32장	19일	룻1~4장
20일	출8~10장	20일	민33~36장	20일	삼상1~3장
21일	출11~13장	21일	신1~4장	21일	삼상4~7장
22일	출14~15장	22일	신5~6장	22일	삼상8~10장
23일	출16~18장	23일	신7~9장	23일	삼상11~14장
24일	출19~20장	24일	신10~11장	24일	삼상15~16장
25일	출21~23장	25일	신12~14장	25일	삼상17~18장
26일	출24~27장	26일	신15~17장	26일	삼상19장, 시59편
27일	출28~31장	27일	신18~21장	27일	삼상20~21장, 시34편
28일	출32~34장	28일	신22~26장	28일	삼상22장, 시52편
29일	출35~38장			29일	삼상23~24장, 시57편
30일	출39~40장			30일	삼상25~26장, 시54편
31일	레1~5장			31일	삼상27~31장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4~6월)

4월		5월		6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특별새벽기도회	1일	잠10~15장	1일	시86~89편
2일		2일	잠16~20장	2일	시91~102편
3일		3일	잠21~24장	3일	시103~106편
4일		4일	잠25~29장	4일	시107~118편
5일		5일	잠30~31장	5일	시119편
6일		6일	아1~4장	6일	시120~134편
7일		7일	아5~8장	7일	시135~142편
8일		8일	왕상11장	8일	시143~150편
9일		9일	전1~3장	9일	왕상12~14장
10일		10일	전4~7장	10일	왕상15~17장

11일		11일	전8~12장	11일	왕상18~19장
12일		12일	읍1~3장	12일	왕상20~22장
13일		13일	읍4~7장	13일	왕하1~2장
14일		14일	읍8~10장	14일	왕하3~5장
15일	삼하1~2장	15일	읍11~14장	15일	왕하6~8장
16일	삼하3장~6장	16일	읍15~17장	16일	왕하9~10장
17일	삼하7~10장	17일	읍18~21장	17일	왕하11~14장
18일	삼하11~12장, 시51편	18일	읍22~24장	18일	암1~5장
19일	삼하13~15장, 시3편	19일	읍25~31장	19일	암6~9장
20일	삼하16~17장	20일	읍32~37장	20일	호1~4장
21일	삼하18~20장	21일	읍38~42장	21일	호5~9장
22일	삼하21~22장	22일	시1~2, 4~9편	22일	호10~14장
23일	삼하23~24장	23일	시10~18편	23일	은1~4장
24일	왕상1~2장	24일	시19~27편	24일	왕하15~16장
25일	왕상3~4장	25일	시28~33편	25일	왕하17~18:12
26일	왕상5~7장	26일	시35~41편	26일	사1~3장
27일	왕상8장	27일	시42~50, 53편	27일	사4~7장
28일	왕상9~10장	28일	시55~56, 58, 60~66편	28일	사8~12장
29일	잠1~5장	29일	시67~72편	29일	사13~17장
30일	잠6~9장	30일	시73~78편	30일	사18~20장
		31일	시79~85편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7~9월)

7월		8월		9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사21~24장	1일	렘34~36장	1일	겔8~11장
2일	사25~29장	2일	렘37~38장	2일	겔12~14장
3일	사30~35장	3일	왕하25장, 렘39~41장	3일	겔15~17장

4일	왕하18~13~37, 사36장	4일	렘42~45장	4일	겔18~20장
5일	왕하19장, 사37장	5일	렘46~48장	5일	겔21~24장
6일	왕하20장, 사38~39장	6일	렘49~52장	6일	겔25~28장
7일	사40~42장	7일	애1~2장	7일	겔29~32장
8일	사43~45장	8일	애3~5장	8일	겔33~35장
9일	사46~50장	9일	욥1장	9일	겔36~39장
10일	사51~55장	10일	대상1~3장	10일	겔40~43장
11일	사56~59장	11일	대상4~5장	11일	겔44~46장
12일	사60~63장	12일	대상6~9장	12일	겔47~48장
13일	사64~66장	13일	대상10~12장	13일	단1~4장
14일	미1~3장	14일	대상13~16장	14일	단5~6장
15일	미4~7장	15일	대상17~20장	15일	단7~8장
16일	왕하21~23장	16일	대상21~22장	16일	단10~12장
17일	슌1~3장	17일	대상23~26장	17일	스1~4장
18일	합1~3장	18일	대상27~29장	18일	학1~2장
19일	나1~3장	19일	대하1~4장	19일	스1~6장
20일	욘1~3장	20일	대하5~7장	20일	스7~10장
21일	왕하24장, 렘1~3장	21일	대하8~9장	21일	스11~14장
22일	렘4~6장	22일	대하10~13장	22일	스5~6장
23일	렘7~9장	23일	대하14~17장	23일	에1~5장
24일	렘10~13장	24일	대하18~22장	24일	에6~10장
25일	렘14~16장	25일	대하23~25장	25일	스7~10장
26일	렘17~20장	26일	대하26~28장	26일	느1~3장
27일	렘21~23장	27일	대하29~31장	27일	느4~7장
28일	렘24~25장	28일	대하32~33장	28일	느8~10장
29일	렘26~28장	29일	대하34~36장	29일	느11~13장
30일	렘29~31장	30일	겔1~3장	30일	말1~4장

31일	렘32~33장	31일	겔4~7장		
-----	---------	-----	-------	--	--

역사순 365일 1년 1독 성경통독 매일 성경읽기표(10~12월)

10월		11월		12월	
날짜	범위	날짜	범위	날짜	범위
1일	마1~4장	1일	요14~15장	1일	행20:1~6, 롬1~3장
2일	마5~7장	2일	요16~17장	2일	롬4~7장
3일	마8~10장	3일	요18~19장	3일	롬8~11장
4일	마11~13장	4일	요20~21장	4일	롬12~14장
5일	마14~16장	5일	특별 새벽 기도 회	5일	롬15~16장
6일	마17~20장	6일		6일	행20:7~23장
7일	마21~23장	7일		7일	행24~26장
8일	마24~25장	8일		8일	행27~28장
9일	마26~28장	9일		9일	엡1~3장
10일	막1~3장	10일		10일	엡4~6장
11일	막4~6장	11일		11일	빌1~4장
12일	막7~8장	12일	행1~2장	12일	골1~4장
13일	막9~10장	13일	행3~5장	13일	몬1장
14일	막11~13장	14일	행6~9장	14일	딤후1~6장
15일	막14~16장	15일	행10~12장	15일	딤후1~3장
16일	눅1~2장	16일	행13장~15:35	16일	딤후1~4장
17일	눅3~4장	17일	행15:36~18:22	17일	히1~4장
18일	눅5~6장	18일	살전1~5장	18일	히5~10장
19일	눅7~8장	19일	살후1~3장	19일	히11~13장
20일	눅9~10장	20일	갈1~3장	20일	약1~5장
21일	눅11~13장	21일	갈4~6장	21일	벧전1~5장
22일	눅14~16장	22일	행18:23~19장	22일	벧후1~3장
23일	눅17~18장	23일	고전1~4장	23일	유1장
24일	눅19~20장	24일	고전5~8장	24일	요일1~5장

25일	눅21~22장	25일	고전9~11장	25일	요이1장, 요삼1장
26일	눅23~24장	26일	고전12~14장	26일	계1~3장
27일	요1~3장	27일	고전15~16장	27일	계4~7장
28일	요4~6장	28일	고후1~4장	28일	계8~11장
29일	요7~8장	29일	고후5~9장	29일	계12~15장
30일	요9~11장	30일	고후10~13장	30일	계16~18장
31일	요12~13장			31일	계19~22장

기존의 큐티는 성경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이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큐티를 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통독을 통한 성경지식이 바탕이 되어있다면, 올바른 묵상으로 이끌 수 있다. 성경을 역사순으로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성경을 읽고, 그 순서대로 3년이면 성경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 으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 나간다면,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흐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게 됨으로 성경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년일독 통독성경’ 을 토대로 한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통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

본 연구자가 섬기는 창원새순교회는 통성경학교를 3년에 걸쳐 실시하였고 매주 통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이다. 교회본당 뒤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붙어있다.

새순교회
FORMULA FOR TONGBIBLE

통성경 포물라
 FORMULA FOR TONGBIBLE

통성경 通聖經

1. 성경은 얇은 책이다. The Bible is a thin book.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worth reading aloud.
3.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worth hearing 10 times in one year.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that contains the Heart of God.
5.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The Bible is the one book that contains the story of a person, family and nation.

이것이 본당 좌측 뒤편에 걸려있다. 성도들은 매일 이것을 보면서 교회본당에 출입하고 있다. 이것은 조병호가 통성경 포물라를 주창하면서 다섯 가지 슬로건으로 걸었던 내용이다. 통성경 포물라는 조병호가 주창한 것으로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되었다. 성경을 5가지 스텝으로 완성한 것으로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겠다. 처음 포물라를 선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었다.

<표18> 통 포물라 공식

단 계	내용과 교재
STEP1	하나님 나라 알기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STEP2	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통독>
STEP3	스토리 공부하기 <통성경 길라잡이>
STEP4	묵상과 기도하기 <일년일독 통독성경>
STEP5	이야기 전도하기 <성경과 5대제국>

본당 뒤편 우측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통성경 포물라 FORMULA FOR TONGBIBLE 새순교회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Formula STEP 1	Formula STEP 2	Formula STEP 3	Formula STEP 4	Formula STEP 5
통성경 하나님 나라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개 문항기 X 40분 : 140인 4주	통성경 하나님 마음 = 성경통독 20마당 X 40분 : 140인 4주	통성경 스토리 라인 = 통성경 길라잡이 40과 X 40분 : 140인 4주	통성경 묵상기도 = 일년일독 통독성경 (대상/사/사) 365일 X 40분	통성경 사명사 = 성경과 5대제국 스토리북 27편 X 40분 : 140인
하나님 나라알기	하나님 마음알기	스토리라인 공부하기	묵상기도하기	이야기 전도하기

이것은 통성경학교의 진행과정을 다섯 가지 스텝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통성경학교의 흐름을 알게 되고 통성경학교의 홍보효과도 있었다. 본 연구자가 지도하는 청년들도 통성경학교에 참여하였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성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통성학교에도 12명이 참여하였고, 담임목사와 2주간 소그룹으로 6명의 청년들이 참여해보았고, 본 연구자와도 6명의 청년들이 1년 동안 통성경길라잡이를 중심으로 함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성경학교가 좀더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2개의 Pre STEP과 5개의

STEP으로 세분화 되었다. 통성경학교는 “성경으로 개인·가정·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³⁵는 구호로 시작하며 Pre-STEP 2단계와 5가지 STEP으로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re-STEP 1단계는 ‘그 순간 이야기(The Moment)’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왜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가?

1. 움직이는 성막 500년

1) 모세 갈대 상자 왜 탔는가?

-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출 2:3-4)

2) 십계명 돌판과 성막 시작

-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출 31:18)
-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출 34:4)
-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출 39:32)

3)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

-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짜서 네 은 받침 위에 돌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출 26:31-33)

-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2)

4) 제사장 나라는?

³⁵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10.

- ①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출 12:21-22)
- ②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레 6:7)
- ③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레 19:9-10)
- ④ 민족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레 19:33-34)
- 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출 25:22)

2. 예루살렘 성전 1000년

1)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대상 28:10,19)

2) 성전과 이방인의 뜰

-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퍼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8:41-43)

3) 대제사장과 지성소

-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레 16:34)

4) 대제사장과 도피성

-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민 35:28)

3.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성전 휘장 찢어졌다’

1) 십자가의 지성소: 하나님의 어린양,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2) 그 순간: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긴다.

-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막 15:37-38)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3) 하나님 나라는?

- 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1:29)
- ②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마 6:9)
- ③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마 16:26)
- ④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요 19:30)
- ⑤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행 8:14-15)

4.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³⁶

Pre-STEP 1단계 ‘그 순간 이야기(The Moment)’ 를 하면서 통성경학교 학생들은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매 과의 교재의 빈 칸을 채우는 것과 독후감을 써 내는 것이다. 독후감은 매 STEP마다 있는 소책자를 읽고 교재에 자필로 기록하는 것이다. 참고로 아래의 본 연구자가 한 숙제를 실어본다.

³⁶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8.

8) 제사장 나라는?

①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

- *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67번씩} 너희의 가족에게) 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출 12:21-22)

②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 *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신성}) 을 받으리라(레 6:7)

③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 *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따서 밭에})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9-10)
- * 매 칠 년 끝에는 (^{모든 재배})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 15:1-2)
- *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작은 율령})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 25:10)

④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평화의 모든 족속}) 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 12:3)
- *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사는 거류민}) 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3-34)
- *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왕상 8:43)
-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동나무})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

⑤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 * 거기서 (^{내가 너를 만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 25:22)
- *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너를 만민})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만인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민 3:12)

이렇게 숙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매주일 공부한 내용을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성경학교는 10주(3달)과정을 거치게 된다.



독후감
Write a report on The Moment

종교적 신앙 소외

주요성명 전체는 읽은 후 유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시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요성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요성명의 글 안에서 제시한 내용은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신약의 광범한 도덕이다
 성경은 두 세대의 신약이 이교도의 역사를 기록한 영혼의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가려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는 세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나 함께 응수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해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하셨다 것이다.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터전을 만드는 내게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하시게 하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상여물을 기대하셨다. 그에 이차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자,
 그들이 그들의 정음 아브라함나 맺었던 언약을 받들라 하며 그들이 제사장 베푸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 세우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대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감수한 시인 그 삼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이교도인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되었도 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이 세
 그들이 지켜주셨다 큰 약속하셨다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베푸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사랑에 대한 약속이다.
 제사장 제사장 베푸는 언약 '모든 민족'을 말한다. 그러나 제사장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감수하는 상여물이다,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복 받게 하는 복의 통로라 되는 것이다.
 제사장 베푸는 사도라 우리 자매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소리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내
- ② 하나님의 동서가 있는 내
- ③ 이교도인 나와서 감수하는 내
- ④ 민족사적 배경이 있는 내
- ⑤ 강제와 사랑으로 이교도인.

Pre-STEP 2단계는 '성경과 영성(Bible and Spirituality)'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알밀순체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경에 기초한다.

I. 통(通)성경

1.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은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다.
2.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다.
3. 성경은 1년 10번 들을 책이다.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4.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이 표현된 책이다.
5. 성경은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성경은 2,000여 년의 시간 1,500여 공간 5,000여 인간을 통(通)으로 그리고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주신 내용부터 가정, 그리고 제사장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통(通)으로 담겨 있다.

II. 그리스도인 영성: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다.

1. 알고: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
2. 믿고: 하나님의 일은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이다. (No 자기가 만든 예수)
 -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요 6:28-29)
 -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1:6)
 -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3.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삶을 예배로 산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4. 체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한다.
 -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20)
 -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0-13)

5. 영광 돌린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6-18)

·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21:19)³⁷

STEP 1단계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일곱 가지 질문>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세 5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2.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
3. 페르시아 7권: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 실현분위기
4. 중간사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구약성경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5. 4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6.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³⁷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52.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분위기
 7. 공동서신 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 왜냐하면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 분위기³⁸

STEP 1단계는 7가지 스텝의 내용을 질문과 답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어떤 질문을 하고 돌아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뭐 배우고 왔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질문을 하고 왔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벨상의 22%를 가져간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90여 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또한 Google과 Facebook, 스타벅스 창립자도 유대인이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과 우리의 교육방법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즘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고 유대인들은 질문하고 답하는 토론식 교육이다.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성경의 중요한 7가지 질문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한 손에 쥐게 만든다. 구약은 제사장 나라이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이다. 물론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 안으로 수렴된다. 조병호는 7가지 질문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런 다음에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들을 그려 넣을 수 있다.³⁹ 본 연구자가 이 7가지 질문을 처음 대했을

³⁸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98.

³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49.

때의 충격과 환희를 잊을 수 없다. 이 일곱 가지 질문으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전체 스토리를 한 손에 잡는 느낌을 받았다.

STEP 2단계는 <하나님 마음 알기>이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 됨도, 기다림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⁴⁰

이것을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조병호가 쓴 ‘성경통독’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일반신앙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이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총 20마당으로 되어 있으며, 각 마당마다 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성경 66권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 각 20마당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마당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민족의 기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눈물 어린 순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다음 세대로 계승되며 그들의 유언은 후손들의 비전이 됩니다.⁴¹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개인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갔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더 이상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르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⁴⁰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73.

⁴¹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14.

시민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 받습니다.⁴²

3마당 만나세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에서 자라난 만나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교육받습니다. 출애굽세대에서 만나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모세는 만나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⁴³

4마당 신앙계승: 여호수아서에는 만나세대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멋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신앙을 계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한 그들의 후손들은 곧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고 맙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구원,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⁴⁴

5마당 천년 모범: 사무엘은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자기 권력의 소유물로 여긴 사울로 인해 하나님의 근심은 깊어져 갑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다윗, 그는 오랜 훈련 끝에 온 백성의 지지를 얻어

⁴²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54.

⁴³ Ibid., 96.

⁴⁴ Ibid., 118.

왕위에 오르고,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천년 역사의 모범을 이루어 갑니다.⁴⁵

6마당 마음과 지혜: 하나님의 공과 의가 실현되는 다윗 왕국을 물려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잠언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옮겨버린 결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경험 하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⁴⁶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솔로몬의 정치적, 신앙적 실패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뒤를 이은 왕조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줄을 보내시며, 그들이 그 줄을 사명의 줄로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 마지막 호소가 선포됩니다.⁴⁷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북 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 유다는 하나님의 세계경영을 깨달은 몇몇 왕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정을 일삼는 왕들로 인해 급격히 쇠퇴해갑니다. 바벨론 포로생활을 통해 그들을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⁴⁵ Ibid., 154.

⁴⁶ Ibid., 204.

⁴⁷ Ibid., 238.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며, 민족의 회복과 소망을 노래합니다.⁴⁸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낫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처지이지만, 젊은 날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다니엘은 제국 변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갖춘 다니엘, 그는 징계 받으며 훈련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놓아가는 디딤돌과 같았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선언할 파수꾼으로 선택 받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 에스겔은 곧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미래를 선포합니다.⁴⁹

10마당 재건공동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재건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에 힘입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자인 제사장 에스라는 공동체의 내적부흥과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인생의 최종목표로 세우고 실천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꿈꾸던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오백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⁵⁰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냉랭하게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쓸쓸한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4백여 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관심은 끊이지 않으십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그날을 준비하고

⁴⁸ Ibid., 286.

⁴⁹ Ibid., 318.

⁵⁰ Ibid., 336.

계십니다.⁵¹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사복음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전체를 한 마디로 압축한 키워드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다윗이라는 천 년의 징검다리를 건너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큰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비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참 기쁨을 위한 탄생이었습니다.⁵²

13마당 한 영혼 사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들판을 노니는 양들보다도, 더 나아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해서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십니다. 그분의 몸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후에는 당신 자신의 몸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⁵³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5백여 년 전에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은 겔손의 상징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더 높은 설득의 길로 이끄시고자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역하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시며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모든

⁵¹ Ibid., 370.

⁵² Ibid., 396.

⁵³ Ibid., 428.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키워 가십니다.⁵⁴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처벌과 용서, 계약과 관계의 신비가 어우러진 장소입니다. 차갑게 얼어버린 인생들의 영혼에 봄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이끄시며 영광과 평화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한 제자들이 참 평화의 사도로 파송 됩니다.⁵⁵

16마당 열리는 제자시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편만해지는 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는 데에는 스테반과 빌립 같은 일곱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쓰임 받게 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제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세계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⁵⁶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초석도 놓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떠난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가 여행 도중 적어 보낸

⁵⁴ Ibid., 460.

⁵⁵ Ibid., 484.

⁵⁶ Ibid., 506.

여러 편지들은 교회들을 향한 격려와 간절한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⁵⁷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바울, 그는 3차에 걸친 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과거 자신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지난날 눈물로 씨를 뿌려 세운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중요한 부탁을 남기고 있습니다.⁵⁸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교회공동체가 큰 시련을 맞습니다. 내부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교사들이 출현하고,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모진 박해를 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고, 배교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공동서신으로 불리는 이 편지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줍니다.⁵⁹

20마당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 네로와 도미티안, 트라야 등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는 극심하였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많은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선언합니다. 로마제국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⁵⁷ Ibid., 528.

⁵⁸ Ibid., 570.

⁵⁹ Ibid., 600.

이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⁶⁰

이것을 조병호는 성경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한다.

1. 하나님의 마음 -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창 6:6). *창조 때의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홍수 심판 때의 아픈 하나님 마음*
2. 열방을 향한 꿈 -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출 6:9).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 19:8). *홍수 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
3. 만나세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신 6:7).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신 것은 사람이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 8:3).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의 마음에 담는 60만 만나세대*
4. 신앙계승: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수 1:6).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룻 2: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삿 10:16).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어지는 기쁨' 과 '끊어지는 슬픔'*
5. 천년모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삼하 7:3).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행 13:22). *다윗 마음의 꿈이 제국 건설이 아닌 천년모범 예루살렘 성전 건축*
6. 마음과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주셨다(왕상 4:29).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왕상 11:4). *솔로몬의 모든 지혜, 부귀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시작됨*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 *200년간 고패 같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을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 선 희망: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애 3:33).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 마음 언약이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희망 선언*
9. 징계, 희망이 디딤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⁶⁰ Ibid., 624.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 33:11).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겔 36:26).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10. 재건공동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부녀와 어린아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느 12:43). *만나세대에 이어 ‘재건 공동체’의 찬양소리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 4:6).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2. 기쁨을 위한 탄생: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눅 2:9).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양 틈에 자던 베들레헬 목자들에게까지 ‘영광의 기쁨’을 알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13. 한 영혼 사랑: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막 5:19).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요 11:33). *상한 갈대 같은 거라사 광인,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사로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마음*

14. 용서를 향한 열정: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마 26:38).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십자가 밑에서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마 28:8).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를 ‘믿는 자’들을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16. 열리는 제자시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더라(행 1:14). *사도가 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행 15:11).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행 15:23). *모든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름다운 결정’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딤후 1:7).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준비된 면류관을 꿈꾸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벧전 3:8).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선한 싸움’ 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요일 3:19).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계 22:12).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⁶¹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 된다.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통성경을 접하면서 가장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 중심’ 으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문법적 해석과 교리적 해석으로 메마른 성경묵상 방법이였다면,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새로운 성경묵상의 방법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한다. 그럼으로 본 연구자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을 가장 모범적인 성경통독과

묵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STEP 3단계는 <성경 즐기>이다. 꽃과 잎과 열매는 가지에 열린다. 가지는

줄기에서 자란다. 즐기 없는 가지는 없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들이다. 긴 겨울을 지내며 언제 어느 사이에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개나리, 벚꽃 같은 나무 꽃들이 활짝 핀 것을 보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병호는 말한다. 성경 66권 책 제목만 외워서도 이야기 즐기 잡기가 쉽

⁶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73.

않다. STEP 3단계에서는 큰 동그라미 7개와 40개 소제목으로 2,000년의 성경줄기를 말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큰 그릇에 40개의 작은 이야기를 담는다.⁶² STEP 3 성경줄기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9> STEP 3 성경줄기⁶³

Track1 모세5 경 한 민족과 모든 민족	모든 것의 시작	1. 원역사	창 1-11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2. 족장사	창 12-36장
	지도자 요셉	3. 입(入)애굽과 민족	창 37-50장
	지도자 모세	4. 출(出)애굽과 제국	출 1-18장
	제사장 나라 틀(언약궤 만듦)	5.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출 19-40장
	제사장 나라 교과서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
	제사장 나라 학교	7. 만나세대	민
	제사장 나라 학교 졸업	8. 만나학교 졸업	신
	졸업생 성공 사례	9. 약속의 땅 입성	수
	졸업생 자녀교육 실패 사례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삿
	졸업생 자녀교육 성공 사례	11. 교육의 성공사례	룻
Track2 왕정 500년 다윗의 길과 여로보 암의 길	사무엘의 설득	12. 미스바 세대	삼상 1-7장
	최초의 왕 사울	13. 왕정의 시작	삼상 8-31장
	다윗	14. 하나님의 종 다윗	삼하, 왕상 1- 2장
	솔로몬	15. 솔로몬과 시가서	왕상 3-11장, 잠, 아, 전, 욥, 시
	분단 200년	16. 남북분열왕조	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⁶²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00.

⁶³ Ibid., 98.

			호, 은
	사마리아인 시작	17. 북이스라엘의 멸망	왕하 15-20장, 사, 미
	마지막 왕 시드기야	18. 남유다의 멸망	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예레미야의 설득	19. 잠깐의 징계	왕하 24-25장, 렘, 애, 읍, 대상, 대하
Track3 페르시아 7권 유대인의 시작과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에스겔	20. 포로민 설득	겔
	다니엘	21.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단
	스룹바벨 총독	22. 성전 재건	스, 학, 스, 예
	느헤미야 총독	23. 성벽 재건	느
	1500년 사랑고백	24. 고백과 침묵	말
Track4 중간사 400년 유대인 분과	수전절 시작	25. 헬라제국과 중간사	
	분봉왕 시작	26. 로마제국과 중간사	
Track5 복음서 그리스 도와 하나님 나라	기쁨을 위한 탄생	27. 예수님의 탄생	마
	한 영혼 사랑	28. 공생애 3년	막
	용서를 향한 열정	29. 마지막 일주일	눅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요
Track6 사도행 전 30년 그리스 도인의 탄생과 전도 여행	그리스도인의 시작	31. 열리는 제자시대	행 1-12장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들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행 13장~15:35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들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행 15:36~18:22, 살 전·살후, 갈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들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행 18:23~19장, 고전·고후
	샘플 바울의 전도여행들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행 20~26장, 롬
	바울의 편지들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행 27~28장, 엡, 빌

	바울의 편지들	37.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골, 몬
	바울의 편지들	38.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	딤편, 딤편, 딤편
Track7 공동서 신 9권 로마대 화재 후	선한 싸움/NO악한 싸움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 약, 벤티전·벤티후, 유
그리스 도인과 로마제 국의 한판 승부	승리확신/NO의심	40. 최후 승리의 노래	요일·요일·요일, 계

3단계 ‘성경즐거’는 통성경학교 교재를 주교재로 하고 ‘통성경길라잡이’를 부교재로 한다. 그리고 성경즐거 ‘소책자’도 있다. 이러한 책들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성경즐거기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다. 통성경학교 주교재는 성경즐거기 부분에서 성경 몇 장마다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요약하도록 하고 있다.⁶⁴ 직접 자신이 교재 빈 칸에 적어봄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7개의 트랙을 시작할 때마다 간략하게 개관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 Track3 페르시아 7권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⁵

⁶⁴ 그 예로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09페이지의 레위기 1-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법(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을 통해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⁶⁵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40.

▶ 페르시아 7권 - 유대인의 시작과 활동

- 다니엘은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가?

*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단 1:4)

- 다니엘의 공부(제국학vs.제사장 나라학: 스킴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에 계승)

① 유대인 시작(에스겔/포로민 설득), 4대 제국 변동(다니엘/제국 변동의 밑그림)

② 총독 스킴바벨(성전 재건), 총독 느헤미야(성벽 재건), 1,500년 사랑 고백(고백과 침묵)

- 유대인: 이사야(앗수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 예레미야(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 결국 제국은 제사장 나라 튜닝을 위한 도구임을 깨달은 사람들
- 페르시아 시대 사람들: 다니엘, 에스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또한 각 40개의 줄기마다 핵심 포인트를 Story point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한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 Story point⁶⁶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에 태어날 때 세계 제국은 앗수르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된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한다.

통성경학교는 각 스텝마다 소책자들이 있어서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주고

⁶⁶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41.

있다. 성경줄기 부분의 소책자에 있어서 특별히 ‘신구약중간사’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나,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내용이다. 구약 말라기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시대의 세상나라 배경이었는데, 신약의 복음서 마태복음은 로마제국이 그 배경이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간격이 있는 것이다.

신구약 중간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제국과, 헬라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로마제국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제국은 약 300여 년 동안 지속되는데, 알렉산더(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세워진 드넓은 대제국이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건설해놓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되고,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 갈라지게 된다. 유대는 처음에는 헬라 제국에서 이집트 헬라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후에는 시리아 헬라제국이라 할 수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유대가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헬라제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오히려 이집트 헬라 제국은 유대의 ‘모세오경’을 존중해 유대 학자들을 이집트로 초청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 칠십인역성경(LXX)을 헬라제국 전역에 퍼뜨리기까지 했다.⁶⁷

그런데 유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유대의 통치가 이집트 헬라제국에서 시리아헬라제국으로 바뀌면서부터이다. 시리아 헬라제국이 유대를 통치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신생국가로 등장한다. 그런 과정에서 시리아 헬라제국과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시리아 헬라제국이

⁶⁷ 조병호, *성경줄기* (서울: 통독원, 2015), 116.

폐하게 된다. 그 전쟁을 종료하기 위해 시리아 헬라제국은 로마에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했다. 시리아 헬라제국은 로마에 전쟁배상금을 갚기 위해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갔고, 심지어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신전에까지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시리아 헬라제국이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까지 손을 대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신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게 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그러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그 폭동을 유대는 ‘마카비 혁명’ 이라고 부른다. 유대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결국 마카비 혁명으로 시리아 헬라제국이 유대에서 철수하게 되고, 헬라제국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되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수전절’ 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대에는 여러 분파들(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이 생겨나게 된다.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유대는 다윗왕조 이후 오랜만에 잠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다. 하스몬 왕조는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지만, 유대는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로마제국에게 다시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잠시나마 독립국가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잠시 독립을 누렸던 유대가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가 되고 만다. 그런데 로마제국은 그들이 통치하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치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유대는 다른 문제들은 일으키지 않는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만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시리아 헬라제국과 맞서 싸워 이기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제국은 예루살렘에는 정치력이 뛰어난 분봉 왕 헤롯을 통해 정치를 맡겼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라에 총독과 로마제국의 군단을 두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종교만은 유대인들에게 전권을 주어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종교법으로 재판을 하여 심지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였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때 만들어진 유대의 종교 지도부인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제국 때에 더욱 그 힘이 강력해졌던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속한 산헤드린공회는 로마제국의 지배 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종교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그 권한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다. 또한 산헤드린공회는 로마제국 전역에 뿔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공문을 보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면에 대해 모두 관할하고 처리하기까지 했다. 로마제국 전역에 세금의 누수가 없게 하려고 로마제국은 모든 식민지의 국민들로 하여금 정해진 날까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했다. 그래서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까지 가야 했고,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제국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신약성경까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까지 신약성경이 모두 로마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에서 헬라제국과 함께 로마 제국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의 줄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⁸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왜 갑자기 구약성경 말라기의 배경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신약성경인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로마제국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다. 신구약중간사를 통성경학교에서 배움으로 인해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기간 동안에 등장했던 헬라제국과 로마제국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⁶⁸ 조병호, *성경줄기* (서울: 통독원, 2015), 117-120.

제국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것이 통(通)성경학교의 장점이다.

‘STEP 4’ 는 <성경을 통(通)한 기도>이다. 성경 속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조병호는 그 중에서 샘플로 10가지를 소개한다.

<표20> 성경의 기도샘플 12가지

1.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와 묵상 (창 24:12-15)
2. 모세의 기도와 묵상 (출 32:11-14)
3. 한나의 기도와 묵상 (삼상 1:10-11)
4. 다윗의 기도와 묵상 (시 19:7-10)
5. 솔로몬의 기도와 묵상 (왕상 8:49-54)
6. 예레미야의 기도와 묵상 (애 1:1)
7. 느헤미야의 기도와 묵상 (느 1:8-9)
8.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1 (마 4:1-4)
9.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2 (마 6:9-13)
10.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3 (마 26:39)
11. 시므온의 기도와 묵상 (눅 2:28-32)
12. 바울의 기도와 묵상 (갈 2:19-20)

성경을 통한 기도 샘플 가운데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지금 여기서 ‘이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들’ 을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 다음: 하나님의 뜻, 나라가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 이뤄지도록 바라는 것이다.
- 깊은(묵상) 기도? ‘기록된 성경 이야기’ 와 ‘지금 나의 이야기’ 가 만나야 한다.

그 중에서 한나의 기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나의 기도는 9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400년 전 제사장 나라의 나실인법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현실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고 풀어갈 것인가?” 가 핵심이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대적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고,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 한나는 기도했다. 단순히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막무가내로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사시대 350년의 어두운 시간을 끝내는 믿음의 기도였다. 한나는 900년 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⁶⁹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라도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생각했다. 사라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율법에 따라⁷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다.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에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한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공식은 이렇다.

<표21> 성경속 사람들의 기도공식

<현실 이야기> + <기록된 성경 이야기>를 통한 기도: 기적 체험(현실 변동)⁷¹

⁶⁹ 창세기 18-21장.

⁷⁰ 민수기 6장 1-21절.

⁷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196.

이러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한 기도를 해야 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성경이야기와 기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STEP 5는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이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모세와 다윗 이야기,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이 이야기와 유대인 이야기를 다룬다. 이러한 이야기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전도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녀교육과 노벨상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유대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왔고, 유대인의 교육법은 탁월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도 다가가기 쉬운 이야기이다.

모세와 다윗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들은 적이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놓았고, 다윗은 권력의 공공성(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위대한 나라를 세운 인물이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들 즉 앗수르제국, 바벨론제국, 페르시아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고 매력 있는 역사적 주제들이다. 그리고 중세 천 년을 거쳐 지금의 미국의 정치, 대통령제 이야기까지 모두가 성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전도방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제는 혁신적인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왔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고, 130여 년간 노예 생활하던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자기 민족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다. 자신의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지도 않았다. 그럼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 임기제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임기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래로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있다. 이러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한다면 성경이야기는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병호는 말한다.⁷²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60만 명을 대상으로 Law School을 열었다. 출애굽당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광야에서 태어나 5세가 된 어린아이들이 교육 대상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23,000개의 Family School을 열었다. 교재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교사는 부모이고 학생은 자녀들인데 5세가 되면 교육을 시작한다. 모세는 이 Law School과 Family School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130년간 노예생활로 노예근성을 가진 민족을 탁월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 수 있었다.⁷³

본연구자는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통성경학교는 10주 과정이며 본 교회에서는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약 1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그것은 제 V장에서 다룰 것인데, 질문은 아래와 같았다.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⁷²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138-141.

⁷³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212.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6. 성경읽기와 설교이해에 성경줄기(40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 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통성경을 통한 청년설교

한국교회 목회자의 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이다. 예배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도 역시 설교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살인적인 분량’의 설교를 소화해 내어야 한다. 성도가 500명이 넘어가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는 부교역자들과 설교를 나누어 할 수 있어 그 분량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혼자서 많은 분량의 설교를 소화해 내어야 한다. 주일 낮과 오후,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매일 지속되는 새벽기도 설교, 기타 설교를 합하면 일주일에 12번 정도의 설교를 해야 한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목회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 준비에 쏟아야 한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 사도들의 고백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⁷⁴는 자세가 아니면 성공적인 설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⁷⁴ 사도행전 6: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가깝다. 그러나 목회자는 현실적으로 설교 이외에도 심방과 행정 같은 여러 가지 목회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설교준비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가운데 있지 못한 설교자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받으며 직면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설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인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역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에서도 설교자로서의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카이퍼(R.B.Kuiper)가 주장한 대로 ‘올바른 성경적 설교’이다. 올바른 성경적 설교는 성경만을 설교하며(Scriptura Sola), 성경 전부를 설교하고(Scriptura Tota), 오직 말씀과 더불어 설교해야 한다(Sola Cum Verbo)는 것이다.⁷⁵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성경에 관하여(about the bible)” 연구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성경 자체(the bible itself)”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⁷⁶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성경적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청중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설교의 유일한 주제이며, 설교자가 끊임없이 일해야 할 유일한 말이다.”⁷⁷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 설교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편향적인 성경읽기이다. 성경을 부분으로만 보게 되면, 자신이 보고 싶은 말씀만을

⁷⁵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2), 80.

⁷⁶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214.

⁷⁷ William Perkins, *The art of prophes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14.

보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된다. 즉 편향적인 성경읽기로 취우치기 쉽다. 그 결과 설교자는 ‘편향적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균형을 상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성경의 일부만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물하신 성경전체가 복음이다. 따라서 그 선물의 일부만을 중복해서 전달하는 일은 명백히 옳지 않은 일이다.⁷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성경전체의 스토리를 모르고 한 부분만 강조한다던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성경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편화된 성경지식을 가지게 된다. 늘 선호하는 본문과 주제를 설교하는 설교자는 교인들에게 편향된 성경인식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통(通)성경이 중요한 것이다.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조병호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직접 드러내주신 계시의 책이다.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나 지혜나 깨달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즉,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된 성경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은 한 권이자, 동시에 66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장까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경 66권 전체가 한 권 한 권 모두 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다 유익하기 때문이다.⁷⁹

통(通)성경은 성경전체를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66권 전체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과 조장을 합하여 10여명의

⁷⁸ 고승모, “통성경 포플라를 적용한 내러포 설교가 회중개발에 미치는 영향-함안 중앙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4.

⁷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8-9.

청년들과 5년째 매주 마음과 생각으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섬기는 청년대학부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매일 큐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교회 성인성도들도 매주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성인성도들 또한 역사순으로 편집된 조병호의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고 있다. 청년들은 매주 오전 예배 때에 담임목사로부터 같은 역사적 순서를 따른 본문의 설교를 듣고 오후에 똑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주간의 본문 중에 다른 본문으로 본 연구자에게서 다시 듣는다. 물론 연구자는 청년들에게 맞추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오전예배와는 적용점이 다르다. 본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주일 오전에 주로 교리와 주제 설교를 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그 주간의 통독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청년들과 성인들이 같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듣게 된다. 청년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청년대학부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80~90%이다. 이 점은 새순교회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매주 같은 성경의 본문을 따라 청년대학부 이상의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매주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 안에서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청년대학부에서 설교할 때 기본적으로는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 통독성경’ 을 가지고 성경본문을 묵상하고, 조병호가 발행한 ‘마음과 생각’ 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소그룹성경공부 본문을 청년대학부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눈 다음에 설교를 하였다. ‘마음과 생각’ 의 본문을 따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 같은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연구자가 주일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설교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점은 제

V장의 실행과정에서 밝힐 것이다.

또한 조병호가 쓴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과 5대 제국’⁸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⁸¹, ‘통독 성경’, ‘와우! 예레미야 70년’⁸² 같은 책들의 도움을 받으며 설교 하였다. 또한 드루 목회학 박사과정의 레너드 스윗과 조병호의 강의가 설교에 도움이 되었다. 레너드 스윗은 성경에 있는 여러 점들을 하나로 이어야 하는 작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스토리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나하나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이야기들이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 66권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내면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성경을 장과 절로 구별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수많은 은유를 담고 있다. 그동안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성경은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때로는 성경에 상징적 언어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알레고리적 해석도 필요하다. 그 본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성경전체 속에서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이다. 성경의 여러 점들을 하나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역설적이다. 그리고 은유적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스테레오로, 사운드트랙으로,

⁸⁰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⁸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⁸²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 통독원, 2016).

서라운드로 들려진다. 그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이다.⁸³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유명·무명의 설교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청중들은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다. 설교의 역사에 있어 복음의 내용은 불변하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설교의 방법은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변해왔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설교자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급격히 변화하는 중이고, 우리는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현대는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급격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대는 문자의 시대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Google)로 대표되는 이미지의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인터넷망(World Wide Web)으로 연결되어 있고, 웹페이지에는 글(문자)과 그림과 정보와 동영상의 한 자리에 공존한다. 2007년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기능을 접목시킨 스마트폰(smartphone)⁸⁴의 등장으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설교의 핵심은 복음인데 이를 잘 전달하고, 청중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 전달 유형이 필요하다.

이야기와 은유는 세상을 의미 있게 이해하고, 삶을 풍성하게 파악하게 하는 언어적 수사법이다. 성경에서도 이야기와 은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창조이야기, 바벨탑이야기, 요셉이야기, 생명샘(잠언 13:14),

⁸³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2015년 가을학기 레너드 스윗 강의 요약.

⁸⁴ 2007년 1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2007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을 발표했다.

토기장이(이사야 64:8), 나의 목자(시편 23:1)등이 바로 그 예이다. 사실상 오늘의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와 은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⁸⁵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오늘의 문화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 고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은유적 이야기 위에 건설한다.’ 고 주장했다.⁸⁶

내러포(narraphor)는 이야기(narrative)와 은유(metaphor)의 합성어로 Leonard Sweet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사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단어와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왔다. 즉 마치 설교가 특정한 개념을 신학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스위트는 지금 우리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와 은유, 그리고 상징과 이야기로 자신을 전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은유적 이야기 위에 건설한다.’ 고 말했던 것이다. 이야기와 은유는 서로 다른 문학의 표현 양식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스위트는 “이야기는 곧 윤색하고 수를 놓은 은유다”⁸⁷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김영래는 “내러포는 이야기 속에 이미지와 은유를 포함시켜 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수사양식이다.”⁸⁸라고 설명하였다.

⁸⁵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신학과세계* 80(2015), 526.

⁸⁶ Leonard Sweet, *Giving Blood: A Fresh Paradigm for Preach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156.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에서 재인용.

⁸⁷ Leonard Sweet, *Giving Bloo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37.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8에서 재인용.

⁸⁸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

예를 들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열 처녀의 비유⁸⁹에서 보편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시켜주는 최상의 은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스윗은 “예수님의 비유는 내러포(narraphor) 그 자체” 라고 했던 것이다.⁹⁰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몇 사람은 그의 교훈에 놀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했다.⁹¹ 그 이유를 스윗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문장이나 단어 혹은 구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잘 설계된 설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으며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은유와 비유 그리고 몸짓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⁹²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권위의 통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과 깨달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깊은 감동과 깨달음은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에게 권위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스윗은 “성경의 66권은 모두 함께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형성한다.”⁹³고 본다. 레너드 스윗의 주장처럼

⁸⁹ 마태복음 25:1-13.

⁹⁰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8.

⁹¹ 마가복음 1:21-22.

⁹² Leonard Sweet, *Giving Bloo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4), 21-34. 문병재, “통/내러포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나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5에서 재인용.

⁹³ Leonard Sweet and Frank Viola, *Jesus: A Theography*, (Thomas Nelson Publishers, 2012), ix-x. 문병재, “내러포 설교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나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와 은유가 오늘의 문화언어가 되었다면, 이야기와 은유로 가득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유리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야기와 은유가 아닌 요점과 원리에 매달려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⁹⁴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본연구자는 내러포 설교를 추구하였다. 성경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통(通)성경적 관점에서 본문을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를 교재로 하는 조병호의 인터넷 강의를 반복해서 100강좌 들었는데,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 통신학적 관점과 40개 성경줄기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CBS바이블 칼리지에서 120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더 체계적이고 이야기로 연결된 풍성한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병호가 강의하며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통으로 배울 수 있다. 총 100강의로 되어 있으며 성경과 5대제국을 중심으로 스페셜 강의를 20강 준비되어 있다. 100강의는 한 강의 당 약 40분이며, 스페셜 강의는 50분 정도이다.

<표22> CBS 바이블 칼리지 120강의 순서⁹⁵

Pre-STEP 1 The Moment	1강	왜 5세인가? 디모데와 사두개파 - 큰 그림 가르치기
	2강	‘그 순간’ 이야기 1: 성막과 성전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5에서 재인용.

⁹⁴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527.

⁹⁵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6-9.

	3강	‘그 순간’ 이야기 2: 너희 몸이 성전
	4강	제사장 나라
	5강	하나님 나라
Pre-STEP 2 성경과 영성	6강	성경은 어떤 책인가?
	7강	영성이란 무엇인가?
STEP 1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8강	통(通)성경 7개 트랙
	9강	모세 5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10강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11강	페르시아 7권: 왜! 스킵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12강	중간사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13강	4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14강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은 스테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STEP 2 하나님 마음	15강	공동서신 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주다가 죽였는가?
	16강	하나님의 마음 - 열방을 향한 꿈
	17강	만나세대 - 신앙계승
	18강	천년모범 - 마음과 지혜
	19강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절망 앞에 선 희망
	20강	징계 희망의 디딤돌 - 재건공동체
	21강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 기쁨을 위한 탄생
	22강	한 영혼사랑 - 용서를 향한 열정
	23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열리는 제자시대
24강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25강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STEP 3	26강	성경 66권이 1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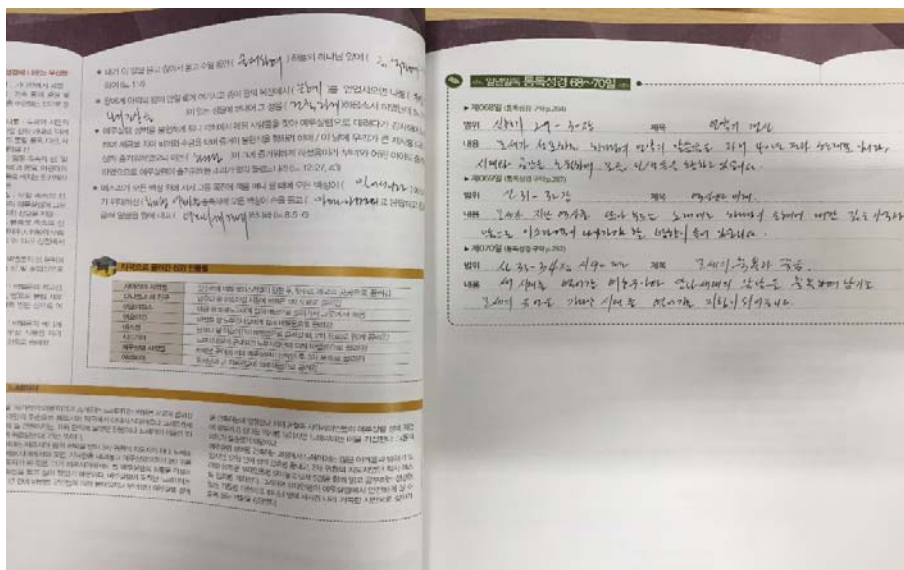
성경줄기 모세오경	27강	원역사(창 1-11장)
	28강	족장사: 한 민족과 모든 민족(창 12-36장)
	29강	입(入)애굽과 민족(창 37-50장)
	30강	출(出)애굽과 제국(출 1-18장)
	31강	세계선교의 꿈 - 제사장나라(출 19-40장)
	32강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레)
	33강	만나세대(민)
	34강	만나학교 졸업(신)
	35강	약속의 땅 입성(수)
	36강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삿)
37강	교육의 성공 사례(룻)	
STEP 3 성경줄기 왕정 500년	38강	미스바세대(삼상 1-7장)
	39강	왕정의 시작(삼상 8-31장)
	40강	세 번의 기름부음: 다윗의 길(삼하 1-10장)
	41강	하나님의 종 다윗(삼하 11-24장, 왕상 1-2장, 시)
	42강	솔로몬과 시가서(왕상 3-11장, 잠, 아, 전, 시)
	43강	하늘 보석 읍(읍)
	44강	남북분열 200년(왕상 12-22장, 왕하 1-14장, 암, 호)
	45강	요나의 기적(욘)
	46강	북이스라엘 멸망(왕하 15-20장, 사 1-39장)
	47강	베들레헴 목동들(사 40-66장, 미)
	48강	남유다 멸망(왕하 21-23장, 습, 합, 나, 율)
	49강	잠간의 징계(왕하 24-25장, 렘, 애, 읍)
	50강	역대기 숲(대상, 대하)
STEP 3 성경줄기 페르시아 7권	51강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겔)
	52강	제국변동의 밑그림(단)
	53강	성전재건(스 1-6장, 학, 습)
	54강	에스더의 파티(에)
	55강	에스라의 권한(스 7-10장)

	56강	성벽재건(느)
	57강	고백과 침묵(말)
STEP 3 성경줄기 중간사 400년	58강	헬라제국과 중간사1: 모세5경의 세계화
	59강	헬라제국과 중간사2: 마카비 혁명
	60강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61강	로마제국과 중간사: 헤롯왕조
STEP 3 성경줄기 4복음서	62강	예수님의 탄생(마, 막, 눅, 요)
	63강	공생애 3년: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마, 막, 눅, 요)
	64강	공생애 3년: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마, 막, 눅, 요)
	65강	공생애 3년: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마, 막, 눅, 요)
	66강	마지막 일주일: 산헤드린 재판과 빌라도 재판(마, 막, 눅, 요)
	67강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마, 막, 눅, 요)
STEP 3 성경줄기 사도행전 30년	68강	열리는 제자시대: 그리스도인의 탄생(행 1-12장)
	69강	바울의 1차 전도여행(행 13-15:35)
	70강	바울의 2차 전도여행(행 15:36-18:22, 살전, 살후, 갈)
	71강	바울의 3차 전도여행(행 18:23-19장, 고전, 고후)
	72강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행 20-26장, 롬)
	73강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행 27-28장, 엡, 빌)
	74강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골, 몬)
	75강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딤펴전, 딤펴후)
STEP3 성경줄기 공동서신 9권	76강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히, 약, 벧전, 벧후, 유)
	77강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요일, 요이, 요삼)
	78강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계)
	79강	역사순 통독
STEP 4 성경을 통(通)한 기도	80강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
	81강	모세의 기도
	82강	한나의 기도

	83강	다윗의 기도
	84강	솔로몬의 기도
	85강	예레미야의 기도
	86강	느헤미야의 기도
	87강	예수님의 기도1
	88강	예수님의 기도2
	89강	시므온과 스테반의 기도
	90강	바울의 기도
STEP 5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하기	91강	모세- 나라 세우기
	92강	다윗- 민족 통일하기
	93강	사마리아인과 앓수르 제국
	94강	앗수르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95강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
	96강	바벨론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
	97강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
	98강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헬라제국
	99강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100강	부모가 자녀에게 -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SPECIAL 성경과 5대제국	1강	이집트: 요셉과 파라오
	2강	앗수르1: 앓수르 제국, 문명과 함께 사라지다
	3강	앗수르2: 사마리아, 동맹과 함께 사라지다
	4강	앗수르3: 성경과 앓수르 제국
	5강	바벨론1: 함무라비와 나부코의 바벨론 제국
	6강	바벨론2: 바벨론 성 90.16km,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7강	바벨론3: 성경과 바벨론 제국 - 유대인의 탄생
	8강	페르시아1: 소치기아들(키루스2세), 페르시아를 통일하다
	9강	페르시아2: 장사꾼 다레이오스, 황금의 제국 만들다
	10강	페르시아3: 마라톤과 살라미스- 페르시아 전쟁

11강	페르시아4: 마고스 축제와 부림절- 에스더 조서 정치
12강	페르시아5: 성경과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의 창고와 조서를 도구로 쓴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극상품 무화과 열매
13강	헬라1: 아테네와 스파르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동맹, 그리스의 동맹이야기
14강	헬라2: 알렉산더의 손에 페르시아의 황금이 넘어가다 - 다레이오스 3세와 알렉산더(10년 이야기)
15강	헬라3: 헬라제국, 셉투아진트(LXX)와 마카비 혁명
16강	헬라4: 헬라제국과 사두개파
17강	로마1: 로마, 제국의 길에 들어서다 - 제국과 전쟁
18강	로마2: 가이사라와 하나님의 것 - 제국과 세금
19강	로마3: 저 여우에게 - 로마제국의 통치방식
20강	로마4: 로마제국 시민 사도바울

또한 매 과마다 일년일독통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교재의 빈칸을 채우게 함으로 학생들이 성경의 내용과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사진은 연구자가 숙제로 기록하고 제출한 한 부분이다.



이처럼 CBS바이블칼리지 통(通)성경학교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통성경학교에서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인터넷 강의로 들을 수 있었다. 조병호의 직접강의가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강의 49강의 ‘잠간의 징계’ 부분에서는 예레미야 70년 이야기를 논문형식으로 공부해본다. 서론은 다니엘 1장, 본론은 에스겔, 결론은 에스라 1장이다.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경영과 멀어질 경우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순차적으로 3단계 징계를 내리셨다. 1단계는 흉년(레 26:20), 2단계는 수탈(레 26:25), 3단계 징계는 포로로 끌려감(레 26:34)이었다.⁹⁶ 이러한 정리가 설교를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조병호는 이러한 것들을 교재에 잘 표현해 놓았다. 일부분을 실어보면 다음과 같다.

⁹⁶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어드밴스북 2*(서울: 통독원, 2017), 215.

왕정 500년

- * 논문 제목
- * 서론 -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
 - 1) 서론 - 다니엘 1장
 - 2) 결론 - 에스라 1장
- 1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 남유다의 마지막
 - 1) 유대왕이었던지
 - 2) 유대왕이 아닌지
 - 3) 유대왕이 아닌지
 - 4) 유대왕이 아닌지
- 2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
 - 1) 1차 포로
 - 2) 2차 포로
 - 3) 3차 포로
 - 4) 4차 포로
- 3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 4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 5 오바디아 사역
- * 결론 - 한 사람의 순종

제사장 나라의 위기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번제, 안식일, 안식년, 소제, 화목제, 희년,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오순절)

1. 제사 2. 절기 3. 명절

- 제사장 나라 경영과 멀어질 경우

- * 레위기의 3단계 징계
 - 1단계 징계 - 흉년 (레 26:20)
 - 2단계 징계 - 수탈 (레 26:25)
 - 3단계 징계 - 포로로 끌려감 (레 26:34)

왕정 500년

- * 논문 제목
- * 서론 -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
 - 1) 서론 - 다니엘 1장
 - 2) 결론 - 에스라 1장
- 1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 남유다의 마지막
 - 1) 유대왕이었던지
 - 2) 유대왕이 아닌지
 - 3) 유대왕이 아닌지
 - 4) 유대왕이 아닌지
- 2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 -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
 - 1) 1차 포로
 - 2) 2차 포로
 - 3) 3차 포로
 - 4) 4차 포로
- 3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 4 예레미야의 희망 노래
- 5 오바디아 사역
- * 결론 - 한 사람의 순종

•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

1) 서론 - 다니엘 1장

- ① B.C.605년 바벨론 1차 포로 →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 ② 특별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
- ③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

2) 본론 - 에스겔

• 본격적인 예레미야 70년

- ① B.C.598년 바벨론 2차 포로 :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율동한 기술자 1만 명 그발 강가에 강제 이주시켜 강제 노역에 동원
- ② 예루살렘 멸망 후 B.C.586년 빈천한 자의 3차 포로 :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 ③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겔의 설득 :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재교육

3) 결론 - 에스라 1장

• 예레미야 70년의 끝

- ① 바벨론 제국 멸망 후 페르시아의 파견으로 B.C.537년 1차 귀환
- ②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1차 귀환자 → 지도자 스룹바벨, 귀환자 49,897명
- ③ 예루살렘 성전 기명 5,400점 반환

본 연구자는 일년일독통독성경, 통성경길라잡이, 마음과 생각, 통성경학교, CBS바이블칼리지와 같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다.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고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읽고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며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설교할 수 있었다. 또한 내러포(Narraphor)의 방식으로 설교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것은 다음 제 V장의 실행과정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1.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2. 역사순서대로 매일 한 장씩 큐티하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큐티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3. 통성경 프로그램(통성경길라잡이, 마음과 생각, 통성경학교 등)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제 V 장

실행과정

통성경학교

본연구자는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통성경학교는 10주 과정이며 본 교회에서는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가을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로부터 1년 동안 통성경길라잡이 교재로 성경을 통독하며 공부한 청년들도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중복되어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대상자, 조사지역, 표본크기, 조사방법, 표본 추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창원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0~30대의 청년들을 주축으로, 통독원에서 위탁 받고 본 교회에서 실시한 통성경학교 2~3기에 참여한 청년들이다. 이 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의 기본 설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3> 설문조사 개요 1

구 분	청년대학부 (20~30대)
조사 대상자	통성경학교 참여자
조사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표본 크기	12명
조사 방법	인터뷰, 설문지
표본 추출	통성경학교에 참여하였고 지금까지 새순교회 청년대학부에 출석하는 청년

조사내용

다음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들이다. 5명의 청년들의 내용을 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00, 남, 33세, 직장인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좋았고, 성경을 66권을 하나의 스토리형식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어, 나의 머리와 마음속에 성경이라는 작은 절대로 찢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작은 주머니가 생긴 것 같다.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스토리형식으로 이해하게 되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조금은 알게 되어서 어떤 부분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의 이해를 통해 성경을 쓴 사람(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서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역사적 순서로 읽으니 더욱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스토리식으로 알게 되어 마치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과 재미가 생겼다.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연약하여서 아직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 고통, 외로워하심 등의 감정)하려고 함으로 인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심에 감사하며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다.

6) 성경줄기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노래로 외우게 되니 좋았고, 머릿속 깊숙이 들어가서 잘 잊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 이해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성경 밖의 역사였던 것이 머리속에 남게 되니, 구약 후반부(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등)의 이해가 쉬웠고, 특히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 해석의 말씀에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깨닫게 되었다.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조금 더 나의 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중심의 기도로 바뀌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깨닫고, 신뢰하는 믿음이 커졌다.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들려주겠다. 세상적인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 대신에 성경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용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몇 번 성경의 스토리를 불신자에게 들려줬을 때, 의외로 굉장히 흥미로워 했던 기억이 난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변사람(불신자)에게 스토리를 들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다.

2. 하00, 여, 21세, 대학생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이제껏 주제별로 혹은 특정 인물의 전기처럼 알고 있던 성경이 흠어져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이 역사 순으로 맞춰지며 깔끔하게 정리되는 듯했다. 그리고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공과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곁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풍성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이 유익했다.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동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웠다. 전에는 딱딱하고 나와는 멀게만 느껴졌으나, 통성경 학교에 참여하면서 어떤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동안의 역사와 바벨론-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동안의 이스라엘의 상황, 선지자들의 예언, 성전 재건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솔직히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어떤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전했는지 등을 알게 되니까 전과 같은 부분을 읽어도 훨씬 쉽고 빨리 이해가 된다.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처럼 예전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때보다 더욱 잘 이해가 되었다.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2번 답변과 같다.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6.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5,6번 같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 그냥 한 번 쓱 읽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노아의 때에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에는 얼마나 슬프시고 마음이 찢어지셨을지 등을 묵상하게 되었다. 또 선지자, 족장, 사사, 왕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열방을 향해, 또 나를 향해 그 사랑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읽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느끼니까 성경 읽는 것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읽고 싶어지고, 더 깊게 읽게 되어졌다.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구약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었는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를 알고 나니 설교가 깊게 들리고 성경이 술술 읽혔다. 또 모세, 다니엘, 에스더, 바울 등 인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알았지만, 5대제국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면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자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의 큰 줄기로 정리가 되었다.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큰 변화는 없으나 과거에는 특정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통성경 학교에 참여한 후에는 구절만 붙들지 않고 좀 더 거시적으로 성경을 보려하고 기도하려 하게 되었다.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하겠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학교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다. 비록 어려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6장 6,7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강론할 때에 통성경 학교를 하며 배운 성경줄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신자들에게 5대제국 이야기를 전해도 좋겠지만 전도할 때는 조금은 단순무식하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관계 전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교제하며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여 겨우 교회문턱까지 데려와도 설교가 힘들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았고 몇 번 직접 겪기도 했다. 현실이 각박하여 어쩌면 위로와 안식을 받으려고 예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5대제국이니, 선지서니, 예언서니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싶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현상,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에게는 내가 통성경 학교를 하기 전보다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근거를 대며 풍부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듯하다.

3. 정00, 남, 27세, 신학생

-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성경의 전체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전에는 읽어도 권별로 파편적으로 읽었던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통섭적으로 읽을 수 있다.
-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전체 배경을 아니까 설교가 더 쉽게 들린다.
-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다,
-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
- 6)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성경의 맥을 잡았다.
-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선지서나 역사서, 사도행전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성경에서 행한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송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반드시 해야겠다.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남의 나라 역사를 모두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4. 이00, 여, 35세, 직장인

-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성경을 역사순으로 체계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익했다
-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본문의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 더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을 때 더 귀에 잘 들어와서 설교이해가 좀 더 쉬워진 것 같다
-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건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지고 특히 바울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6)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제국과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더욱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말씀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자녀들과 함께 통성경학교를 들으면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내 입으로 스토리를 말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5. 배00, 남, 28세, 취업준비생

1)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역사순으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점에서 성경의 흐름을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음.

2)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성경만으로 알기 힘든 당시의 역사적 상황, 문화 등을 함께 배우게 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음.

3)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 역사순으로 큰 그림을 한 눈에 보는게 통성경의 핵심인데 이후 설교에서도 배경이나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음. 설교에서 통성경을 통한 역사적 부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잘 어우러진다면 약하고 죄인 된 자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에 나침반이 되길 바람.

4)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서대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기존의 성경순서에서 적은 부분이었지만 오랜 시간을 건너뛰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알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생각되나 역사순으로 읽으면 해소된다고 봄.

5)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 개인적으론 통성경학교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기도 했어서 잘 모르겠음. 통성경학교와 연관하기 힘들.

6)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쉬운 표현, 중심되는 이야기들을 풀어냈기에 성경 읽기 전, 후 한 번씩 읽어본다면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됨. 참고서로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됨.

7)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구약의 역사에서 제국은 떼놓을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고 당시 삶의 주류이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민족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았을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음.

8)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경으로 기도하는가?

- 통성경학교와 기도생활을 연결시키기는 아직 스스로가 많이 부족함.

9)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 당연함. Family School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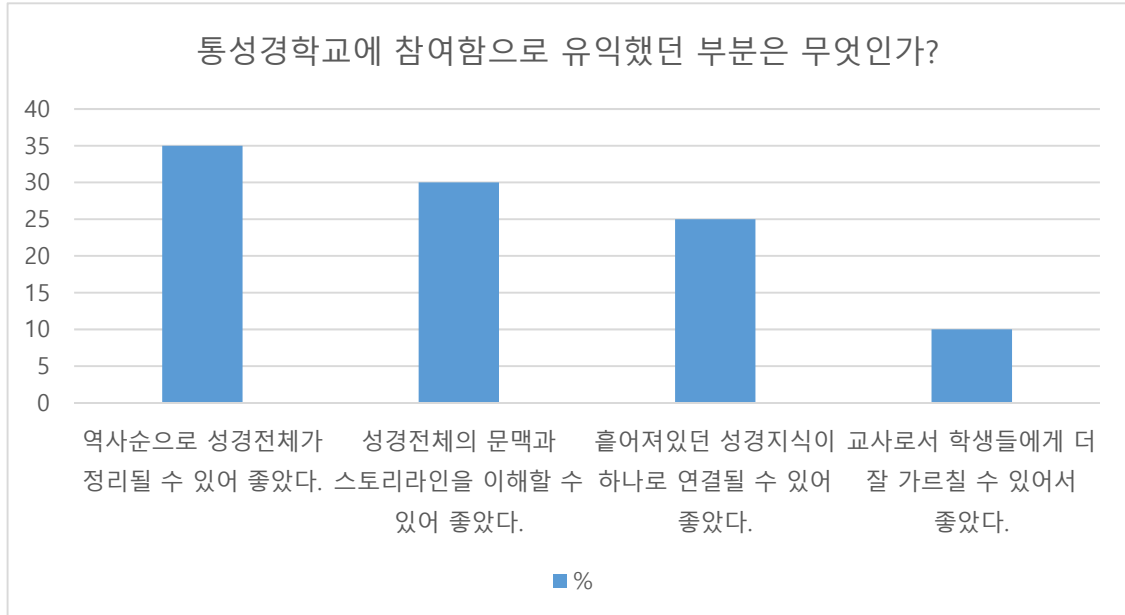
10)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 나 스스로 부족하여 아직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음.

도표제시

설문의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24>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을 묻는 질문이다.

<표24> 통성경학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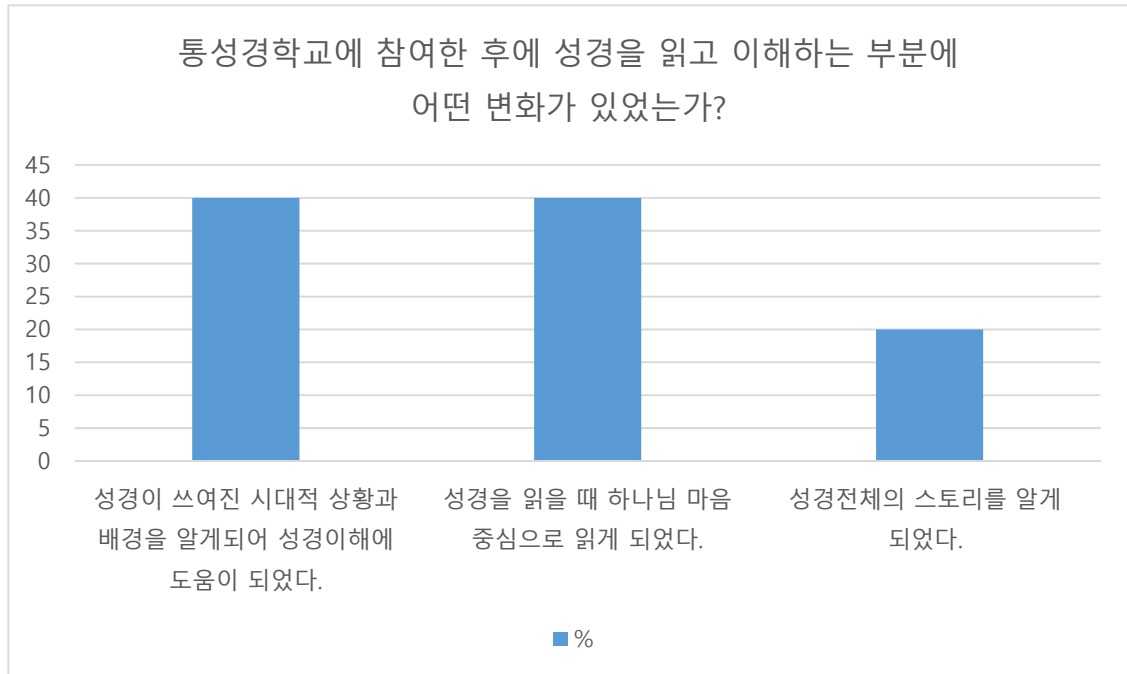
첫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유익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다. 10주 과정인 통성경학교에 청년들이 참여함으로 본인에게 어떤 점이 가장 유익 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역사순으로 성경 전체가 정리될 수 있어서 좋았다’ 는 응답(35%)이었다. 그동안 청년들은 기존의 편집순으로 정리된 성경책을 읽어왔다. 편집순으로 된 성경은 역사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장르와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전체의 문맥을 알 수 없고, 역사적 흐름이 섞이기 때문에 성경이야기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전체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성경학교에서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 편집된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청년들은 통성경학교 10주 과정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성경전체의 문맥과 스토리라인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는 것(30%)이다.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40개의 줄기로

성경이야기를 정리함으로 성경전체의 문맥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병호는 40개의 줄기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함으로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¹ 성경 전체를 이야기 흐름으로 정리함으로써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야기 형식으로 성경말씀을 전함으로 유익하다. 세 번째는 ‘흩어져 있던 성경 지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 좋았다’는 것(25%)이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청년들은 20~30년동안 수많은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일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성경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됨으로 청년들은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배우고 이야기로 배우고 훈련함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대답이다(10%). 새순교회 청년들 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다.

두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이다.

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98.

<표25> 통성경학교 후 성경읽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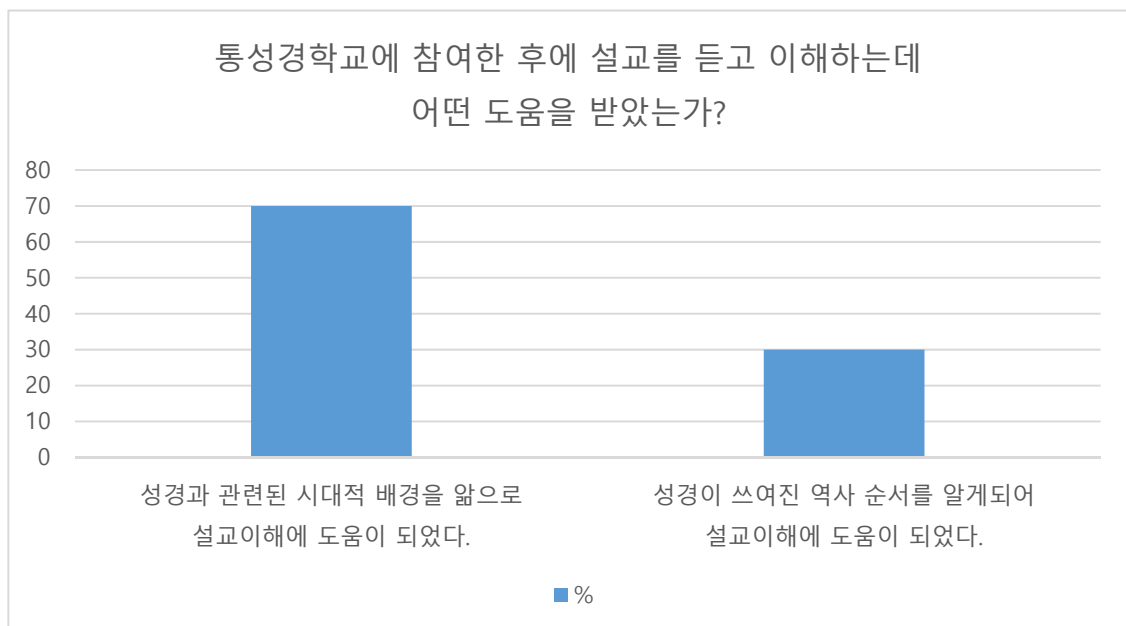


두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 10주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변화를 묻는 질문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되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40%)고 말했다. 그 동안 청년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관련이 있는 이집트와 5대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해 배우고,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역사에 대해 배움으로, 통성경학교 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답변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읽게 되었다’ 는 것(40%)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다.² 그 동안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읽고 분석적으로 읽어왔던 경향이 있었는데, 통성경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읽게 한다. 청년들은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였고, 그 영향으로 통성경학교 후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읽는 습관이 생겼다고 답변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영적 유익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세 번째 답변은 통성경학교 참여한 후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전체의 스토리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20%).

세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후에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다.

<표26> 통성경학교 참여 후 설교이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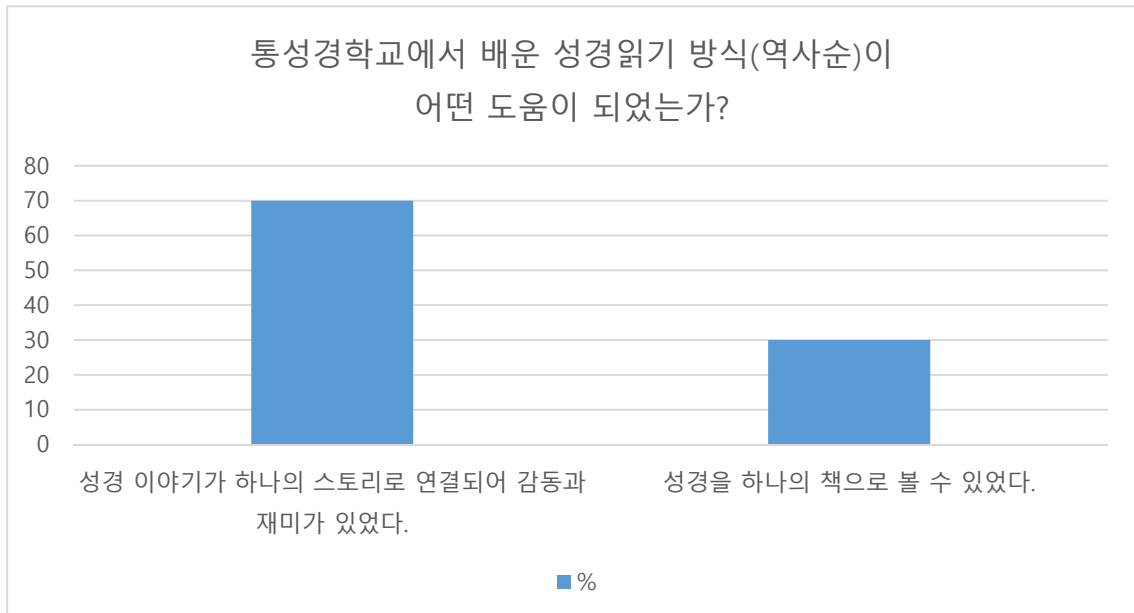


²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77-88.

청년들이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성경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됨으로 설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70%에 달했다. 이것은 그동안 그만큼 청년들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각 성경의 역사적 순서를 알게 되어 설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30%이었다. 역사적 순서를 알고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읽기(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표27> 역사순 성경읽기 방식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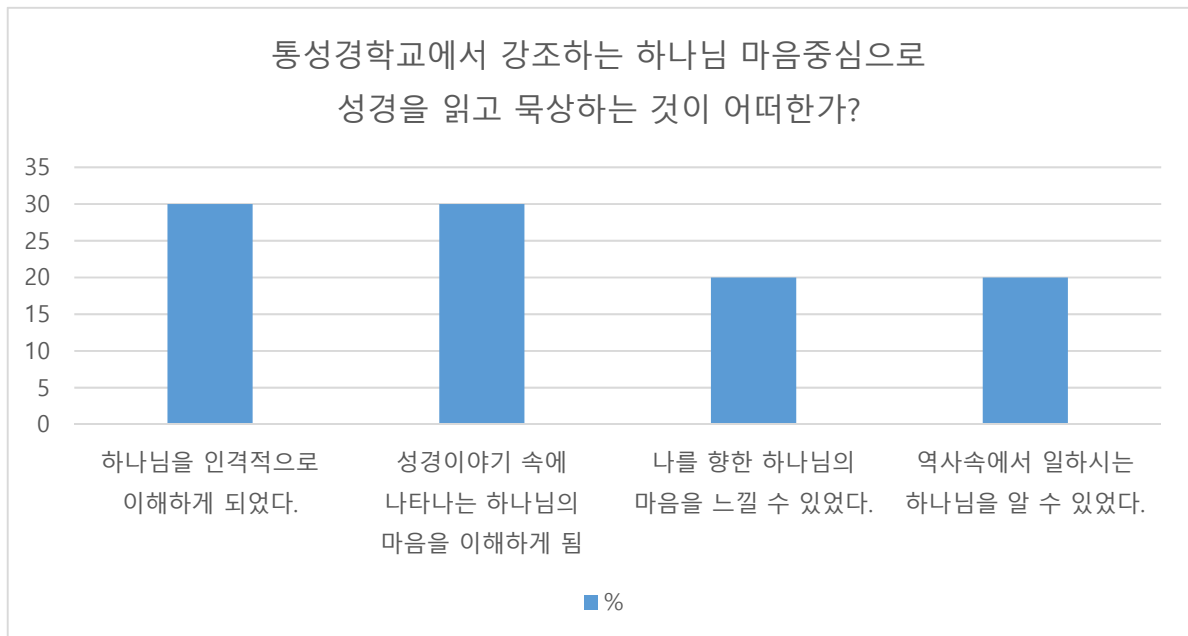


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으로 편찬한 조병호의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청년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감동과 재미가 있었다고 답변하였고(70%),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30%).

다섯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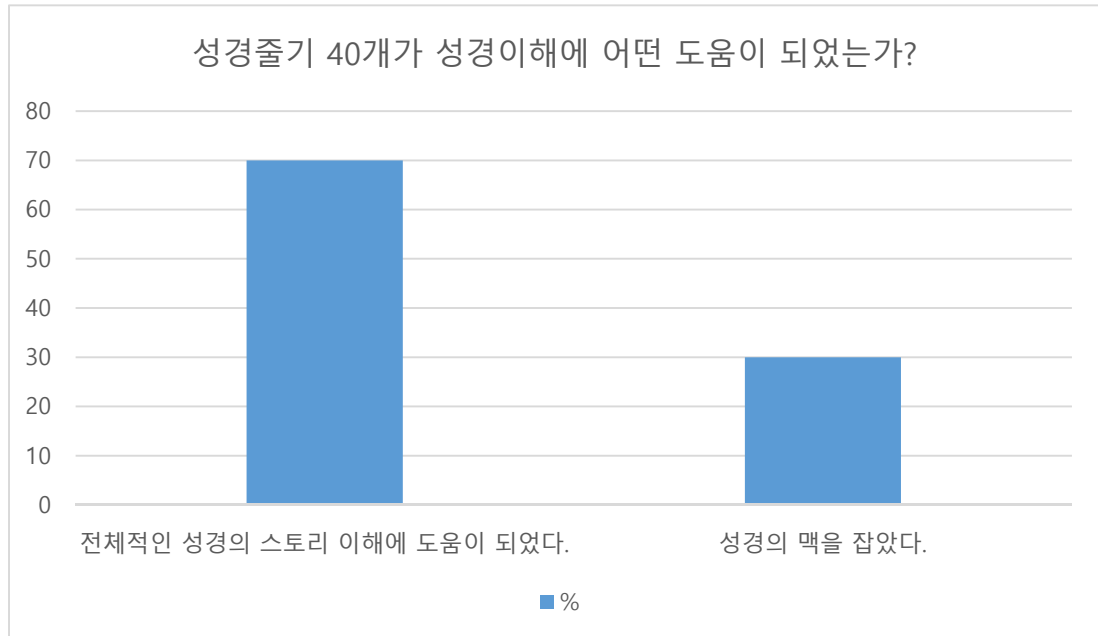
<표28>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



통성경학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하였고(30%),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였고(30%),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20%),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20%)고 답변하였다.

여섯 번째 질문은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표29> 성경줄기 40개(통성경길라잡이)의 성경이해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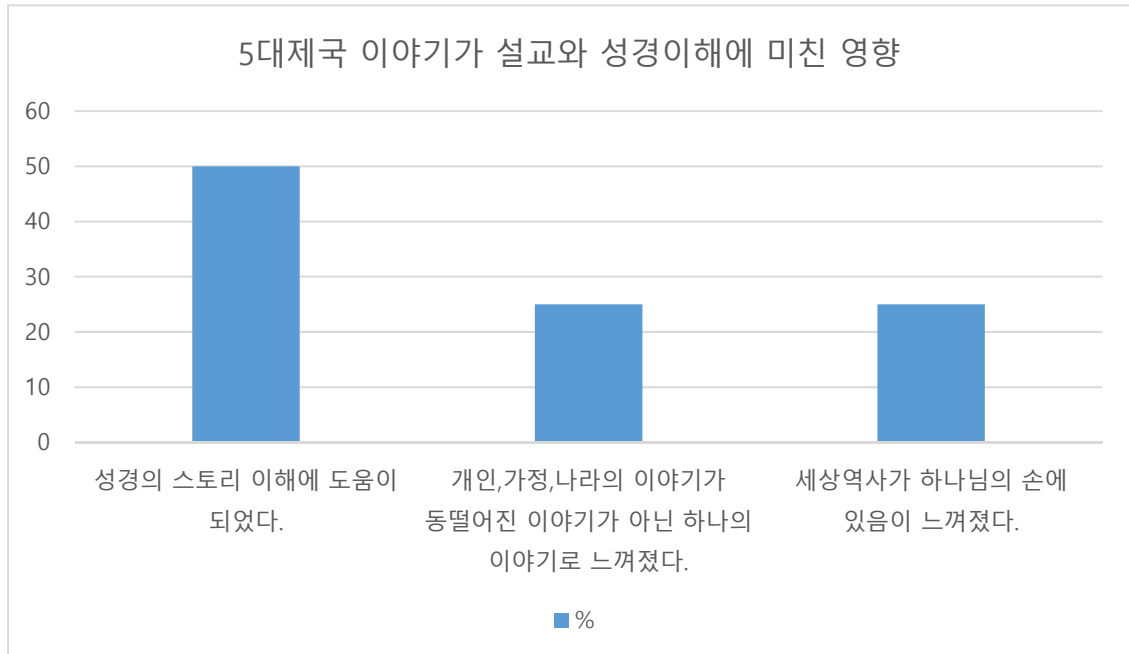
통성경학교의 10주 과정 중에 절반인 5주 분량이 성경줄기에 대한 강의이다.

조병호는 성경전체 내용을 40개의 제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³ 청년들은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전체의 내용을 40개의 제목으로 외우며 성경줄기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은 성경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었고(70%), 성경의 맥을 잡게 되었다(30%)고 답변하였다.

일곱 번째 질문은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³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7.

<표30> 5대제국 이야기가 설교와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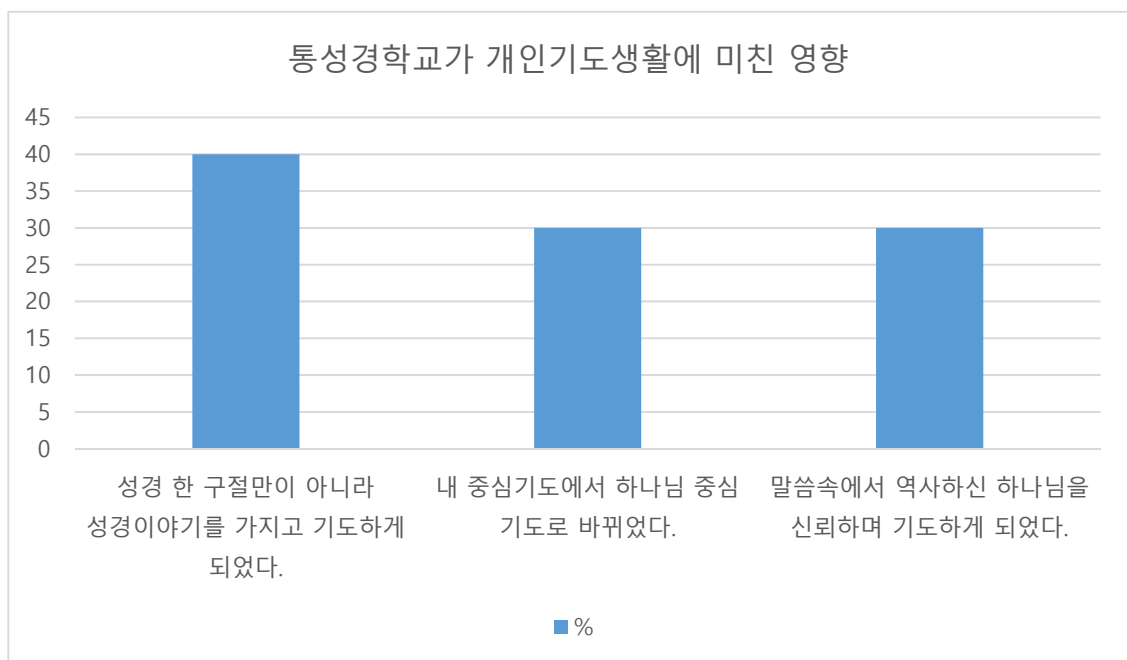
조병호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5대제국에 대해 설명한다.⁴ 5대제국은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이다. 구약성경은 (이집트), 앗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신구약중간사는 헬라제국, 신약성경 전체는 로마제국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집트는 온전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제국을 꿈꾸었던 나라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었다. 청년들은 5대 제국의 기본 사상과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5대제국과 유대인, 5대제국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며 그들의 성경 이해의 폭을 넓혔다. 가장 많은 응답은 5대 제국에 대해 배움으로 성경의 스토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50%)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개인과 가정, 나라의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通)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야기라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25%). 그리고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⁴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212.

손에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25%).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심지어 제국도 사용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 참여 후에 기도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였다.

<표31> 통성경학교가 기도생활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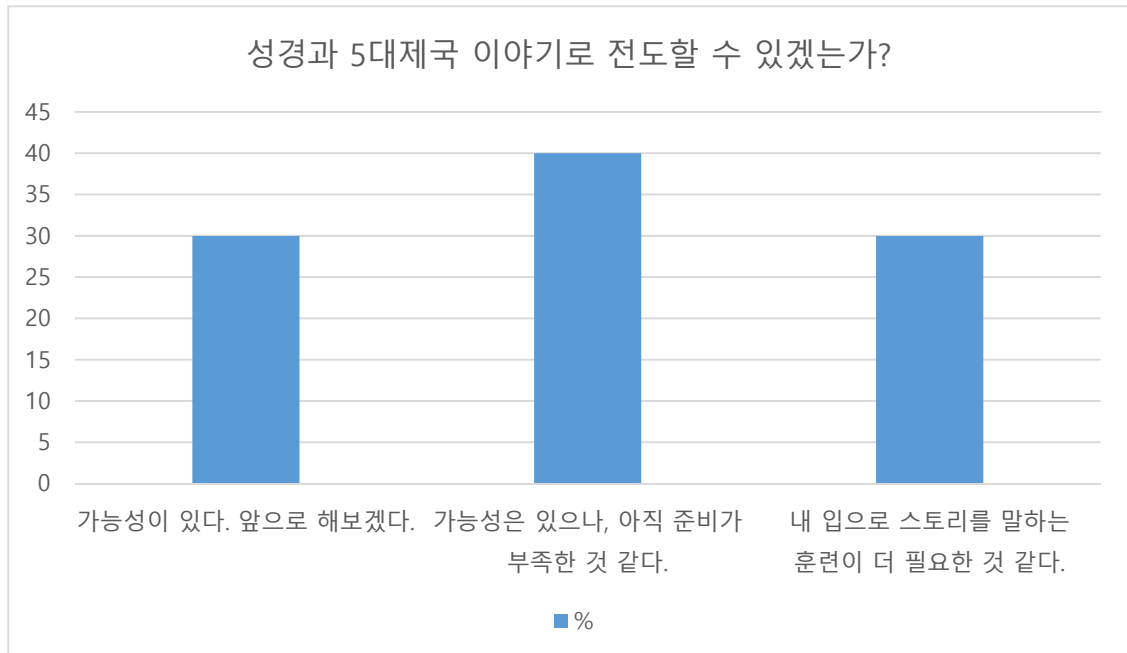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은 성경을 통한 기도를 배우게 된다. 성경 속 여러 기도의 모델이 있겠지만, 조병호는 12가지의 모델을 제시한다.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와 묵상, 모세의 기도와 묵상, 한나의 기도와 묵상, 다윗의 기도와 묵상, 솔로몬의 기도와 묵상, 예레미야의 기도와 묵상, 느헤미야의 기도와 묵상, 예수님의 기도와 묵상 3가지, 시므온의 기도와 묵상, 바울의 기도와 묵상이다. 청년들은 성경을 통한 기도를 배움으로 이제는 성경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풍성하게 기도하게 되었고(40%),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었고(30%),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었다(30%)고 응답하였다.

아홉 번째 질문은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면 Family School을 하겠는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는가?’ 였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가 100% 였다. 모든 응답자가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성실히 들려주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은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였다.

<표32>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와 전도



통성경학교의 10주 마지막과정은 ‘Family School: 이야기 전도’ 이다.

지금까지 배운 성경이야기와 5대 제국이야기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다. 여기에 청년들은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통성경학교는 한 번만 하는 학교가 아니고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40%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고 대답하였고, 30%는 ‘내 입으로 스토리를 말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30%만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해보겠다고 답하였다.

결과분석

전체적으로 통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음으로 성경의 흐름이 연결되어 좋았고,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했다. 그동안 파편화 되어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병호가 말하는 통의 개념과도 잘 연결된다.⁵ 그리고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생겨서 좋았다고 했다. 성경과 5대제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성경에 대한 배경지식과 역사적 사실을 앞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고 대답했다. 개인과 가정, 나라 이야기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왔다고 답했다. 더불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느껴졌다고 답했다. 또한 ‘통성경길라잡이’ 로 성경을 통독하고 20개의 마당과 40개의 줄기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성경의 맥을 잡고, 전체적인 성경

⁵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1.

스토리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설교이해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기도생활에 있어서도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니, 기도가 더 확실하고 풍성하다고 답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는 통성경학교에서 배운 성경을 통(通)한 기도가 청년들의 기도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어릴 때부터(5세부터 20세까지)들려주는 Family School을 하겠다는 대답이 100%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성경학교에서 청년들이 참여하여 성경을 배움으로 앞으로 결혼하여서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성실히 가르치겠다는 다짐이라고 여겨진다.⁶

마지막 질문은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겠는가?’ 였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나타났다. 이점은 통(通)성경학교를 함으로 더 훈련하고 반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여겨진다.

통성경을 통한 청년설교

본 연구자는 청년들에게 마음과 생각 큐티 본문을 따라 설교한다. 매주 일주일 치 분량 즉 역사순서대로의 일곱 장의 성경 가운데서 한 장을 택하거나 몇

⁶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신명기 11장 19절)

장을 택하여 설교한다. 그럼으로 인해 청년들의 설교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할 본문은 그 주간에 청년들이 큐티를 통해 묵상했던 본문이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질문으로 설문을 했는데 대상자는 연구자로부터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주간의 큐티와 삶을 나누고 조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대상이었다.

<표33> 설문조사 개요 2

구 분	청년대학부 (20~30대)
조사 대상자	청년대학부 회원들을 이끄는 조장 6인
조사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표본 크기	6명
조사 방법	인터뷰, 설문지
표본 추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연구자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큐티와 삶을 나누는 리더들

조사내용

조사 대상자 중에 2명의 내용을 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00, 여, 35세, 직장인

1.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성경이야기 예시에서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 생각 할 수 있어서 이해가 더 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2. 역사순서대로 매일 한 장씩 큐티하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큐티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한주동안 본문을 깊이 읽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 할지 생각해 본 후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적용점과 내가 생각 했던 부분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같다

3. 통성경 프로그램(성경통독, 통성경학교, 통성경길라잡이, 마음과 생각 등)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오OO, 남, 33세, 직장인

1.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남들보다 쓰여진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이해되므로, 큰 거부감이 없었고, 필자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설교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용이했다.

2. 역사순서대로 매일 한 장씩 큐티하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큐티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꼭 설교자가 말씀의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조금 더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큐티할 때 이해하지 못한 본문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는데 설교자가 해석해주심으로 인해 굉장한 흥미와 깨달음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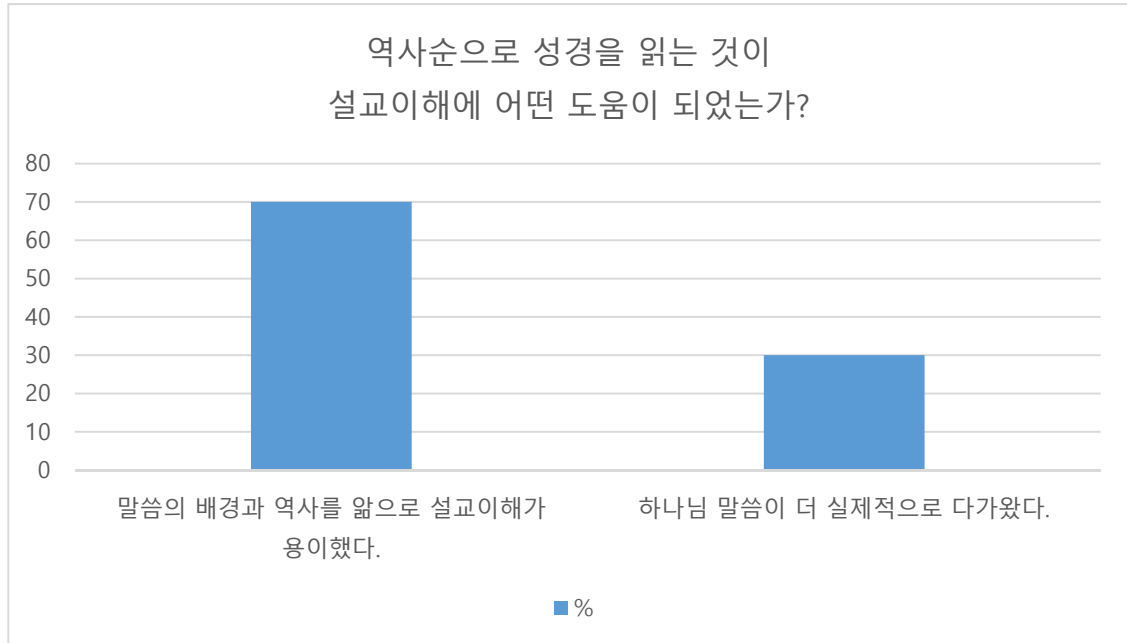
3. 통성경 프로그램(성경통독, 통성경학교, 통성경길라잡이, 마음과 생각 등)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본문의 말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이해되므로 조금 더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반면에 설교자의 설교에 따라 궁금한 부분이나, 호기심 등이 더욱 많아졌다.

도표제시

첫번째 질문은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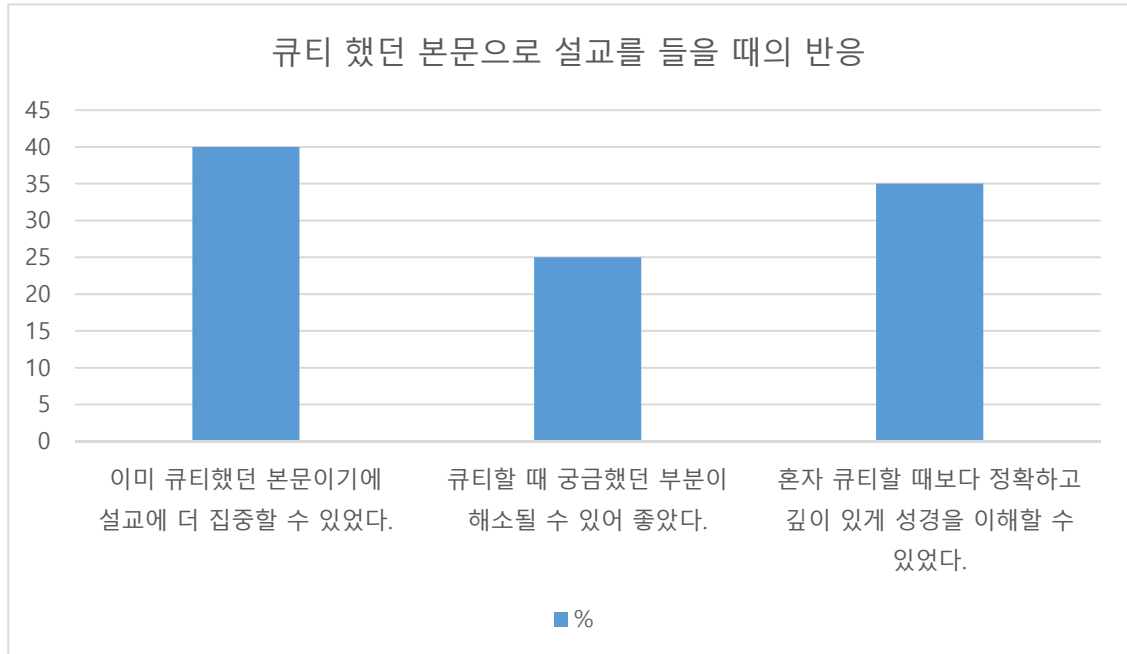
<표34> 역사순 성경읽기와 설교이해



설문과 인터뷰에 응답한 청년들의 약 70%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시간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니 몰랐을 때보다 설교 이해가 빨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약 30%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다고 대답했다.

두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 큐티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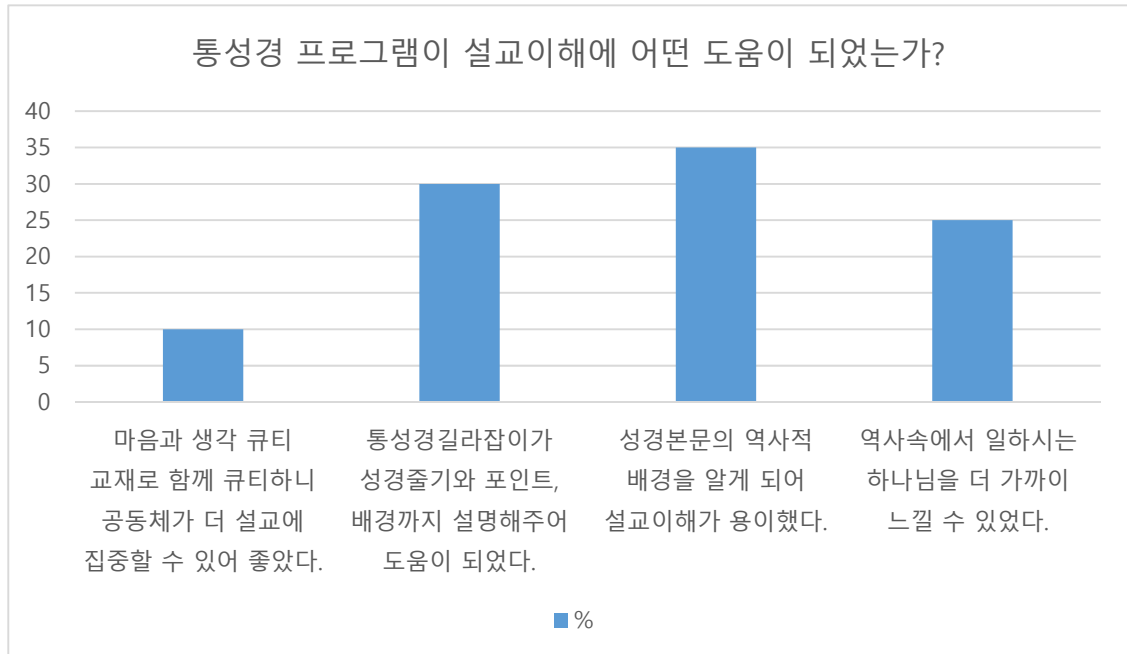
<표35> 한주간 큐티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의 반응



본 연구자는 역사순으로 편집된 ‘일년일독통독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큐티집 ‘마음과 생각’의 본문을 따라 매 주일 설교한다. 연구자가 섬기는 청년들도 같은 본문으로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고 연구자로부터 설교를 듣는다. 그렇기에 위의 표는 큐티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본인들이 이미 큐티했던 본문이기에 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대답이 약 40%로 나타났고, 큐티할 때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 좋았다가 25%, 혼자 큐티할 때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35%였다. 이로 보건대 전체적으로 이미 본인들이 큐티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통성경 프로그램이 설교이해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이다.

<표36> 통성경 프로그램과 설교이해도



청년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하고, 통성경길라잡이로 성경줄기를 공부하고, 통성경학교에 참여함으로 설교이해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설교본문(성경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어 설교이해가 용이했다는 응답이 35%였고, 통성경길라잡이로 성경줄기를 공부함으로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설교이해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성경프로그램으로 역사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는 응답도 25%로 나타났다. 나머지 10%는 공동체가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큐티한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니 공동체가 함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결과분석

위의 도표제시와 설명으로 보면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성경본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이해가 빨랐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이미 큐티 했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자서 큐티 할 때 몰랐던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더 깊은 묵상이 되었다고 답했다.

전체적인 통(通)성경 프로그램(성경통독, 통성경학교, 마음과 생각 큐티, 통성경길라잡이 등)이 설교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장점들이 설교이해를 용이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제 VI 장

요약과 결론

요약

제 I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의 동기는 요즘 교회마다 청년들이 감소하고 또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이유가 청년들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특별히 통(通)성경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핍박이나 유혹을 받으면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통성경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논문의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 경남 창원에 위치한 새순교회 청년대학부(20-30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通)성경의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이해와 청년대학부 목회의 성경적, 상황적, 실천적 이해를 각종 문헌자료와 연구자의 목회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통성경과 청년대학부 사역의 실재를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청년 소그룹 성경통독모임, 통독큐티 마음과 생각을 통한 청년 소그룹모임, 통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 통(通)성경을 통한 청년설교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통(通)의 개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이론화한 조병호의 책과 그와 관련된 문헌자료들을 연구하였고, 청년대학부 사역은 관련문헌자료들과 본 연구자의 목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현재 통독원에서 진행중인 통성경프로그램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통성경길라잡이’를 활용한 소그룹 성경통독, 통독큐티 ‘마음과 생각’을 활용한 큐티와 소그룹 모임, ‘통(通)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通)성경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의 성경과 설교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이어서 본 논문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제 II장은 통(通)성경의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 이해를 다루었다. 먼저 성경적 이해에 있어서 통(通)성경이란 시간·공간·인간을 통으로, 개인·가정·나라를 통으로, 제사장나라·5대제국·하나님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읽기의 성경적 배경과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통성경읽기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총체적인 이해로 바라보는 성경읽기를 의미한다. 통성경의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는 통(通)의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였다. 통(通)신학이란 ‘통(通)’과 ‘통(通)으로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해석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성경통독’은 통(通)신학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신학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숙지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을 상보적이고 유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은 성경통독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성경통독이란 첫째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는 것이다. 셋째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통(通)성경의 목회적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섯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 III장은 청년 목회의 이해로 성경적, 상황적, 실천적 이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성경적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의미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청년들의 예를 설명하였다. 두번째, 상황적 이해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임을 언급하고, 청년들의 현재 상태를 에릭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비추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의 종교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세번째, 실천적 이해에 있어서는 청년 소그룹 모임의 특징과 장점, 대그룹모임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새순교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대학부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언급하였다.

제 IV장은 통성경과 청년 사역이다. 첫번째는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한 청년 소그룹 성경공부이다. 책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실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교재의 장점들을 설명하였다. 두번째는 통독큐티(마음과 생각)를 통한 청년 소그룹모임이다. 마음과 생각 큐티집의 사용법과 다른 큐티집과 비교하여 마음과 생각의 장점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느꼈던 점을 설명하였다. 세번째는 통성경학교를 통한 청년들의 심화학습인데, 10주과정의 통성경학교에 1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통성경학교의 Pre STEP 1,2단계와 STEP1,2,3,4,5단계를 소개하였다. 네번째는 통성경을 통한 청년설교인데, 성경적인 바른 설교상을 언급하고, 통설교의 장점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V장에서는 IV장에서 실행한 내용을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론

요즘 한국에 청년들을 3포 세대 (三抛世代)라 부른다.¹ 그만큼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들도 이 세대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과 같이 아파하고 좌절하는 것일까? 본 연구자는 그것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성경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² 그들 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그들 속에 성경이야기가 없다. 단지 형식적인 예배와 교회생활만이 있을 뿐이다. 해결책은 그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 깊이 파고들고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모두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¹ 2011년 경향신문의 특별취재팀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말한다.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하였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²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후에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아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성경통독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역사순서대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장르별 편제를 따르고 있다.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따로 모으고,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한곳에 모아 놓았다. 또 분량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경읽기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시간 순서가 섞여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맥을 잡기 힘들다. 예를 들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훨씬 앞 시대 사람들인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시간 순서대로 제대로 읽는다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의 순서가 당연히 역사 순서일 것이라 생각하고 읽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 하여 읽어야 한다. 성경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연대기적으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그 당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허공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제

인생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우리도 그 역사 속에 들어가,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려면 시대적인 순서와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³ 이렇게 재배열하여 읽기 쉽도록 만든 책이 조병호 편찬한 ‘일년일독통독성경’이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과 함께 5년째 일년일독통독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 순서대로만 편집된 것이 아니라, 일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하루에 읽을 범위를 365일로 구분하여 차례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각 범위 마다 주제를 담은 본문제목과 핵심문장을 달아 놓고 있어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하루에 읽을 범위인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이 성경은 아주 유용하다. 본 연구자가 섬기는 청년대학부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섯 번의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는 선물이 조병호가 편찬한 일년일독통독성경이다. 새순교회 청년대학부는 일년일독통독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V장에서 설명하였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역사순서대로 읽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조병호가 편찬한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책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의 말씀을 큐티본문으로 정한다. 이 책의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 3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돕고 있다. 매일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적어보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³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6.

하나님의 마음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도록 이끈다. 조병호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각 권과 각 장마다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을 읽게 함으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과 매주 주말에 모여 이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통성경길라잡이’라는 책으로 1년간 청년리더들과 함께 성경을 40개의 줄기로 공부하였다. 이 교재는 소그룹 성경통독교재이다. 여기에서도 매 과를 마칠 때마다 이 과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심정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돕는다. 조병호는 말한다.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 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⁴ 성경 전체를 부지런히 통독함으로써 성경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다. 성경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보이고,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의 경륜과 마음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⁵ 성경통독의 목적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까지 나아가는데 있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⁴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通)성경학교*, 72.

⁵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7.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교재와 20개의 마당과 40개의 성경줄기로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는 통성경길라잡이는 성경의 숲과 나무를 함께 보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 가운데 그 책과 각 장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한다. 마음과 생각도 성경 각 장마다 숲보기와 나무보기를 통하여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한다. 통성경길라잡이도 IV장에서 설명한 대로 성경의 숲과 나무를 함께 살피도록 돕고 있다.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사건들이 이야기가 되어 빼곡히 기록된 책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사건으로 가득한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사건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통독이다. 이런 모든 사건들의 의미와 영향력과 관계는 성경통독 방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깨닫게 된다.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과 함께 통성경길라잡이를 교재로 하여 일년일독통독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였다. 또한 통성경학교에 참여한 청년들도 일년일독통독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였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는 조병호가 녹음한 음성파일로 성경을 들었다. 1.4배속으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독함으로써 그들은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게 되었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게 되었다.

통(通)성경읽기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총체적인 이해로 바라보는 성경읽기를 의미한다. 통성경읽기는 성경읽기의 파편화로 인한 폐해를 통감하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연결해 독파하는 성경읽기 방법이다. 원래 통독은 동양에서 배움과 지식연구의 과정 가운데 유용하게 사용하던 방법이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고 텍스트 전체를 통(通)으로 여러 차례 읽어가다 보면 마침내 직관(直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성경을 읽되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즉 66권 전체를 빠른 시간 내에 읽는 성경통독을 한 번, 두 번, 더 나아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직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통(通) 성경읽기의 창시자 조병호는 통 성경읽기를 통한 다음 세대의 교육과 전 세대의 신앙 성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조병호는 5세부터 20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에게 쉽고 재미있으며 연속적인 이야기로 전달되는 통(通) 성경읽기 방법을 통한 성경교육을 강조한다.

본 연구자는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적 시대흐름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통(通)성경읽기를 교육적 도구의 하나로 제안한다. 이 시대는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객관적 진리보다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진리인 말씀인 성경 자체를 청년들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기도도 이러한 통(通)성경이 바탕이 된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경 이야기와 기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야기를 가지고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이기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믿음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경을 통(通)한 기도를 해야 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지식과 기도가 합해질 때,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힘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청년들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중에 그 대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자는 통(通)성경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고 다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청년들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통(通)성경프로그램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청년들에게 일년일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통성경길라잡이로 성경줄기를 가르쳤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성경의 맥을 잡게 되었다. 성경의 배경지식과 5대 제국에 대해 배움으로 성경과 설교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일년일독성경의 순서를 따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본문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함으로써,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성경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은 10주 과정의 통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심화학습을 통해, 역사순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성경전체의 문맥과 스토리라인을 이해하고, 흩어져 있는 성경 지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살펴보면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성경말씀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연결되도록 들려주는 것은 역사순 성경통독을 바탕으로 한 통(通)성경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진다.

끝으로 한 번의 통성경학교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성경과 5대제국 이야기로 확신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도 자녀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는 Family School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1. 일년일독 통독성경 범위와 주제, 핵심내용

일정/통독범위	본문제목	핵심내용
1/1(1일) 창 1~2장	천지창조-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도를 펴시며 기뻐하십니다.
1/2(2일) 창3~5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계획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1/3(3일) 창6~9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습니다.
1/4(4일) 창10~11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민족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지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5(5일) 창12~14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순종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에 대한 아브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6(6일) 창15~17	아브람의 기다림	아브람은 자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1/7(7일) 창18~21	복의 통로 아브라함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8(8일) 창22~24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요구사항 자체보다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친구가 됩니다.
1/9(9일) 창25~27	이삭의 양보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을 양보하는 이삭의 삶의 방식은 그를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1/10(10일) 창28~30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	하나님의 언약은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1/11(11일) 창31~33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20년의 하란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1/12(12일) 창34~36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야곱을 벧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거듭 약속해주십니다.
1/13(13일) 창37~38	요셉의 고난과 꿈	하나님께서서는 영문 모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간직한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분의 큰 경륜을 이루어가십니다.
1/14(14일) 창39~41	총리 요셉	고난을 연단과 훈련의 시기로 여길 줄 알았던 지혜로운 요셉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1/15(15일) 창42~44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더욱 근원적인 형제 갈등 해결을 위해 형들을 시험합니다.
1/16(16일) 창45~47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과 요셉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의 가족 전체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1/17(17일) 창48~50	야곱의 유언과 죽음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의 예행연습이었으며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1/18(18일) 출1~2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애굽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1/19(19일) 출3~4	하나님의 모세 선택	80년의 기간을 거쳐 준비된 모세에게 출애굽의 청사진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며 선택하십니다.
1/20(20일) 출5~7	모세와 바로의 협상시작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와 완강한 바로 사이의 협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1/21(21일) 출8~10	모세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서는 6개월간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바로를 선택하셨지만,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끝내 협상은 결렬됩니다.
1/22(22일) 출11~13	유월절을 기념하라	마지막 징계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종살이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23(23일) 출14~15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1/24(24일) 출16~18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않는 광야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1/25(25일) 출19~20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시내 산에 당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사명을 제안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1/26(26일) 출21~23	공동체를 위한 삶의 기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1/27(27일) 출24~27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성막	홀로 시내 산 위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1/28(28일) 출28~29	제사장 직분의 위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말씀하시고, 이어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도 알려주십니다.
1/29(29일) 출30~31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분향단과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주시고, 그 일에 헌신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1/30(30일) 출32~34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는 모세의 기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백성을 위해 모세는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1/31(31일) 출35~38	풍성한 자원과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에 따라 만들어질 성막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소중한 소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2/1(32일) 출39~40	성막의 완성과 봉헌	성막이 6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완성되고 봉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정성이 담긴 진한 땀방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2/2(33일) 레1~5	더 깊은 만남을 위한 다섯 가지 제사 절차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절차로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2/3(34일) 레6~7	제사의 규례	생명의 희생을 기반으로 더 깊고 소중한 만남을 제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외적 조건인 제사의 규례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2/4(35일) 레8~10	새로운 리더십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은 그 큰 특권만큼 중대한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2/5(36일) 레11~13	건강을 위한 배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식생활과 같은 세밀한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전하길 원하십니다.
2/6(37일) 레14~15	생명을 이한 배려	인생들의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병과 유출병 등에 관한 확인 절차와 정결법 등을 상세히 이르십니다.
2/7(38일) 레16~17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을 결정하게 될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오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2/8(39일) 레18~20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본받지 말아야 할 이방 풍속에 대해 경고하시며,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명하십니다.
2/9(40일) 레21~22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백성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돌보게 될 제사장들에게는 그 책임에 합당한 규례들을 거룩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10(41일) 레23~25	아름다운 절기문화	하나님께서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들은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약자중심, 인간 존중의 공동체로 이끄는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2/11(42일) 레26~27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2(43일) 민1~2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 편성-약속의 성취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기반 위에서 각 지파별 진영을 갖추십니다.
2/13(44일) 민3~4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열두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구별된 레위 지파들은 따로 계수되었고,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2/14(45일) 민5~6	구별과 헌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회막 중심의 진영을 갖춘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행하십니다.
2/15(46일) 민7~8	열두 지파가 드린 예물	모든 진영이 갖추어진 후, 열두 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집니다.
2/16(47일) 민9~10:10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2/17(48일) 민10:11~12	시내 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진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백성의 불평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2/18(49일) 민13~14	가나안 정탐과 출애굽세대의 선택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은 입(入)애굽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2/19(50일) 민15~17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2/20(51일) 민18~19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따른 특권과 사명을 주시고 소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2/21(52일) 민20~21	가나안에 갈 수 없게 된 모세	백성의 불평 끝에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22(53일) 민22~25	하나님 군대의 명성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모압 왕 발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2/23(54일) 민26~27	두 번째 인구조사-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시점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2/24(55일) 민28~30	거룩한 절기와 제사	이스라엘은 정해진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2/25(56일) 민31~32	모세와 요단 동편 땅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주는데, 이후 그들은 가나안 서편 전쟁의 선봉대가 됩니다.
2/26(57일) 민33~36	이스라엘의 여정과 도피성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여정을 회고하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미리 확정 받습니다.
2/27(58일) 신1~2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1	모세는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불순종을 회고하며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2/28(59일) 신3~4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2	40년 동안 불평 많은 백성을 이끌어난 모세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변화된 백성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3/1(60일) 신5~6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당부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3/2(61일) 신7~9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공훈과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3/3(62일) 신10~11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4(63일) 신12~14	다시 들려주는 율법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만나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알려주며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3/5(64일) 신15~17	절기와 송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신앙공동체로 훈련 받게 되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3/6(65일) 신18~21	약속의 땅을 위한 규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가나안 정복전쟁에 대해 미리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 땅에서 행할 규례들을 당부하십니다.
3/7(66일) 신22~26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공의를 세우는 사회입니다.
3/8(67일) 신27~28	언약에 따른 복과 저주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서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에 따른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3/9(68일) 신29~30	언약의 갱신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과거 40년 전과 현재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3/10(69일) 신31~32	역사와 미래	모세가 지난 역사를 담아 부르는 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기억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3/11(70일) 신33~34, 시90	모세의 축복과 죽음	새 시대를 열어갈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의 앞날을 축복하며 남기는 모세의 유언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는 지침이 되어줍니다.
3/12(71일) 수1~2	여호수아와 만나세대	하나님과 백성의 격려 가운데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여리고에 갔던 두 정탐꾼들은 믿음의 보고로 사기를 높입니다.

3/13(72일) 수3~5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만나세대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시대를 열어줍니다.
3/14(73일) 수6~8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여리고 성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확인해줍니다.
3/15(74일) 수9~12	이스라엘의 승전 기록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들이 5년여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3/16(75일) 수13~17	합당한 분배와 특권	이스라엘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 받고 갈렙은 자신의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어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3/17(76일) 수18~19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아직 땅을 분배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게 제2차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은 땅이 분배됨으로써 땅 분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3/18(77일) 수20~22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에게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이 주어지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기업으로 귀환합니다.
3/19(78일) 수23~24	여호수아의 유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3/20(79일) 삿1:2:10	남겨진 과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직 다 얻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는 남은 땅의 완전한 정복과 그 땅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3/21(80일) 삿2:11~5	이스라엘의 사사들	만나세대의 자녀교육 실패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3/22(81일) 삿6~7	기드온과 3백 용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드온과 3백 용사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3/23(82일) 삿8~9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이 죽자 백성은 다시 우상숭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시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3/24(83일) 삿10~12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	사사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대를 개혁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25(84일) 삿13~16	나실인 삼손	나실인으로 태어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쓰임 받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의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26(85일) 삿17~18	기초가 무너진 사회	제사장 제도가 흔들리고 정체불명의 신앙이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미가 이야기는 사회의 근본 기초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3/27(86일) 삿19~21	원칙 없는 문제 해결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간 한 사건은 사사 시대의 혼란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3/28(87일) 룻1~4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사사 시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있었던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29(88일) 삼상1~3	준비되는 사무엘	하나님께서서는 350여 년이라는 긴 불순종의 흐름을 끊고 시대를 새롭게 개혁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여 교육하십니다.
3/30(89일) 삼상4~7	사무엘의 말씀개혁운동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며 시대부흥운동을 주도한 결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31(90일) 삼상8~10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보다 좋은 제사장 제도를 버리고 왕정 제도를 고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세워주십니다.
4/1(91일) 삼상11~12	길르앗 야베스 사건과 사무엘의 고별사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운 일로 사울은 백성의 신망을 얻었고,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됩니다.
4/2(92일) 삼상13~14	사울의 블레셋 전투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지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4/3(93일) 삼상15~16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기름 부음	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다윗을 예선하십니다.
4/4(94일) 삼상17~18	다윗의 골리앗 전투승리와 요나단과의 우정	믿음과 용기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런 다윗을 알아본 요나단은 그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4/5(95일) 삼상19, 시59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다윗의 유명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

		긴 도피생활을 통해 훈련 받습니다.
4/6(96일) 삼상20~21, 시34	기도로 여는 하늘문	놉 땅을 거쳐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체하여 생명을 구한 후, 무너진 자존심을 기도로 세워갑니다.
4/7(97일) 삼상22, 시52	사울의 공안정치	모압으로 망명갔던 다윗은 유다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오고, 권력욕에 눈먼 사울의 공안정치는 더욱 심해집니다.
4/8(98일) 삼상23~24, 시57	임명권자 하나님	군사3천 명과 함께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명권을 존중하여 사울을 살려줍니다.
4/9(99일) 삼상25~26, 시54	하나님의 테스트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잠들게 하여 다윗을 시험하시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4/10(100일) 삼상27~31	망명지에 들러온 조국의 슬픈 소식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간 사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발하고,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4/11(101일) 삼하1~2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	헤브론 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평화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국가의 기틀을 놓는 데에 주력합니다.
4/12(102일) 삼하3~5:5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과 통일왕조 수립	진실한 자세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13(103일) 삼하5:6~6	예루살렘 정복과 법궤 안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 수도를 정한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로 세워갑니다.
4/14(104일) 삼하7~10	종이 된 다윗 왕	성전 건축을 소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영원히 보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감격한 다윗은 종의기도를 드립니다.
4/15(105일) 삼하11~12, 시51	우슬초 정결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책망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4/16(106일) 삼하13~14	압살롬의 암논 살해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제 암논에게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후 도망하고, 그 후 3년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4/17(107일) 삼하15, 시3	압살롬의 반역	치밀하게 준비된 압살롬의 반역에 놀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도 믿음 가운데 반역군에 대항할 전략을 세웁니다.
4/18(108일) 삼하16~17	다윗의 도피	도피 중이던 다윗은 자신을 돕거나 저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4/19(109일) 삼하18~20	다윗의 복귀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궁궐로 복귀해 사태 수습에 나서지만, 민족 내의 갈라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4/20(110일) 삼하21~22	다윗의 노래	다윗은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과거 청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21(111일) 삼하23~24	다윗의 삶의 자취	생을 마감하기 전,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인구조사 시행에 대한 잘못을 깨달은 후 진심으로 회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입니다.
4/22(112일) 왕상1~2	다윗의 유언	다윗은 아도니야의 반역을 폐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그에게 신앙적·정치적 유언을 남긴 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4/23(113일) 왕상3~4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립니다.
4/24(114일) 왕상5~7	성전 건축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착수하고, 7년간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은 후 13년간 왕궁을 건축합니다.
4/25(115일) 왕상8	성전 낙성식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이 온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4/26(116일) 왕상9~10	솔로몬의 모든 영화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큰 은혜와 풍요를 부어주십니다.
4/27(117일) 잠1~5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을 통해 지혜의 비결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4/28(118일) 잠6~9	지혜의 원리	지혜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4/29(119일) 잠10~15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구별과 대조를 통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4/30(120일) 잠16~20	지혜를 구하라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1(121일) 잠21~24	마음과 지혜	악인의 행동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헛된 탐심을 이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5/2(122일) 잠25~29	악한 길을 피하라	잠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며, 그러한 행동에서 돌이키고 경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5/3(123일) 잠30~31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모친의 잠언	아굴은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며,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의 도리를 교훈합니다.
5/4(124일) 아1~4	사랑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통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5/5(125일) 아5~8	진실한 사랑	꾸밈없이 진실하며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죽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6(126일) 왕상11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솔로몬으로 인해 예루살렘엔 우상의 산당들이 세워지고 나라는 분단의 위기에 처합니다.
5/7(127일) 전1~3	인생의 뒤안길에서의 고백	그 누구보다도 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8(128일) 전4~7	유한인생 무한지혜	피조물들인 인생들의 삶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순종하며 다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5/9(129일) 전8~12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전도자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5/10(130일) 욥1~3	욥의 고난과 탄식	의인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11(131일) 욥4~7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욥의 친구들은 큰 환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욥을 찾아왔으나,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5/12(132일) 욥8~10	욥과 빌닷의 첫 번째 논쟁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도 흑백논리로 욥을 판단하여 정죄하기 시작하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토론했습니다.
5/13(133일) 욥11~14	욥과 소발의 첫 번째 논쟁	욥의 탄식까지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소발의 말에 욥은 친구들의 교만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5/14(134일) 욥15~17	욥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친구들과 욥의 변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욥은 또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5/15(135일) 욥18~19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욥은 그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들의 악한 말을 들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5/16(136일) 욥20~21	욥과 소발의 두 번째 논쟁	욥의 형편을 진지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는 친구들, 그들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욥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5/17(137일) 욥22~24	욥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	욥을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로 호도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만을 갈망하며 간구합니다.
5/18(138일) 욥25~31	욥과 빌닷의 세 번째 논쟁	욥의 고난을 계속 죄악의 문제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5/19(139일) 욥32~37	엘리후의 발언	평행선을 긋고 있던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엘리후의 발언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5/20(140일) 욥38~42	하나님의 대답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경영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5/21(141일) 시1~2, 4~9	시와 찬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5/22(142일) 시10~18	시와 찬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23(143일) 시19~27	시와 찬미	깊은 탄식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5/24(144일) 시28~33	시와 찬미	참된 보호자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서 늘 경험하였던 다윗은 그의 노래들 속에 이 확신과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5/25(145일) 시35~41	시와 찬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고 있기에, 악인들의 괴롭힘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붙들고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5/26(146일) 시42~50, 53	시와 찬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이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5/27(147일) 시55~56, 58, 60~66	시와 찬미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뢰하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허리 굽혀 응답하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5/28(148일) 시67~72	시와 찬미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29(149일) 시73~78	시와 찬미	하나님께서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5/30(150일) 시79~85	시와 찬미	시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갈망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다고 노래합니다.
5/31(151일) 시86~89	시와 찬미	하나님께서서는 주의 길을 일심과 전심으로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를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6/1(152일) 시91~102	시와 찬미	시인은 온 땅의 족속들과 나라를 향해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6/2(153일) 시103~106	시와 찬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최우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6/3(154일) 시107~118	시와 찬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시인은 자신의 사정을 스스럼없이 모두 쏟아놓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6/4(155일) 시119	시와 찬미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사모하며 그 교훈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은 그 발에 등이요, 그 길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6/5(156일) 시120~134	시와 찬미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해 오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즐거움이 됩니다.
6/6(157일) 시135~142	시와 찬미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6/7(158일) 시143~150	시와 찬미	왕이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6/8(159일) 왕상12~14	남북분열과 여로보암의 길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연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6/9(160일) 왕상15~16:20	분쟁하는 남북왕국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10(161일) 왕상16:21~17	오므리 왕조	오므리에서 그 아들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은 깊어만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여 보내십니다.
6/11(162일) 왕상18~19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6/12(163일) 왕상20~22	오므리 왕조의 최악과 아합의 최후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등 최악을 일삼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6/13(164일) 왕하1~2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아하시야의 최악 된 삶과 통치로 인해, 아합 시대의 최악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계승됩니다.
6/14(165일) 왕하3~5	엘리사가 베포 기적의 배경	선지자의 제자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엘리사가 베포 기적에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6/15(166일) 왕하6~8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6/16(167일) 왕하9~10	예후의 치적과 엘리사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곧장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마련합니다.
6/17(168일) 왕하11~14	요아스의 치적과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아달라에게 빼앗겼던 왕위를 요아스가 되찾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맞이합니다.
6/18(169일) 암1~5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사회안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6/19(170일) 암6~9	정의를 강물 같이	하나님께서서는 북왕국의 마지막이 이르렀음을 알려주시며 역사의 단절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을 기약하십니다.
6/20(171일) 호1~4	호세아의 고멜 사랑 비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신실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6/21(172일) 호5~9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22(173일) 호10~14	여호와께 돌아오라	패역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6/23(174일) 욘1~4	열방을 향한 사랑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6/24(175일) 왕하15~16	북왕국의 쇠락	신흥제국 앗수르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왕국 내부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6/25(176일) 왕하17~18:12	히스기야의 개혁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왔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6/26(177일) 사1~3	이사야의 소명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의 소명은 당시 만연한 사회의 죄악들에서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6/27(178일) 사4~7	그루터기 비유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거룩한 씨’, ‘그루터기’ 등의 비유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어가실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6/28(179일) 사8~12	구원에 대한 약속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이 지난 다음에는 구원의 대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29(180일) 사13~17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	바벨론과 앗수르, 모압과 아람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운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6/30(181일) 사18~20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별거벗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남유다에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7/1(182일) 사21~24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곧 남유다 백성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2(183일) 사25~29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남유다를 향해 탄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희망을 놓아버린 그곳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7/3(184일) 사30~35	의로 통치하는 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인류를 공의롭게 통치하고 정의로 심판하시며 의로 다스릴 한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4(185일) 왕하18:13~37, 사36	남유다를 위협하는 앗수르	예루살렘을 에워싼 앗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컬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7/5(186일) 왕하19, 사37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십니다.
7/6(187일) 왕하20, 사38~39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생명을 연장 받는 은혜를 누리지만,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7/7(188일) 사40~42	하나님의 위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시며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던 하나님뿐입니다.
7/8(189일) 사43~45	이스라엘의 회복	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7/9(190일) 사46~50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은 열방의 압제를 받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7/10(191일) 사51~55	고난 받는 중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실 것이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7/11(192일) 사56~59	참된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그분을 사모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삶의 자세입니다.
7/12(193일) 사60~63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7/13(194일) 사64~66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7/14(195일) 미1~3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 산성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날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7/15(196일) 미4~7	영광이 회복될 시온 산성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날 거룩한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합니다.
7/16(197일) 왕하21~23	왕정 총결산	므낫세 통치 시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5백 년 왕정을 총결산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7/17(198일) 습1~3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8(199일) 합1~3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크신 경륜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시며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넘쳐 나옵니다.
7/19(200일) 나1~3	열방을 향한 공의	요나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포학을 행하던 앗수르 제국을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20(201일) 욥1~3	마음을 찢으라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21(202일) 왕하24렘1~3	남유다에 대한 설득과 심판	심판이 확정되어 멸망의 문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설득을 위해 보냄을 받습니다.

7/22(203일) 렘4~6	패역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7/23(204일) 렘7~9	주의 계명을 떠난 이스라엘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마음을 찢는 아픔을 호소하십니다.
7/24(205일) 렘10~13	약속을 깨뜨린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7/25(206일) 렘14~16	마음을 돌이키라	거짓을 행하며 헛된 것을 좇았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날, 비로소 이스라엘은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7/26(207일) 렘17~20	남유다의 죄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인신제사의 풍습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7/27(208일) 렘21~23	예레미야의 설득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달게 받으면서, 조상 적부터 반복하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라고 간절히 설득하십니다.
7/28(209일) 렘24~25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7/29(210일) 렘26~28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 없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7/30(211일) 렘29~31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 대한 설득	예레미야는 포로기간이 70년이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7/31(212일) 렘32~33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억압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8/1(213일) 렘34~36	포위 중 항복을 위한 설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에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득하십니다.
8/2(214일) 렘37~38	예레미야의 수난	자신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에 더 귀를 기울였던 예레미야는 고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전합니다.

8/3(215일) 왕하25, 렘39~41	예루살렘 멸망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8/4(216일) 렘42~45	남겨진 남유다 백성의 행동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할 남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불순종이었습니다.
8/5(217일) 렘46~48	열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주인으로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8/6(218일) 렘49~50	세계를 향한 심판	암몬, 에돔, 데만, 다메섹 등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가운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8/7(219일) 렘51~52	하나님의 심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통해 구원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8/8(220일) 애1~2	무너지는 예루살렘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이자, 생명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8/9(221일) 애3~5	소망-주의 인자와 긍휼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기에, 예레미야의 깊은 중심에는 진정한 소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8/10(222일) 읍1	형제가 환난 당하는 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 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8/11(223일) 대상1~3	다윗의 계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담긴 계보를 읽으며, 그 긴 역사의 길을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묵묵히 동행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12(224일) 대상4~5	이스라엘의 족보들 1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유다 자손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현실이 된 것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3(225일) 대상6~9	이스라엘의 족보들 2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 흔적이자 은혜의 통로였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8/14(226일) 대상10~12	왕이 된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공동체로 세워갑니다.

8/15(227일) 대상13~16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은 즐겁게 춤을 추며 온 백성가 함께 기뻐합니다.
8/16(228일) 대상17~20	다윗의 기도와 승전기록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8/17(229일) 대상21~22	다윗의 죄악과 회개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유혹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다윗은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8/18(230일) 대상23~26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운 다윗은 나라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이들을 세웁니다.
8/19(231일) 대상27~29	다윗의 내각과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은 다음 대를 위하여 현명한 이들로 전체 내각을 구성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8/20(232일) 대상1~4	솔로몬의 성전 건축	다윗에 의해 다져진 나라의 기틀과 국가적 리더십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역사가 진행됩니다.
8/21(233일) 대상5~7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솔로몬은 성전과 모든 기구들을 준비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8/22(234일) 대상8~9	솔로몬의 업적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고 아버지로부터 튼튼한 국가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선대의 신앙과 제도를 계승하여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8/23(235일) 대상10~13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이제 남북왕국은 선한 경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야 합니다.
8/24(236일) 대상14~17	남유다 왕국의 초기 왕들	통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아람을 의지했던 아사와 달리, 그 아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부 개혁을 추진합니다.
8/25(237일) 대상18~22	여호사밧의 시대	여호사밧은 율법에 기초한 개혁을 시행하고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북왕국 왕들과 동맹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8/26(238일) 대상23~25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개혁	제사장 여호야다는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를 앞세워 백성의 뜻을 합하고 의로운 정권교체와 신앙개혁을 이루어갑니다.

8/27(239일) 대하26~28	웃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	하나님 편에 선 정치를 행했던 웃시야 및 요담과 달리, 아하스는 앗수르와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8/28(240일) 대하29~31	히스기야의 개혁정치	히스기야는 성전 복구와 유월절 예식의 회복을 통해, 우상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8/29(241일) 대하32~33	히스기야의 회개와 므낏세의 죄악	므낏세는 부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수로로 돌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였습니다.
8/30(242일) 대하34~36	요시야 시대와 남유다 멸망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8/31(243일) 겔1~3	파수꾼으로의 부르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9/1(244일) 겔4~7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을 통해 여러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시며,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그 안에 숨겨진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9/2(245일) 겔8~11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상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게 합니다.
9/3(246일) 겔12~14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목사와 아침하는 복술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고의 세월을 뺀 거짓 평강을 전합니다.
9/4(247일) 겔15~17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	유다 백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도,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5(248일) 겔18~20	심판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9/6(249일) 겔21~22	심판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마지막을 예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받을 벌을 선고합니다
9/7(250일) 겔23~24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	죄악에 물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끝내 하나님의 권유와 설득을 듣지 않고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9/8(251일) 겔25~28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은 교만한 나라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9/9(252일) 겔29~32	애굽에 대한 심판	애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해야 했지만 오히려 교만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9/10(253일) 겔33~35	예루살렘의 함락	포로로 끌려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참된 희망의 근원을 말씀해주십니다.
9/11(254일) 겔36~37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9/12(255일) 겔38~39	침략자 곡에 대한 심판과 멸망	하나님은 곡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높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9/13(256일) 겔40~41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9/14(257일) 겔42~43	하나님의 본뜻	새로운 성전의 양식과 제사 제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9/15(258일) 겔44~46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	새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대에 찬 계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도 명시하십니다.
9/16(259일) 겔47~48	회복과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들은 이스라엘이 새로이 소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17(260일) 단1~2	바벨론 제국에서의 위인	포로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결연한 선택을 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제국에 전해집니다.
9/18(261일) 단3~4	꺾이지 않는 신앙	생명의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9/19(262일) 단5~6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균형 잡힌 영성과 사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9/20(263일) 단7~9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라들과 제국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과 계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9/21(264일) 단10~12	장래의 일들	세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역사와 현실에 간섭하신다는 믿음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줍니다.
9/22(265일) 스1~2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재건세대	출페르시아와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힘을 합해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9/23(266일) 스3~4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70년 전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재건축되기 시작하고 기초가 놓입니다.
9/24(267일) 학1~2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성전 건축 작업은 난관에 부딪쳐 있지만,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바뀝니다.
9/25(268일) 스1~6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9/26(269일) 스7~10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거리와 성읍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의로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은 귀환공동체에 더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9/27(270일) 스11~14	이스라엘의 구원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며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9/28(271일) 스5~6	성전 재건의 기쁨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격려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은 백성은 드디어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29(272일) 에1~5	유다 민족의 위기	유다 민족이 멸절될 급박한 위기 앞에서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민족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9/30(273일) 스6~10	위대한 구원	유다 백성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뻔 하였던 아달월 십삼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승리의 절기인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10/1(274일) 스7~8	에스라의 결심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제사장 에스라는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0/2(275일) 예9~10	개혁을 위하여	민족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기반한 개혁의 주춧돌이 놓입니다.
10/3(276일) 느1~3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목표	동족의 형편을 물을 줄 알았던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최종목표를 위해 중간목표를 세웁니다.
10/4(277일) 느4~7	성벽 재건을 위한 열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한 백성의 노력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10/5(278일) 느8~10	초막절을 기념한 신앙사경회	예루살렘 성벽 건축 후 에스라와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약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0/6(279일) 느11~13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은 약자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0/7(280일) 말1~4	천오백 년의 사랑의 아쉬움	천오백 년간 이스라엘을 향해 변함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거절당하고 맙니다.
10/8(281일) 마1~4	약속의 결정체, 예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10/9(282일) 마5~7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보배로운 말씀은 진정으로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의 실천에 대한 강조로 마무리됩니다.
10/10(283일) 마8~10	예수의 이적과 열두 제자 선택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은 물론, 앞으로 함께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0/11(284일) 마11~13	하늘 비밀을 담은 일곱 가지 천국비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지혜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10/12(285일) 마14~16	예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10/13(286일) 마17~20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생각으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천국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10/14(287일) 마21~23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의 설득	스가라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가 던지는 질문들에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10/15(288일) 마24~25	종말에 관한 설교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알려주시며, 늘 깨어 있어 하루하루를 주님의 가르침 위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10/16(289일) 마26~28	용서를 향한 예수의 열정	사람들에 의해 붙잡히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10/17(290일) 막1~3	열두 제자 선택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10/18(291일) 막4~6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1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으며,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10/19(292일) 막7~8	예수의 이적과 가르침 2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시며 시간과 정성을 쏟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의 이적을 베푸시며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10/20(293일) 막9~10	변화산 사건과 예수의 가르침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주시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10/21(294일) 막11~13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대결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사명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0/22(295일) 막14~16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역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셨으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삼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10/23(296일) 눅1~2	세례 요한 탄생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는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10/24(297일) 눅3~4	구원 사역을 위한 기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10/25(298일) 눅5~6	훈련과 동행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열두 명의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10/26(299일) 눅7~8	예수의 치유와 가르침	예수님께 다가왔던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갑니다.
10/27(300일) 눅9~10	약한 자의 이웃	예수님은 믿음이란 섬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약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10/28(301일) 눅11~13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로로 값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0/29(302일) 눅14~16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죄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10/30(303일) 눅17~18	예수의 치유과 교훈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꺾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만 드러내게 됩니다.
10/31(304일) 눅19~20	약자를 위한 배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11/1(305일) 눅21~22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며, 그들이 인내하고 참아 견디어 마침내 승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11/2(306일) 눅23~24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11/3(307일) 요1~3	들러리의 기쁨	인생들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오실 길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11/4(308일) 요4~6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11/5(309일) 요7~8	죄인을 감싸주시는 예수	죄인을 감싸시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불의한 자들의 계락을 뛰어넘어 오히려 시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11/6(310일) 요9~11	선한 목자이신 예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사랑해주시며 자신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11/7(311일) 요12~13	새 계명을 주심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11/8(312일) 요14~15	예수의 고별설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이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11/9(313일) 요16~17	제자들을 위한 예수의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신 후,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며 기도하십니다.
11/10(314일) 요18~19	예수의 십자가 사역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1/11(315일) 요20~21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의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남기십니다.
11/12(316일) 행1~2	증인이 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11/13(317일) 행3~5	세워지는 초기교회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11/14(318일) 행6~9	그리스도인 핍박과 열방을 향한 흩어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기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11/15(319일) 행10~12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선민의식을 깨고 복음이 만민을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1/16(320일) 행13~15:35	1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바나바와 바울을 주축으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사역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를 공인합니다.
11/17(321일) 행15:36~18:22	2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1/18(322일) 살전1~5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바울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복음을 좇는 데살로니가교회에 칭찬과 기쁨의 편지를 보내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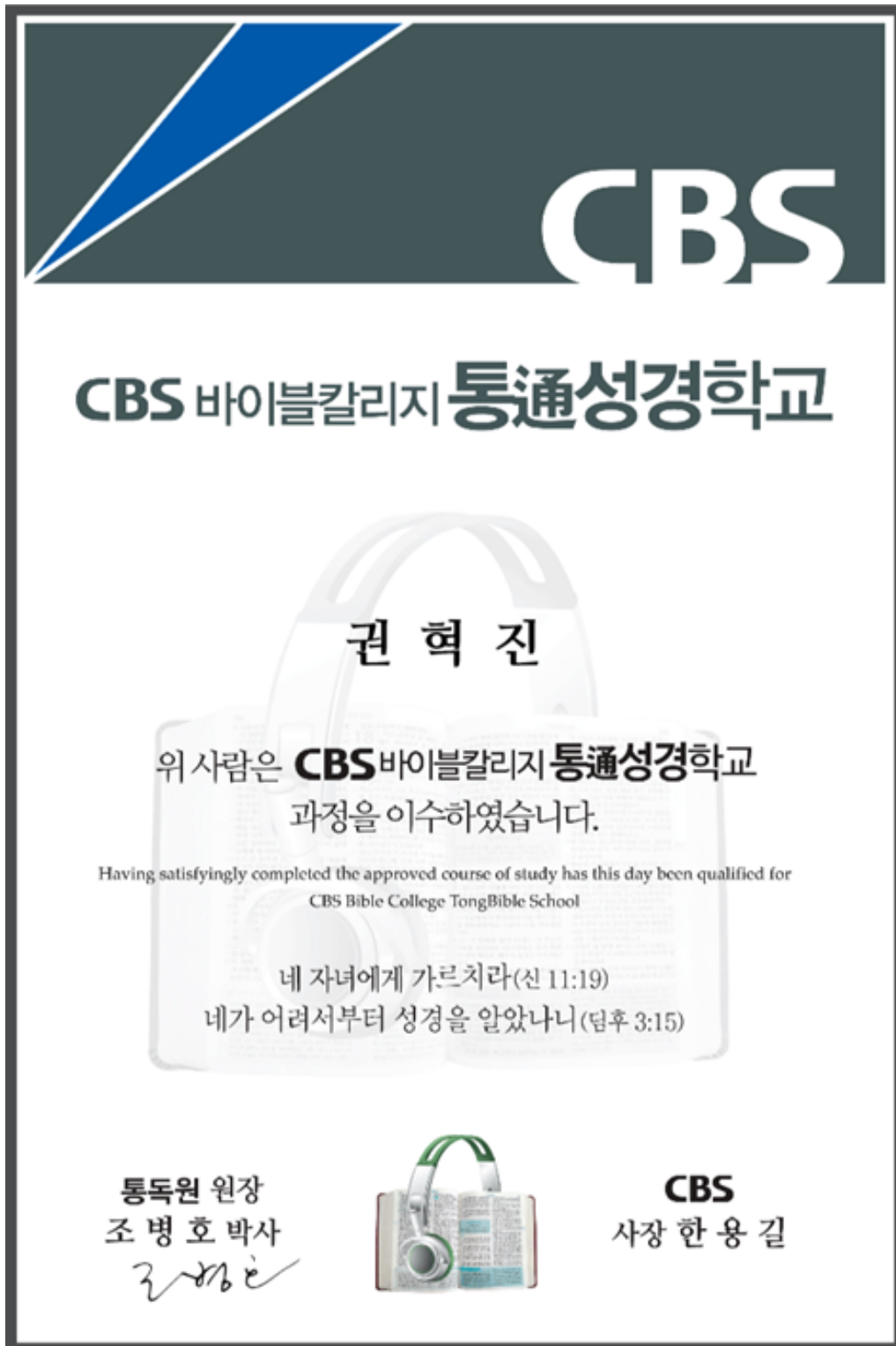
11/19(323일) 살후1~3	수고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에서 일탈한 자들에게 바울은 책임 있는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11/20(324일) 갈1~3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거짓 진리에 휩쓸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11/21(325일) 갈4~6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바울은 믿음을 통해 얻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11/22(326일) 행18:23~19	3차 전도여행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 가운데,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며 집중적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11/23(327일) 고전1~4	십자가의 도	고린도교회 내에 있는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11/24(328일) 고전5~8	교회를 위한 권면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최악은 단호히 잘라내고, 이웃과의 관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가라고 충고합니다.
11/25(329일) 고전9~11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바울의 당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바울, 그의 이러한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1/26(330일) 고전12~14	성령이 주신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쓰임은 교회 내의 화목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11/27(331일) 고전15~16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보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자고 강조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합니다.
11/28(332일) 고후1~4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11/29(333일) 고후5~9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성령의 감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상황과 형편을 넘어 섬김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11/30(334일) 고후10~13	바울의 참된 사랑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12/1(335일) 행20:1~6	롬1~3 복음에 빛진 자	예수의 이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자신이 그 귀한 복음에 빛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12/2(336일) 롬4~7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구속의 은총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12/3(337일) 롬8~11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4(338일) 롬12~14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2/5(339일) 롬15~16	땅 끝 비전과 받음직한 섬김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픈 비전의 사람이며,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한 깊은 배려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12/6(340일) 행20:7~23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바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막았지만, 그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2/7(341일) 행24~26	가이사랴에서의 2년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에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보내고, 황제의 재판관을 청구하여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12/8(342일) 행27~28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12/10(344일) 엡4~6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바울은 창세전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12/11(345일) 빌1~4	고난 중의 기쁨과 감사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 바울, 그의 기쁨은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함께 묶여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12/12(346일) 골1~4	우주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12/13(347일) 문1	기적의 편지	예수 안에서 종과 주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형제가 되자고 제안하는 바울의 이 편지는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전하는 기적의 편지였습니다.

12/14(348일) 딤편전1~6	예수의 선한 일꾼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성어린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2/15(349일) 딤편전1~3	희망의 상속자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과 희망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합니다.
12/16(350일) 딤편후1~4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드립니다.
12/17(351일) 히1~4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12/18(352일) 히5~10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예수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지녔던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12/19(353일) 히11~13	삶으로 증거 되어야 할 이름, 예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시의 고난을 인내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2/20(354일) 약1~5	행함, 믿는 자의 움직임	야고보는 교회 안에 참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교훈합니다.
12/21(355일) 벧전전1~5	소망의 반석	시험과 근심은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 모든 괴로움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12/22(356일) 벧전후1~3	거짓 교훈을 물리쳐라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2/23(357일) 유1	믿음을 위한 투쟁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는 믿음 안에서, 의와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24(358일) 요일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거하는 자로서,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입니다.
12/25(359일) 요일1, 요삼1	사랑과 진리의 조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사랑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권면합니다.

12/26(360일) 계1~3	교회를 위한 성령의 권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면, 인생과 교회들을 향한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12/27(361일) 계4~7	오직 한 분을 위한 노래와 일곱 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12/28(362일) 계8~11	일곱 나팔의 심판과 순교자들	준비된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하십니다.
12/29(363일) 계12~15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	박해의 칼날 아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2/30(364일) 계16~18	공의로운 심판과 준비된 미래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며, 홀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2/31(365일) 계19~22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부록2. CBS 바이블칼리지 통(通)성경학교 수료증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Brown, Francis & Edward Robinson. *The New Brown-Driver-Briggs-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MA: Hendrickson Pub, 1985.

Cusick, John C. and Katherine F.DeVries. *The Baic Guide to Young Adult Ministry*. New York: Orbis Books, Maryknoll, 2001.

Thayer, Joseph & James Strong.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1889.

번역서적

Shaffer, David R. *발달심리학*. 송길연 외 3인.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8.

Wilmington, H. L. *Wilmington's Guide to the Bible*. 박광철 역. *종합성경연구III*.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Com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편집부 역. 서울: NCD, 2017.

Kinnaman, David. *You Lost Me*.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선숙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Lawrence, O. Richards. *교육신학과 실제*.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1.

Soderholm, M.E. *학생을 이해하려면*.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Perkins, William. *The art of Propheying & the Calling of the Ministry*. 채천석 역.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Sweet, Leonard.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 김애정 외 7인. 서울: 좋은씨앗, 2004.

한국어서적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김영래. *미래 교육 목회*. 서울: 땅에쓰신글씨, 2010.

- 김지철. *청년에게 비전을 주는 목회*. 서울: 목회와 신학, 1999.
- 박상진.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 이석진. *콩나물 청년들에게*. 서울: 넥서스CROSS, 2011.
- 이춘재 외. *청년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정장복. *설교학 서설*. 서울: 엠마오, 1992.
- 조병호. *마음과 생각 1~12월호*.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선지자와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성경을 통(通)한 기도*.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즐기*.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 조병호. *쉬운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 서울: 통독원, 2013.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통(通)바이블*. 서울: 통독원, 201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안내지*.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通)성경학교 어드밴스북 2*. 서울: 통독원, 2017

논문, 잡지

강경태. “성경통독이 성도의 설교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무학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강동구.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꿈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고승모. “통성경 포플라를 적용한 내러포 설교가 회중개발에 미치는 영향-함안 중앙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김광중.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세계*. 2015, 526-554.

김한성. “통(通)성경 방법을 통한 성경듣기에 대한 연구-48시간 역사순 성경듣기와 1년 10번 성경듣기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12, *신학과실천*, 2007, 9-37.

- 문병재. “통(通)/내러포설교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하나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논문, 드루대학교, 2016.
- 박광수.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엄선문. “청년대학부 성장을 위한 소그룹 사역방법.”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8.
- 윤성구. “지역교회 청년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제자훈련 방안.”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 이기훈. “큐티의 영성-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3.
- “매일성경 1-12월호.”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12-2014.
-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Tong 21 자료집* (2007).
- “청년대학부를 알면 목회가 보인다.”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성장 세미나 자료집* (1998).

Website.

<http://dic.naver.com/> 국어사전

<http://www.tongbooks.com>. 통독큐티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yeok Jin Kweon

Place and Date of Birth: Ulsan, Republic of Korea, August.07, 1976

Parent's Names: Suhyeon Kweon and Gyeongran Jo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Hong Myeong High School 360, Onsan-ro, Cheongnyang-myeon, Ulju-gun, Ulsan,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3, 1995
Collegiate: Kosin University 194, Wachi-ro, Yeongdo-gu, Busan, Republic of Korea.	B.A.	Feb. 20, 2003
Graduate: Korea Theological Seminary 535-31, Chungjeol-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M.Div.	Feb. 21, 2006
Graduate: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33-7, Daeyang-ro 285beon-gil, Deogyang-gu, Goyang-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M.	Feb. 22, 201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Hyeok Jin Kweon

Name typed

May 4, 2018

Date